

경제학개론

경제학의 기본전제와 주요원리 / 1주차 1차시

1. 경제학이란?

■ 경제학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이 하는 경제행위, 경제문제와 경제현상을 다루는 학문

■ 경제행위의 주체

- 가계
- 기업
- 정부
- 해외부문

■ 경제행위의 객체

- 생산물
 - 재화와 서비스
- 자원
 - 인적자원과 비인적자원
- 경제문제
 - 경제활동(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교환하고 소비하는 활동)에 따르는 문제
예) 가게가 어떤 집을 얻고 어떤 옷을 사며 식단을 어떻게 짤 것인가?
기업이 어떤 상품을 어떻게 얼마나 생산하고 어떻게 판매할까?
빈곤과 기아의 문제, 금융위기, 경제위기와 낮은 성장, 높은 실업의 문제 등
- 경제현상
 - 경제활동과 관련된 현상
- 경제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 경제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내고 대처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기업은 흥하며 국가는 부강해짐
- 경제활동
 - 정치 · 사회 · 학술 · 문화 · 오락 등 다른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인간활동임
- 경제란?
 - 경제
 - ☞ 경국제민(經國濟民 :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함)
 - ☞ 경세제민(經世濟民 :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함)의 준말
 - 공자
 - ☞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 (民은 食爲天)

- 경제문제 해결
 - ☞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이자 치국의 기본
- Economy(경제)의 어원
 - ☞ 그리스어의 오이코 노미아(Oiko nomia)
 - ☞ 오이코 노모스(Oiko nomos : 집사, 관리인)가 하는 일
 - ★ 근검절약

2. 경제학의 기본 전제

1) 자원은 희소하다 : 희소성

- 사람들의 욕망에 비하여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단인 자원이 부족
 - 희소성은 상대적인 개념임
 - 희소성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
- “인생은B(Birth)와 D(Death) 사이에 C(Choice)이다.”
<JeanPaul Sartre(1905~1980)>

2) 세상에 공짜는 없다

- 자원을 어느 한 용도에 쓴다면 다른 용도에 쓸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은 공짜가 아님
- 무슨 일이든 비용이 들게 마련임

3)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 합리적인 선택
 - 주어진 여건에서 가장 잘 선택한 것
예) 소비자는 주어진 소득으로 가급적 높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함.
기업은 주어진 기술과 자원으로 가능한 한 싸게 생산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함
- 경제인(Homoeconomicus)
 -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합리적인 사람
- 경제적 효율(성)
 - 자원량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
 - 최대효과의 원칙
 - 또는 일정한 목적을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는 것
 - 최소비용의 원칙
- 유리한 여건 조성
 - 여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가는 것도 동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임

3. 경제학의 주요원리

- 경제학의 주요원리 1
 -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함
 -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
- 경제학의 주요원리 2
 - 한 활동의 진짜 비용은 그 활동의 기회비용임
- 경제학의 주요원리 3
 - 합리적인 선택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짐
 - 한계원리
 - 비용편익분석
 - 어떤 활동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가려주는 기준
 - ☞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그 활동을 해야 함
 - ☞ 비용이 편익보다 크면 하지 말아야 함
 - 한계원리
 - 한다면 얼마나 할 건가를 알려주는 기준
 - ☞ 추가적인 활동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그 활동을 늘려야 함
 - ☞ 추가적인 활동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작으면 그 활동을 줄여야 함
- 경제학의 주요원리 4
 -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선택해야 함
 - 비교우위의 원리
- 경제학의 주요원리 5
 - 특화와 분업, 자발적인 거래는 모든 당사자들을 이롭게 함
- 경제학의 주요원리 6
 - 시장은 균형을 향하여 움직임
- 경제학의 주요원리 7
 - 사람들의 소득은 그들이 제공하는 생산자원의 시장가치에 의해 결정됨
- 경제학의 주요원리 8
 - 정부가 때로는 시장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음
- 경제학의 주요원리 9
 - 단기와 장기에 성과가 아주 다를 수 있음
- 경제학의 주요원리 10
 - 장기에 한 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있음
- 경제학의 주요원리 11
 - 돈은 경제활동의 유통유 - 그러나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름
- 경제학의 주요원리 12
 -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단기에 상충관계가 있지만 장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 경제학의 주요원리 13

- 경제정책은 단기의 경기변동과 장기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침

경제학의 방법론 / 1주차 2차시

1. 경제학의 분류

1) 경제학의 탄생

- 영국의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가 1776년에 『국부론』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를 펴냄으로써 경제학을 독립된 사회과학으로 출발시킴

2) 학문체계상의 분류

■ 경제이론, 경제사, 경제정책론

- 경제이론
 - 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여러 경제현상 사이에 존재하는 법칙을 규명하고 그 법칙을 이용하여 현재의 경제현상을 설명하거나 미래의 경제현상을 예측하는 분야
- 경제사
 - 과거의 경제를 연구하는 분야
- 경제정책론
 - 어떤 경제상태가 바람직하며 그 바람직한 경제상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분야

3) 가치판단의 유무에 따른 분류

■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

- 실증경제학(Positive Economics)
 - 경제현상을 '있는 사실' 그대로 분석하고 경제현상 간에 존재하는 법칙을 발견하여 경제현상의 변화를 예측하는 경제학 분야
 - ☞ 보통 경제학이라고 말할 때는 이 실증경제학을 지칭함
-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
 - '바람직한 상태'를 설정하고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경제학 분야
 - ☞ 경제정책론이 규범경제학에 속함
 - ★ 규범경제학은 실증경제학의 바탕 위에 전개되어야 함

4) 연구대상에 따른 분류

■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와 그 상호작용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제학
-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 개별 경제주체들로 구성된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제학
 - 총생산 · 총고용 · 물가 · 통화량 · 재정 · 경제성장 · 국제수지 등의 경제지표를 주로

다름

2. 이론경제학의 구성

1) 경제이론의 세 가지 단계

■ 가정의 도입

- 자원과 생산기술에 관한 가정
- 제도와 조직에 관한 가정
 - 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독점시장인가, 경쟁시장인가 등
- 경제주체들의 행태에 관한 가정
 - 합리적인 선택

■ 경제모형의 설정

- 경제변수들 간에 인과관계를 설정
- 경제모형은 대개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때 A라는 일이 일어나면 B라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
 - "If A occurs, then B will occur, other things being equ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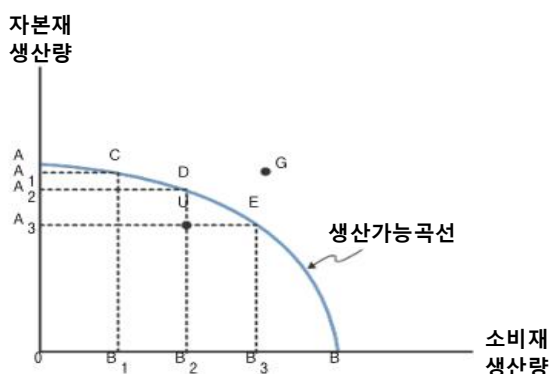
■ 경제모형의 검증

-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모형이 현실과 일치하는가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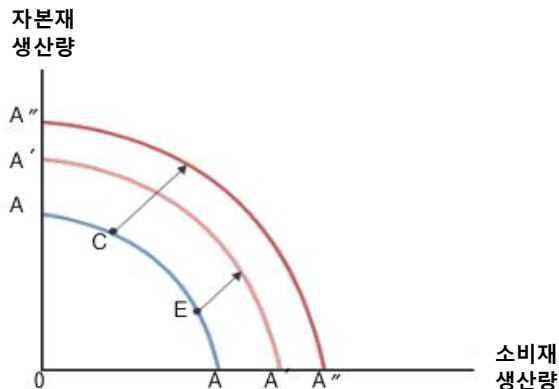
2) 경제모형의 예

■ 생산가능곡선

- 한 사회의 자원과 기술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사회가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두 생산물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
 - 생산가능선경계선이라고 함
- 생산가능곡선은 우하향함
-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 대하여 오목하게 우하향함
 - 기회비용체증의 법칙
- "어떤 활동의 기회비용은 그 활동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대안들 가운데 최선의 대안에서 얻을 수 있었을 가치이다."
- 자원의 비동질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회비용 체증이 성립



■ 경제성장은 생산가능곡선의 바깥 이동으로 표시됨



■ 현재와 미래를 위한 자원사용의 선택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침

- 소비재 생산을 늘릴수록 현재는 좋지만 미래 생산능력이 작아짐(E점)
- 생산재 생산을 늘릴수록 현재 소비는 줄지만 미래 생산능력과 미래 소비가 커짐(C점)

3. 이론경제학의 방법론

1) 방법론과 오류

■ 인과의 오류와 구성의 오류를 피하고 경제이론의 주관성과 진화를 인식해야 함

- 귀납법과 인과의 오류
 - 귀납법 :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끌어내는 방법
 - ☞ 귀납법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과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함
- 인과의 오류
 - 여러 경제현상들 간 인과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A라는 현상이 B라는 현상보다 먼저 관찰되었다는 이유로 A가 B의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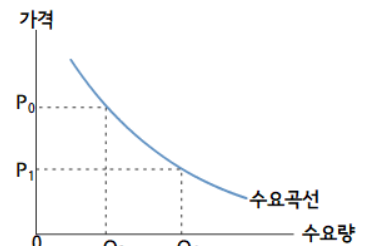
■ 연역법과 구성의 오류

- 연역법
 -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사실이나 법칙으로부터 다른 구체적인 사실이나 법칙을 끌어내는 방법
 - ☞ 연역법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성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함
- 구성의 오류
 - 부분이 참이라고 해서 전체도 반드시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
 - ☞ 거시경제학을 단순히 미시경제학의 연장, 확대로 취급하지 않고 별도로 취급하는 이유도 구성의 오류 때문임

2) 이론경제학의 표현방법

■ 이론경제학은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

예) 수요의 법칙에 대한 세 가지 표현방법

서술적인 방법	수리적인 방법	기하학적인 방법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때 어떤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그 생산물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증가) 한다.	$Q^D = f(P) \frac{\Delta Q^D}{\Delta P^D} < 0$ <p> Q^D : 한 상품에 대한 수요량 P : 상품가격 </p>	

경제문제와 경제체제 / 2주차 1차시

1. 기본적인 경제문제 : 어느 사회든 풀어야 할 경제문제

-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What and how much to produce)
-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How to produce)
-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For whom to produce)
- 언제 생산할 것인가 (When to produce)

2. 경제체제: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풀어나가는 제도나 방식

1) 전통경제

- 기본적인 경제문제들이 전통적인 관습이나 신분제도 등에 의해 해결되는 경제체제
 - 근세에 자본주의가 출현하기 이전의 다양한 경제체제
- 원시사회
 - 씨족이나 촌락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자급자족경제
 - 칼 마르크스는 이를 원시공산경제라 함
 - ☞ 기본적인 경제문제는 집단의 원로들이나 촌락집회에 의해 결정됨
- 고대사회
 - 사유재산과 노예제도가 생겨 원시사회의 평등한 관계가 경제적 지배 · 피지배의 관계로 바뀜
 -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언제,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노예소유주에 의해 결정
- 중세사회
 -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하는 영주들이 토지를 농민에게 빌려주고 농민으로부터 고율의 지대를 받는 봉건제도가 주류를 이룸
 -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언제는 농민이 결정
 - 누구를 위하여는 영주가 결정

2) 자본주의경제

- 사유재산제도와 경제적 자유를 두 축으로 하여 개별 경제주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기이익(Self Interest)을 추구하는 가운데 시장에서 기본적인 경제문제들이 해결되도록 하는 경제체제
 - 사유재산제도
 - 한 사회의 자본과 토지 등 생산수단을 대부분 개인이 소유하고 소유자가 생산수단을 자유롭게 사용 · 처분할 수 있는 제도
 - 경제적 자유
 - 경제행위에 대한 개인의 의사결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

예)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 자유시장경제·시장경제
 - 자유로운 시장경제활동을 강조하여 자본주의경제를 자유시장경제, 혹은 시장경제라 함
- 발달과정
 - 15C 중엽부터 18C 중엽까지 발달한 상업자본주의에서 시작
 - 18C 산업혁명으로 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등장한 산업자본주의가 원형이 됨
 - ☞ 산업자본주의는 19C 후반부터 심한 빈부격차와 주기적인 공황을 경험함

3) 사회주의경제

■ 배경

- 산업자본주의에서 나타난 부익부 빈익빈의 빈부격차와 공황 등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자본주의와 정반대의 경제체제로 출현

■ 발달과정

- 1917년 러시아에서 노동자 · 농민혁명이 일어나 처음으로 등장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구권과 중국 · 베트남 · 쿠바 · 북한 등이 소련의 뒤를 이어 사회주의경제를 채택

☞ 1980년대까지 전세계 인구의 $\frac{1}{3}$

4)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의 비교

비교기준	자본주의경제	사회주의경제
생산수단 소유	사유화	국유화
추구하는 주요가치	효율 · 자유	형평 · 자립
조정기구(자원배분기구)	시장	계획(명령)
계획 수립 및 추진자	개별 경제주체	중앙계획당국
의사결정방식	분권화	중앙집권화
경제행위의 동기	이윤 / 손실(물질적 유인)	포상 / 벌(비경제적 유인)
운영원칙	개인주의 · 경쟁원칙	집단주의 · 협동원칙
생산	가격지향적	목표량지향적

■ 자본주의 경제의 단점

- 소득과 자산의 분배가 불공평함
-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번갈아 일어나며 경제가 불안정함
- 탐욕스런 이윤추구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되고 사익과 공익의 괴리가 일어남

■ 사회주의경제의 단점

- 자원배분이 비효율적
- 경직적인 계획의 수정장치가 없음
-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여 개인의 자유가 제약되고 독재정치가 불가피함

■ 각체제의 단점은 그대로 상대체제의 장점이 됨

예) 자본주의 경제의 장점

-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활발한 기술진보
- 오류를 자동 수정하는 시장기구로 체제면의 유연성
-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민주주의와 손잡고 나감

5) 현대의 경제체제: 혼합경제(자본주의경제 + 사회주의경제)

■ 자본주의경제 → 혼합경제

- 1930년대 대공황을 겪고 난 후 자본주의국가들은 사유재산제도의 큰 골격을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의 단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경제에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혼합경제임

■ 사회주의경제 → 혼합경제

- 사회주의경제는 1960년대 이후 계획경제를 주축으로 하고 시장경제요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혼합경제였음
 - 그러다가 1991년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해체되면서 동구권과 러시아 등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체제전환국이 되었음

■ 시장경제

- 오늘날 모든 나라의 경제체제는 혼합경제임
 - 시장경제가 주축이거나 주축이 되어 가는 혼합경제
 - 이 혼합경제를 시장경제로 부름

시장경제의 원리와 작동 / 2주차 2차시

1. 시장과 가격

- 시장 : 사람들이 상품을 사고 팔게 해 주는 매개체
예) 백화점, 편의점, 사이버마켓
- 가격 : 상품 1단위와 교환되는 화폐액

2. 가격의 기능

-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에 유용한 신호 전달
- 유인 제공
- 자율적인 조정 기능

3. 시장경제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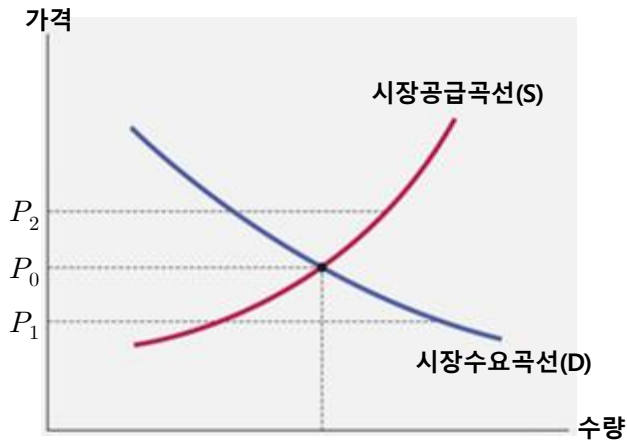
- 가격과 이윤은 중요한 경제적 유인기제
- 자유로운 경쟁이 있어야 발전이 있음
- 수요 있는 곳에 공급 있음
- 경제적 성공과 실패는 자기의 몫 : 자기책임의 원칙
- 경쟁과 경제적 성패는 동태적 과정임
- 자원배분의 주역할은 시장이 맡는 것이 나옴
- 법치가 중요함
- 특허와 분업, 자발적인 시장거래는 모든 당사자들을 이롭게 함
- 시장은 균형을 향하여 움직임
- 사람들의 소득은 그들이 제공하는 생산자원의 시장가치에 의해 결정됨

4. 가격의 결정: 수요 · 공급의 이론

- 시장수요량
 - 시장에서 사고자 하는 수량
- 시장공급량
 - 시장에서 팔고자 하는 수량
- 자유시장기구
 - 수요 · 공급의 이론이 작용하는 시장조직(시장기구, 가격기구)

■ 수요 · 공급의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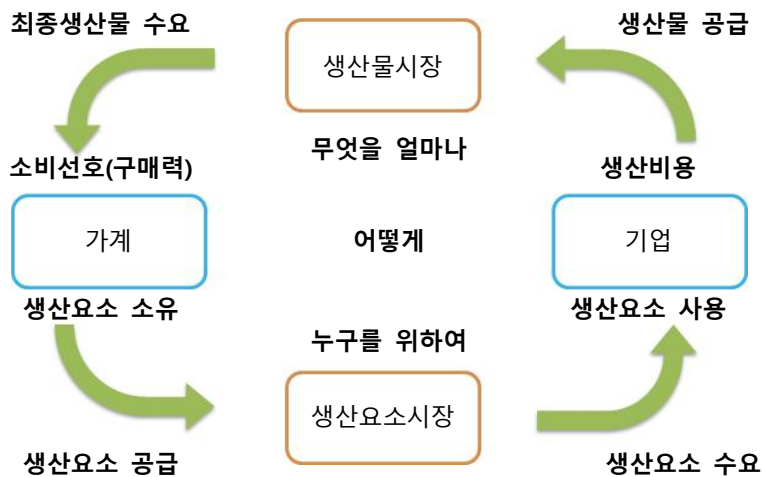
- 상품의 시장수요량과 시장공급량이 일치하도록 가격이 인도한다고 보는 이론



- 시장수요곡선 : 상품의 시장가격과 시장수요량의 관계 → 우하향하는 곡선
 - 시장공급곡선 : 상품의 시장가격과 시장공급량의 관계 → 우상향하는 곡선
 -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이 만나는 수준에서 시장가격이 결정됨
 - 인위적인 배분과정이 없어도 가격의 인도로 시장에서 균형거래량과 균형가격이 결정됨
- ☞ 위 그림의 경우 P_0 가 균형가격, Q_0 가 균형거래량

5. 시장경제와 기본적인 경제문제

1)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 시장에 나와있는 가계들이 얼마나 사고싶어 하는가에 따라 각 상품의 시장수요곡선의 위치가 정해짐
- 시장에 나와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팔고싶어 하는가에 따라 각 상품의 시장공급곡선의 위치가 정해짐
 - 각각의 생산물시장에서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이 만나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됨

-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이 세로축에서 멀리 떨어져 만나는 상품은 많이 생산
-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세로축에 가깝게 만나는 상품은 적게 생산

2)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언제 생산할 것인가?

-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생산활동을 통해 저절로 해결됨
- 예) 기술진보로 생산비가 적게 드는 기업이 이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위축되고 자칫하면 도태된다.
- 예) 다른 기업보다 나은 품질의 상품을 공급하는 생산자는 더 많은 소비자를 끌게 된다.
- 자유시장경제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활발한 기술혁신이 일어나도록 유도함

3)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 개별생산물 차원
- 균형가격 이상으로 돈을 치를 의사와 능력이 있는 소비자가 재(財)를 소비함
- 전반적인 소비수준
- 소비자가 어느 재를 균형가격으로 살 의사와 능력이 있느냐의 여부는 그의 소득에 의존함
 - 시장경제에서 소비자의 소득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의 수량과 그 요소의 가격에 의해 결정됨(물개성적)
- 사람마다 보유하는 생산요소의 수량과 가치가 다름. 따라서 소득분배가 불균등해짐
- 자유시장경제가 분배문제를 고르게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당위성이 성립
- 자유시장기구는 '보이지 않는 손'
- 자유시장기구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언제' 생산할 것인가를 신이나 정부의 개입 없이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해결하는데 그 결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짐. 이를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 표현
- 이기적인 본능이 이타심이나 희생정신 등 인간심성의 고귀한 측면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동기를 부여함

소비선호와 수요곡선 / 3주차 1차시

1. 효용

1) 소비선호와 효용함수

■ 효용

-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소비자의 만족

■ 효용함수

- 일정기간에 소비자가 각각의 소비바구니에서 얻을 수 있는 총효용의 크기를 나타낸 것

- 가장 간단한 효용함수

$$U = U(X, Y)$$

U : 소비자 (총)효용

$U(X, Y)$: 비자 효용은 X재와 Y재에 의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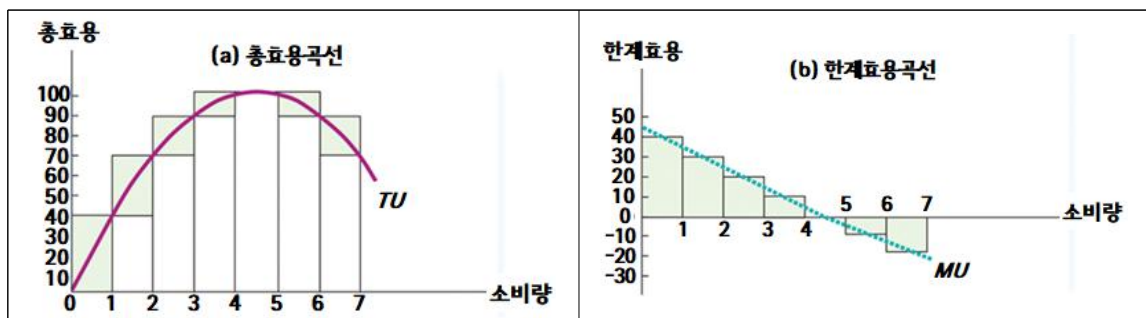
(+), (+)

■ 총효용과 한계효용

-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MU)
- 재(財)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총효용의 증가분
- X재 한계효용(MUX) $\frac{\text{총효용의 변화분}(\Delta U)}{\text{X재 소비량의 변화분}(\Delta X)} =$
- Y재 한계효용(MUY) $\frac{\text{총효용의 변화분}(\Delta U)}{\text{Y재 소비량의 변화분}(\Delta Y)} =$

■ 총효용

- 전체소비량에서 얻는 효용



■ 총효용과 한계효용의 관계

- 재화 n 단위의 총효용은 n 단위까지 각 단위의 한계효용을 모두 합한 것과 같음
- 한계효용이 양이면 총효용은 증가함
- 한계효용이 음이면 총효용은 감소함
- 한계효용이 0이면 총효용은 불변인 채 극대가 됨

2.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 다른 상품들의 소비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 상품의 소비량이 증가하면 그 상품의 한계효용이 점점 감소하는 것
-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효용이 증가하더라도 점점 조금씩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 우하향의 한계효용곡선으로 표시됨
 - 한계효용의 감소 \Rightarrow 총효용의 감소
 - ☞ 소비량이 감소하면 한계효용은 체증(점점 증가)함

1)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생산물 수요곡선

■ 합리적인 소비생활: 소비의 한계원리

- 합리적인 소비
 - 소비자가 한정된 소득을 가지고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소비하는 것
 - ☞ 가게의 예산제약식하에서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 맞게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임
-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 각 상품의 한계효용을 그 상품의 가격으로 나눈 값이 모든 상품에 걸쳐 같도록 소비하라는 것

경제활동의 최적원리인 한계원리(한계편익 = 한계비용)를 소비에 적용시킨 것

$$\frac{MU_X}{P_X} = \frac{MU_Y}{P_Y}$$

P_X : X재 시장가격
 P_Y : Y재 시장가격
 - $P_X = P_Y$ 이면 $MU_X = MU_Y$
 - X재 소비를 1단위 늘릴 때 얻는 편익은 MU_X
X재 소비를 1단위 늘릴 때 드는 비용은 MU_Y
 - ☞ 왜냐하면 Y재 소비를 1단위 포기하여 MU_Y 만큼 효용을 잃기 때문임
 - ☞ 따라서 한계편익이 한계비용과 같아야 한다는 한계원리임
 - $P_X \neq P_Y$ 이면 X재 소비를 1단위 늘릴 때 얻는 편익은 MU_X
 - X재 소비를 1단위 늘릴 때 YY재 소비를 $\frac{P_X}{P_Y}$ 단위 포기해야 함
 - ☞ 이에 따라 $\left(\frac{P_X}{P_Y}\right)MU_Y$ 만큼의 효용을 잃음
 - ☞ 늘어나는 효용과 잃는 효용이 한계적으로 같아야 효용이 극대화됨

$$\Rightarrow MU_X = \frac{P_X}{P_Y} \times MU_Y \Rightarrow \frac{MU_X}{P_X} = \frac{MU_Y}{P_Y}$$

- $\frac{M_X}{P_X} > \frac{M_Y}{P_Y}$ 의 경우

- ☞ X재 소비의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큰 상황
- ☞ X재 소비를 약간 늘리고 Y재 소비를 약간 줄임으로써 효용 증가
- ☞ 이런 소비조정이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의해 부등식을 등식으로 유도함

2) 효용극대화조건

■ 가계 예산제약식

- $P_X X + P_Y Y = I$
-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3. 가계의 생산물 수요곡선

1) 가계의 생산물 수요곡선

■ 수요량

- 소비자가 재화를 사고자 하는 욕구가 수요
- 사고자 하는 수량이 수요량

■ 수요함수

-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수요량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관계

$$\bullet D_X = f(P_X, I, T, P_R, E, W)$$

- ☞ D_X : 상품 X에 대한 수요량
- ☞ P_X : 상품 X의 가격
- ☞ I : 소비자의 소득
- ☞ T : 소비자의 선호
- ☞ P_R : 연관상품의 가격
- ☞ E : 소비자의 예상
- ☞ W : 소비자의 재산

$$\bullet D_X = f(P_X, I, T, P_R, E, W)$$

- X재 수요곡선

- X재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X재 가격만 변경시킬 때, X재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곡선

■ 수요의 법칙

- 다른 요인들이 일정할 때, 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상품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
- 우하향하는 (생산물)수요곡선으로 표현됨

■ 한계효용의 이론

- 가격의 예산제약식과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최적 소비행태를 설명하고 우하향의 생산물수요곡선을 도출함
- 합리적인 소비생활 조건(최적소비조건)

$$\frac{MU_X}{P_X} = \frac{MU_Y}{P_Y} \dots\dots\dots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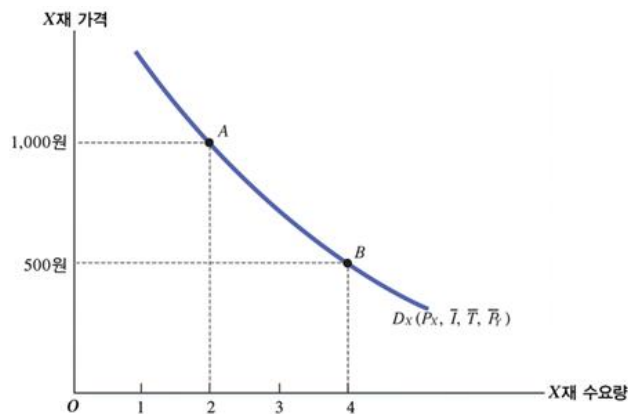
$$P_X X + P_Y Y = I \dots\dots\dots (II)$$

- $P_X = 1,000$ 원, P_Y, I 가 주어져 있을 때, (I), (II)를 만족시키는 최적소비 바구니가 $X = X^* = 2, Y = Y^*$ 라 가정함
- P_Y, I 는 불변인 채 P_X 가 1,000원에서 500원으로 하락한다면 $X^* = 2, Y = Y^*$ 가 더이상 최적소비 바구니가 아님³
- $X^* = 2, Y = Y^*$ 에서는 이제

$$\frac{MU_X}{P_X} > \frac{MU_Y}{P_Y} \dots\dots\dots (I)'$$

$$500 \times 2 + P_Y Y < I = 1000\text{원} \times 2 + P_Y Y \dots\dots\dots (II)' \text{ 이기 때문}$$

- (I)'식을 등식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X재 소비량을 늘리거나 Y재 소비량을 줄여야 함
 - (II)'식을 등식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X재 소비량과 Y재 소비량을 늘려야 함
- ☞ 따라서 X재 소비량은 (예컨대 2개에서 4개로) 종전보다 늘어나야 함



- 소득효과(Income Effect)
 - 가격하락(상승)이 소비자의 가용소득을 늘리는(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
 - ☞ P_X 의 하락은 I 의 증가와 같이 X재, Y재 소비를 증가시킴
-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
 - 상대적으로 싼 재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재의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
 - ☞ X재 가격이 하락하면 X재가 상대적으로 싸지고 Y재가 상대적으로 비싸짐

2) 수요곡선의 이동

■ 해당상품의 가격 이외에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변하면 수요곡선 전체가 이동

- 수요의 증가 : 수요곡선 전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
- 수요의 감소 : 수요곡선 전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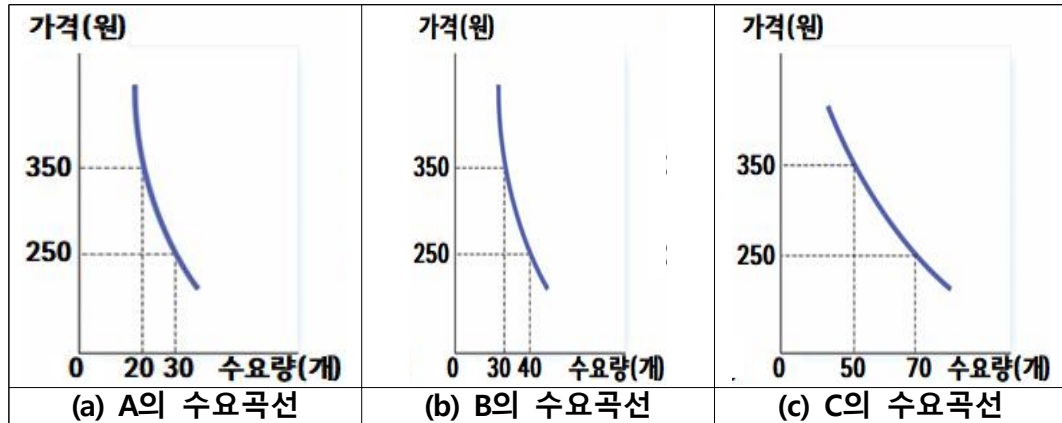
■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

- 소비자의 소득
 - 정상재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는 상품 (Normal Goods)
 - 열등재 :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감소하는 상품 (Inferior Goods)
- 소비자의 선호
 - 선호가 증가 → 수요가 증가
 - 선호가 감소 → 수요가 감소
- 관련상품의 가격
 - 대체재
 - ☞ 용도가 비슷하여 한 상품 대신에 다른 상품을 소비해도 얻는 만족에는 별 차이가 없는 상품 Substitute Goods
 - ★ 소비면에서 대체관계에 있는 두 상품 X재와 Y재의 경우 X재의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Y재의 수요가 증가(감소)
 - ★ P_X 상승 \Rightarrow X재 수요량 감소 \Rightarrow Y재 수요량 증가
 - ★ 위 관계는 Y재 가격에 관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 ★ Y재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Leftrightarrow Y재 수요 증가
 - 보완재
 - ☞ 한 상품씩 따로따로 소비할 때보다 함께 소비할 때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상품들. Complementary Goods
 - ★ 소비면에서 보완관계에 있는 두 상품 X재와 Z재의 경우 X재의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Z 재의 수요는 감소(증가)
 - ★ P_X 상승 \Rightarrow X재 수요량 감소 \Rightarrow Z재 수요량 감소 \Rightarrow Z재 수요 감소
- 독립재
 - ☞ 한 상품의 가격변동이 다른 상품의 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들
- 예상
 - 장래에 가격상승(하락)이 예상될 경우 → 오르기 전에 사기 위해 당기의 수요가 증가(감소)
- 재산
 - 소비자의 재산이 증가(감소) → 수요가 증가(감소)

3) 생산물의 시장수요곡선

■ 시장수요곡선

- 모든 소비자들이 사고자 하는 해당상품의 수요량을 보여주는 곡선
 - 개별수요곡선의 수평적 합계로 구함



- 개별소비자들의 수요곡선이 오른쪽(왼쪽)으로 이동하면 시장수요곡선도 오른쪽(왼쪽)으로 이동함
 - 이 외에 소비자의 수에 따라서도 시장수요곡선이 이동함

4. 가치의 역설과 한계효용의 이론

1) 가치의 역설

- 물은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유용한 재화인데 값이 아주 싼

- 꼭 필요하지 않은 재화인 다이아몬드는 값이 아주 비쌈
-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1776)에서 처음으로 제기해 스미스의 역설이라고도 함
- 스미스의 표현
 - 물은 사용가치가 높고 다이아몬드는 사용가치가 낮음
 - ☞ 그런데 물의 교환가치는 아주 낮고 다이아몬드의 교환가치는 아주 높음
 - ☞ 왜 그럴까?

- 가치의 역설은 1세기가 지나 1870년대에 등장한 한계효용의 이론으로 역설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

-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총효용이 아닌 한계효용임
 - (한계원리에 의해) 수량이 많아 한계효용이 낮은 물은 가격이 낮고, 수량이 적어 한계효용이 높은 다이아몬드는 가격이 높음

■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frac{MU_W}{P_W} = \frac{MU_D}{P_D}$$

-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서 사람들이 물 소비에서 얻는 한계효용(MU_W)은 낮고 다이아몬드 소비에서 얻는 한계효용(MU_D)은 높음
☞ 따라서 P_W 는 낮고 P_D 는 높아야 함

수요의 탄력도와 생산요소시장에서의 가격의 선택 / 3주차 2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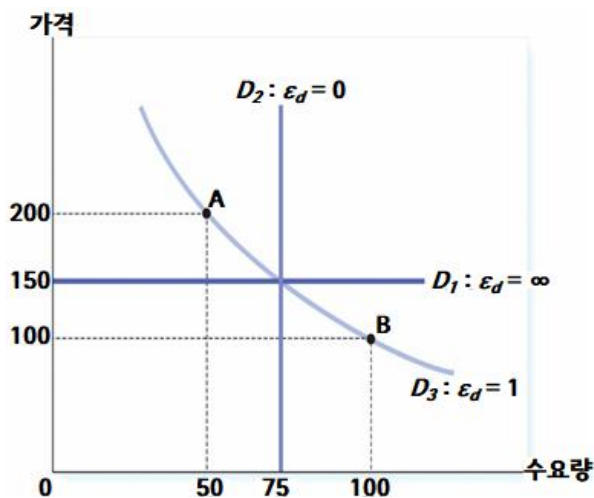
1. 수요의 가격탄력도

■ 수요의 가격탄력도(Price Elasticity of Demand: ε_D)

$$\text{수요의 가격탄력도}(\varepsilon_D) = \left| \frac{\text{수요량의 변화율}}{\text{가격의 변화율}} \right|$$

$$\left| \frac{\frac{\Delta Q^D}{Q^D} \times 100}{\frac{\Delta P}{P} \times 100} \right| = \left| \frac{\Delta Q^D}{P^D} \right| \times \frac{\Delta Q^D}{\Delta P} \times \frac{\text{평균가격}}{\text{평균수요량}}$$

- 수요의 (가격)탄력도를 계산할 때 P는 최초의 가격과 새 가격을 평균한 가격
- Q^D 는 최초의 수요량과 새 수요량을 평균한 수량을 씀
 - 예) 수요의 탄력도가 2 : 가격이 1% 오를(내릴) 때, 수요량이 2% 감소(증가)함
- 단위탄력적
 -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1
- 탄력적
 -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1보다 큰 경우
 - 무한히 클 경우 완전탄력적
- 비탄력적
 -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1보다 작은 경우.
 - 0일 경우 완전비탄력적



■ 수요의 탄력도와 가계지출

- 가계지출액 = $P \times Q$
- 수요가 탄력적이면
 - $P \uparrow \Rightarrow Q \downarrow \downarrow$ (가격변화율보다 더 크다는 뜻에서 화살표 두 개 표시),
☞ 따라서 $PQ \downarrow$
 - $P \downarrow \Rightarrow Q \uparrow \uparrow$
☞ 따라서 $PQ \uparrow$
-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 $P \uparrow \uparrow \Rightarrow Q \downarrow$
☞ 따라서 $PQ \uparrow$
 - $P \downarrow \downarrow \Rightarrow Q \uparrow$
☞ 따라서 $PQ \downarrow$

수요의 가격탄력도와 총지출(혹은 총수입)		
수요의 탄력도	가격 하락	가격 상승
탄력적($\varepsilon_d > 1$)	총지출 증가	총지출 감소
단위탄력적($\varepsilon_d = 1$)	총지출 불변	총지출 불변
비탄력적($\varepsilon_d < 1$)	총지출 감소	총지출 증가

■ 수요의 탄력도의 결정요인

- 대체재의 유무와 다소
 -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도가 큼
- 상품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중요성
 - 생활필수품일수록 비탄력적임
- 상품의 가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비중이 큰 상품일수록 탄력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음
- 기간의 장단
 - 같은 가격의 변화라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력도가 커짐
ex) 소금은 수요의 탄력도가 아주 낮음

2) 수요의 교차탄력도

■ 한 상품의 수요가 다른 관련 상품의 가격변화에 반응하는 정도

$$X\text{재 수요의 } Z\text{재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도} = \frac{X\text{재 수요량의 변화율}}{Z\text{재 가격의 변화율}}$$

- X재와 Z재가 대체재일 때
 - $Z\text{재 가격 상승} \Rightarrow Z\text{재 수요량 감소} \Rightarrow X\text{재 수요량 증가}$
☞ Z재 가격과 X재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교차탄력도가 양의 값
 - 보완재
☞ 교차탄력도가 음의 값

- 독립재
☞ 교차탄력도가 0

3. 가계의 노동공급곡선과 자금공급곡선

1) 노동시장과 가계의 노동공급곡선

-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에도 합리적 선택의 문제가 따름

■ 노동

- 여가시간의 최적 배분
-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으로 설명

$$\frac{MU_X}{P_X} = \frac{MU_Y}{P_Y}$$

X재: 일반소비재, Y재: 여가

P_X : X재 가격,

P_Y : 여가의 기회비용, 임금

- 임금(P_Y)이 상승하면 종전의 노동 - 여가시간에서 $\frac{MU_X}{P_X} > \frac{MU_Y}{P_Y}$
 - X재 소비를 늘리거나 Y재 소비를 줄여야 등식 회복
 - Y재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노동시간을 늘린다는 것
☞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공급량이 증가함
-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 임금이 올랐을 경우
 - 소득효과
☞ 임금 상승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여 여가를 증가시킴 \Rightarrow 노동공급 감소
 - 대체효과
☞ 임금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비싸진 여가의 소비를 줄임 \Rightarrow 노동공급 증가
 - 단기에는 임금이 오르면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커 노동공급이 증가
 - 장기에는 소득효과가 커 노동공급이 감소할 수 있음
☞ 노동공급의 후방굴절현상
- 노동공급의 임금탄력도

$$\text{노동공급의 임금탄력도} = \frac{\text{노동공급량의 변화율}}{\text{임금의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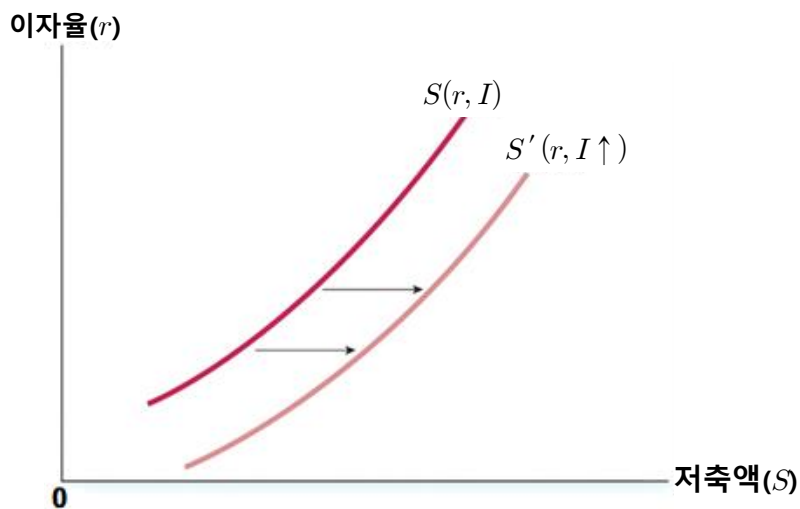
2) 생산요소시장에서의 가계의 자금공급

■ 금융시장과 가계의 자금공급곡선(보론)

- 금융시장(Financial Market, Loan Market)
 -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 받는 시장

■ 가계저축

- 가계가 일정기간 동안에 번 소득을 다 쓰지 않고 남긴 몫
 - 실물저축과 금융저축으로 나누어짐
 - ☞ 가계의 금융저축은 금융시장의 자금공급으로 나타남
- 대부자금의 결정요인
 - 가계의 소득과 이자율이 금융저축의 크기를 결정
 - ☞ 이자율이 상승하면 금융저축은 증가 \Rightarrow 가계의 자금공급곡선은 우상향
 - ☞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면 가계의 자금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



- 이자율 상승의 두 효과
 - 소득효과
 - ☞ 이자율 상승에 따르는 미래소득의 증가로 현재소비가 증가하면 주어진 현재소득에서 그만큼 저축이 감소함
 - 대체효과
 - ☞ 이자율이 오르면 저축의 보상이 크기 때문에 현재소비의 가격이 비싸 지고 미래소비의 가격이 싸지는 셈.
 - ★ 따라서 현재소비가 감소하고 금융저축과 미래소비가 증가
 - 일반적으로 이자율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큼
 - ☞ 따라서 개별가계의 자금공급곡선은 우상향함
 - ★ 이를 수평으로 합해 시장자금 공급곡선을 도출

기업의 합리적인 생산 활동 / 4주차 1차시

1. 기업과 이윤

1) 기업이란?

■ 생산

- 사람에게 쓸모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인간활동

■ 기업

- 생산을 담당하는 주체. 생산자, 공급자라고도 함
- 기업의 소유자나 경영자를 기업가, 기업인이라고 부름
 - 영리기업 :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영리기업의 유형

- 개인기업
 - 개인이 단독으로 생산활동을 수행
- 합명회사
 - 둘 이상 같이 하는 회사
- 주식회사
 - 주식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회사
 - 소유자는 주식의 소유자인 주주이지만 기업의 경영은 별도의 경영자가 맡음

2) 이윤이란?

■ 이윤

-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이
 - 이윤(π) = 총수입(TR) - 총비용(TC)

■ 총수입

- 단일 제품 판매수입이 기업의 유일한 수입이라고 가정하면 총수입은 상품의 시장가격과 판매량을 곱한 것임
 - 총수입(TR) = 상품의 시장가격(P) × 판매량(Q)
- 매기에 생산한 것을 재고를 남기지 않고 시장에 모두 판다고 가정
 - ⇒ 생산량 = 판매량 = 공급량(의도된 판매량)

■ 완전경쟁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경쟁기업)을 상정

- (완전)경쟁시장
 - 수많은 가게와 기업이 가격수용자로 행동하면서 주어진 시장가격하에 동질의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 파는 시장

2. 생산기술과 생산함수

1) 생산요소와 생산물

■ 자원

- 인적자원
 - 노동이나 기업경영능력
- 비인적자원
 - 인적자원 이외의 자원, 자연자원과 생산재(자본, 자본재)

■ 생산요소

-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자원 또는 투입물
- 인적자원을 노동으로, 자연자원을 토지로 대표시킴
- 세 가지 본원적인 생산요소라 함
 - 노동, 토지, 자본
- 기술
 -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생산하는가에 관한 지식의 집적
 - 자원의 수량이 주어져 있을 때 생산물의 수량을 결정해 줌

2) 생산함수란?

■ 생산함수

- 일정기간에 각 생산요소의 조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생산량을 보여주는 함수

■ 자본 · 노동 · 토지를 이용해 일반적인 생산함수를 상정하면

$$Q = F(K, L, N)$$

(+)(+)(+)

단, Q : 한 제품의 매기당 총 생산물수량(총생산량)

K : 매기당 투입되는 자본량

L : 매기당 투입되는 토지량

N : 매기당 투입되는 노동량

■ 각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달라지면 제품의 생산량이 달라짐

- 생산함수는 투입량과 생산량의 기간을 명시해야 하는 유량 개념
 -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주어져 있을 때 가장 우수한 생산기술로 얻을 수 있는 최대생산량을 보여줌

3) 단기생산함수와 수확체감의 법칙

■ 단기생산함수

- 자본이나 토지 등 적어도 한 생산요소의 수량이 고정되어 있는 기간 중의 생산함수

예) $Q = F(\bar{K}, \bar{L}, N)$: 자본과 토지가 일정하고 노동량만 변하는 생산함수

■ 노동의 한계생산물(Marginal Product of Labor : MP_N)

$$MP_N = \frac{\text{총생산량의 변화부}(\Delta Q)}{\text{고용량의 변화분}(\Delta N)} = \frac{F(\bar{K}, \bar{L}, N + \Delta N) - F(\bar{K}, \bar{L}, N)}{\Delta N}$$

- 다른 요소들을 고정시킨 채 노동자 한 사람을 더 고용할 때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생산물 수량

■ 수확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Retur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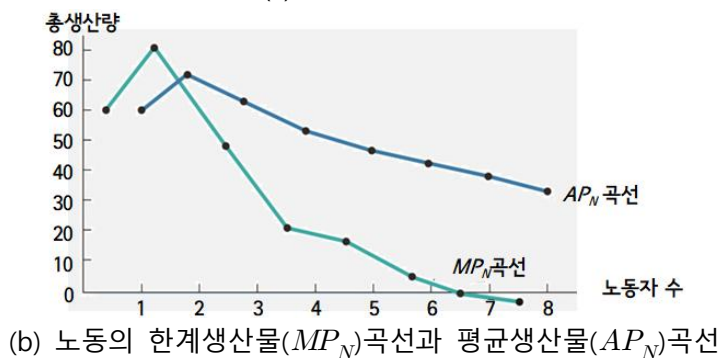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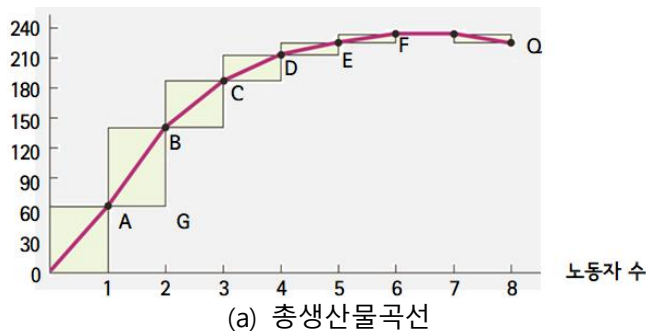
or 한계생산물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Marginal Products)

- 다른 생산요소들은 고정시켜 놓고 한 가변요소를 증가시킬 때 어떤 단계를 지나고 나서는 그 가변요소의 한계생산물이 점점 감소하는 현상
 - 제3세계에 고질적인 식량부족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수확체감의 법칙 때문
 - 수확체감의 법칙을 궁극적인 수확체감의 법칙이라고도 함

4) 한계생산물과 평균생산물의 관계

■ 노동의 평균생산물(Average Product of Labor : AP_N)

- 총생산물을 노동자 수로 나눈 것
- 노동자 1인당 생산량 : $\frac{Q}{N}$



■ 한계생산물과 평균생산물의 관계

- 한계생산물과 평균생산물은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최대점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는 감소
- 한계생산물이 처음에는 평균생산물보다 크지만 나중에는 작아짐
- 한계생산물이 평균생산물과 같을 때 평균생산물이 최대

- 한계생산물이 평균생산물보다 크면 평균생산물을 끌어올리고 한계생산물이 평균생산물보다 작으면 평균생산물을 끌어내림

- 총생산물과 한계생산물의 관계 = 총효용과 한계효용의 관계

5) 장기생산함수와 규모에 대한 보수

■ 장기에는 노동뿐 아니라 자본과 토지도 가변요소가 됨

$$Q = F(K, L, N)$$

- 노동의 한계생산물(MPN)이나 자본의 한계생산물(MPK) 개념은 다른 요소는 고정이고 한 요소만 변할 때의 추가적 생산량 개념이므로 모든 요소가 변하는 장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 규모에 대한 보수

-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

-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2배, 3배로 증가하면 생산량도 2배, 3배로 증가함

- 규모에 대한 보수증가(규모의 경제)

-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2배, 3배로 증가하면 생산량은 2배, 3배를 초과하여 증가함

- 규모에 대한 보수감소(규모의 비경제)

-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2배, 3배로 증가하면 생산량은 2배, 3배보다 적게 증가함

- 생산의 일반적인 현상

- 기업의 생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처음에는 규모에 대한 보수증가가 일어나고 계속 커지면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을 거쳐 보수감소가 일어남

■ 처음에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는 원인

- ① 분업과 특화

예) 스미스의 핀(Pin, 못바늘) 생산

- ② 물리적 법칙

- ③ 경영의 효율성

- ④ 금전상의 이득 : 대량구매할인, 대량판매시 비용 절약

■ 궁극적으로 규모의 비경제가 일어나는 원인

- 생산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위 ①, ②, ③이 규모의 비경제의 원인으로 바뀌어 ④를 압도하기 때문

3. 비용과 생산

1) 비용이란?

■ 명시적 비용(Explicit Cost)

-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실제로 화폐로 지불한 비용

■ 잠재적 비용(Implicit Cost)

- 기업이 자신이 기업에 투입한 노동·토지·생산자금 등에 대한 적절한 보수
- 귀속비용(Imputation Cost)이라고도 함

- 투입한 생산요소의 종류에 따라 귀속임금 · 귀속임대료 · 귀속이자로 구성
ex) 손익계산서

(a)회계학		(b)경제학			
총수입	600	총수입		600	
총비용=명시적 비용	320	총비용=총기회비용		630	
임금	200	명시적 비용	320		
보수용품	40	임금	200		
이자	20	보수용품	40		
임대료	60	이자	20		
		임대료	60		
		잠재적 비용	310		
		귀속임금	300		
		귀속이자	10		
회계적 이윤	280	경제적 이윤		-30	

■ 경제적 이윤(Economic Prof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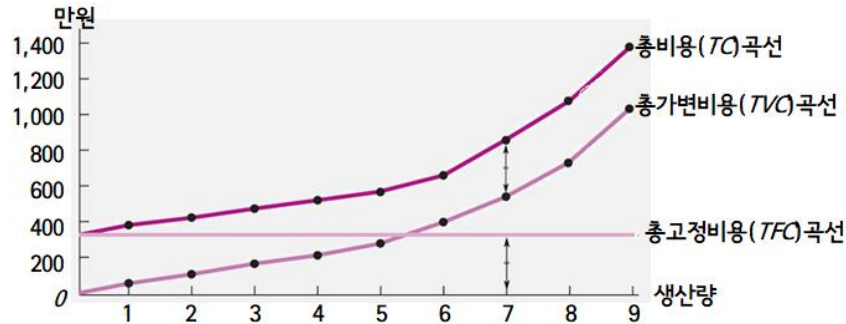
- 총수입에서 총비용(명시적 비용 + 잠재적 비용)을 뺀 것
 - 경제적 이윤 > 0
 - ☞ 생산요소가 기회비용 이상의 보상을 받으므로 해당 산업이 확장됨
 - ☞ 초과이윤 상황
 - 경제적 이윤 < 0
 - ☞ 생산요소가 기회비용만큼의 보상도 받지 못하므로 해당 산업이 쇠퇴함
 - ☞ 손실 상황
 - 경제적 이윤 = 0
 - ☞ 기업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올 유인이 없으므로 평균적으로 산업에 배분되는 자원규모는 불변
 - ☞ 정상이윤 향유

2) 단기비용과 단기비용곡선

■ 총비용(Total Cost : TC) = 총고정비용 + 총가변비용

- 총고정비용(Total Fixed Cost : TFC)
 - 기업이 매기당 모든 고정요소에 대해 치르는 비용
 -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
- 총가변비용(Total Variable Cost : TVC)
 - 기업이 매기당 모든 가변요소에 대해 치르는 비용
 -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함

■ 생산량 변화에 따른 비용 변화



■ 평균비용(Average Cost : AC)

- 총비용을 총생산량으로 나눈 것

- 생산량 1단위당 비용 $\left(\frac{TC}{Q}\right)$

$$\bullet \text{ 평균고정비용(AFC)} = \frac{\text{총고정비용(TFC)}}{\text{총생산량(Q)}}$$

$$\bullet \text{ 평균가변비용(AVC)} = \frac{\text{총가변비용(TVC)}}{\text{총생산량(Q)}}$$

$$\bullet AC = \frac{TC}{Q} = \frac{TEC + TVC}{Q} = \frac{TEC}{Q} + \frac{TVC}{Q} = AFC + AVC$$

■ 한계비용(Marginal Cost : MC)

■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증가하는 비용 $\left(\frac{\Delta TC}{\Delta Q}\right)$

$$MC = \frac{\text{총비용의 변화분}(\Delta TC)}{\text{고용량의 변화분}(\Delta Q)} = \frac{\Delta(TEC = TVC)}{\Delta Q} = \frac{\Delta TVC}{\Delta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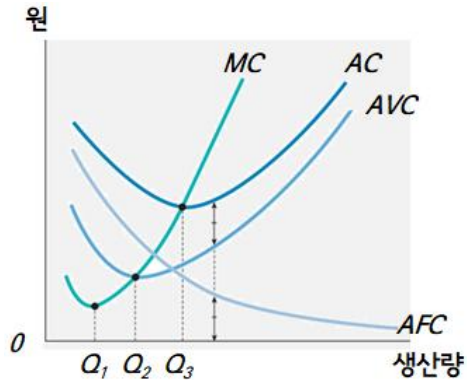
- 총고정비용은 생산량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Delta TFC = 0$

- 한계비용은 생산량 한 단위를 증감시킬 때 일어나는 총가변비용의 변화분임

■ 일반적으로 평균비용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은 U자형임

- U자형의 평균비용곡선은 거꾸로 U자형의 평균생산물곡선에서, U자형의 한계비용곡선은 거꾸로 U자형의 한계생산물곡선에서 도출(단기생산함수의 수확체감의 법칙을 반영)

■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의 관계



-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작으면 평균비용이 감소
-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크면 평균비용이 증가
-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이 같을 때 평균비용이 최소
- 평균가변비용(AVC)과 한계비용의 관계도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의 관계와 같음
- 평균고정비용(AFC)은 단조롭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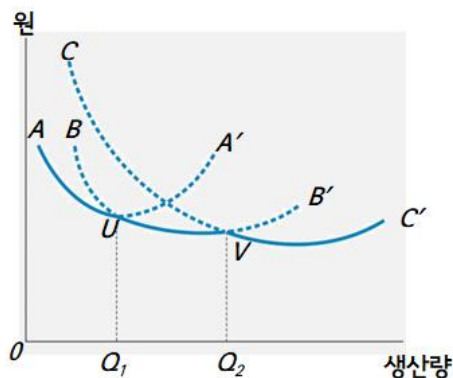
3) 장기비용과 장기비용곡선

■ 장기비용곡선

- 모든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변경시킬 경우 생산량과 그 생산량을 생산하는 최소비용을 짝지은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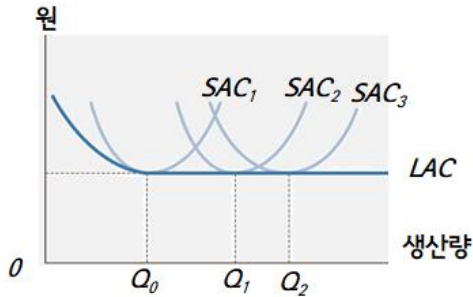
■ 장기평균비용곡선

- 생산시설규모가 가변적일 때 각각의 생산량을 최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단기평균비용곡선상의 점들을 연결한 곡선



- 일반적으로 생산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처음에는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지만 나중에는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을 거쳐 규모의 비경제로 바뀌기 때문에 장기평균비용곡선은 접시 모양의 U자형을 취함

■ 최적시설규모와 최소효율규모



- 최적시설규모
 -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과 접하는 단기평균비용곡선을 가지는 시설규모
 - 그림에서 SAC_1 , SAC_2 , SAC_3 를 가지는 시설규모는 모두 최적시설규모
- 최소효율규모
 - 규모의 경제가 막 끝나는 생산량 Q_0 를 최소의 평균비용으로 생산하는 시설규모
- 최적생산량
 - 최적시설규모의 단기평균비용곡선에서 최소의 평균비용을 보이는 생산량

4)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 범위의 경제

- 한 제품의 생산이 다른 제품의 생산의 영향을 미친다면 일단의 제품들을 따로따로 생산하는 것보다 같이 생산할 때 비용이 적게 들면 범위의 경제가 있다고 함

경쟁기업의 생산물공급과 요소수요 / 4주차 2차시

1. 경쟁기업과 시장의 생산물공급곡선

1) 경쟁기업의 균형

■ 이윤극대화 생산량

- 총비용 : 총수입의 값이 가장 클 때의 생산량



- 위 그림에서 Q_0 가 이윤을 극대로 하는 생산량임

2) 총수입 · 평균수입 · 한계수입의 관계(경쟁기업의 경우)

■ 평균수입(AR) = $\frac{\text{총수입}(TR)}{\text{총생산량}(Q)}$

$$AR = \frac{TR}{Q} = \frac{P \cdot Q}{Q} = P \text{ (상품의 시장가격)}$$

■ 한계수입(MR) = $\frac{\text{총수입의 증가분}(\Delta TR)}{\text{총생산량의 증가분}(\Delta Q)}$

$$MR = \frac{\Delta TR}{\Delta Q} = \frac{P \cdot \Delta Q}{\Delta Q} = P \text{ (시장가격)}$$

- 시장가격은 경쟁기업의 한계수입이자 평균수입

• $P = AR = MR$

3) 경쟁기업의 생산물공급곡선

■ 기업은 이윤을 극대로 하는 최적생산조건에서 기업의 생산물공급량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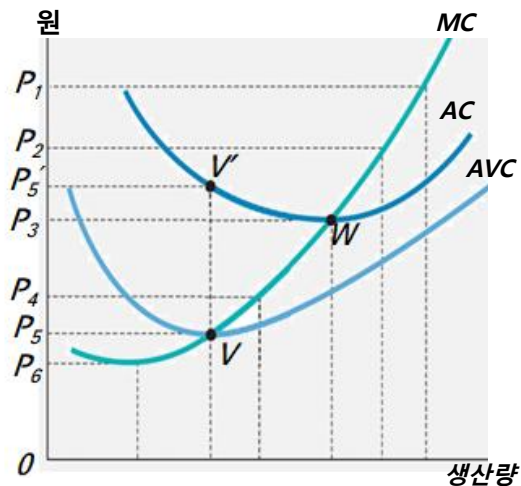
- 한계원리

- 시장가격이 한계비용보다 크면 생산을 증가시키고 시장가격이 한계비용보다 작으면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이윤을 늘리는 길임
- ☞ 시장가격(P)이 한계비용(MC)과 같은 생산량 수준에서 이윤이 최대가 됨
-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생산물 공급곡선은 우상 향하는 한계비용 곡선임

■ 공급량과 공급가격

- 공급량
 - 기업이 매기당 팔고자 하는 생산물 수량
- 공급가격
 - 각각의 생산물 수량에 대하여 기업이 꼭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최저가격
- 생산물공급곡선
 - 각 가격에서 공급량을, 각 생산량에서 공급가격을 보여줌

■ 조업중단점과 손익분기점



① $P_5 \sim P_3$ 구간

-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는 크지만 평균비용보다는 작은 구간
 - ☞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작아 손실을 보는 상황
 - ☞ 손실을 보더라도 생산을 중단할 때의 손실인 총고정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

② P_5 미만 구간

- 생산을 통해 평균가변비용의 수입도 얻지 못하므로 생산을 중단함
 - ☞ 이때 P_5 가격수준의 V점을 조업정지점 또는 생산중단점이라 함

③ $P > P_3$ 인 구간

- $P = MC$ 인 생산량을 공급하면서 초과이윤을 수취함
 - ☞ 따라서 생산중단점(V)을 상회하는 가격에서의 한계비용곡선이 기업의 공급곡선이 됨

4) 경쟁시장의 생산물공급곡선각

- 가격수준에서 개별기업의 공급량을 수평으로 합하여 시장공급곡선을 구함
-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면 시장공급곡선도 우상향함
- 개별공급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을 공급의 법칙이라 함

5) 공급곡선의 이동

■ 시장공급곡선의 구체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요인

- 생산기술, 요소가격, 조세와 정부보조금, 예상, 산업 내에 있는 기업의 수 등
 - I. 생산기술이 진보할 때
 - II. 요소가격이 하락할 때
 - III. 기업이 파는 제품에 세금을 감면할 때
 - IV. 정부가 기업에 생산보조금을 줄 때
 - V. 제품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 VI. 기업의 수가 늘어날 때
 - 시장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공급의 증가와 감소

- 공급의 증가 :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
- 공급의 감소 :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

6) 공급의 가격탄력도

■ 공급의 가격탄력도

$$\frac{\text{공급량의 변화율}}{\text{가격의 변화율}}$$

예) 카메라가격이 1% 오를 때 시장공급량이 1.5% 증가하면 카메라공급의 가격탄력도는 1.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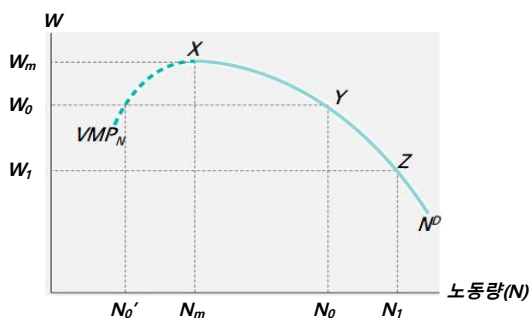
■ 탄력도

- 탄력도 > 1
 - 탄력적 $\rightarrow \infty$ 이면 완전탄력적
- 탄력도 < 1
 - 비탄력적 $\rightarrow 0$ 이면 완전비탄력적
- 탄력도 $= 1$
 - 단위탄력적

2. 경쟁기업의 요소수요곡선

1) 경쟁기업의 요소수요곡선

■ 기업의 이윤극대화와 노동수요곡선



- ①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면 노동고용에 따른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져야 함
 - 노동고용의 한계수입
 - ☞ 노동의 한계생산물 × 제품가격 = $MP_N \times P = VMP_N$
 - 노동고용의 한계비용
 - ☞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드는 비용 = 임금 = w
 - 기업은 $MP_N \times P = VMP_N = w$ 인 수준까지 고용
- ② 경쟁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VMP_N)곡선
- ③ 우상향하는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곡선부분은 이윤을 극소화하는 고용량을 보여 줌
 - 예) 임금이 w_0 일 때 $VMP_N = w_0$ 인 고용량 N_0' 은 이윤을 극소화시킴
- ④ 장기에도 위의 원리를 이용하여 자본, 토지의 요소고용조건을 구할 수 있음
 - 노동 : $VMP_n = MP_n \times P = \text{임금 } (w)$
 - 자본 : $VMP_K = MP_K \times P = \text{자본임대료 } (r_1)$
 - 토지 : $VMP_L = MP_L \times P = \text{토지임대료 } (r_2)$

2) 경쟁시장의 요소수요곡선

- 요소의 시장수요곡선의 위치를 결정하는 요인
 - 요소의 한계생산물, 생산물가격, 생산기술, 다른 요소수량
 - 요소의 한계생산물과 생산물가격이 클수록, 생산기술이 우수해질수록, 다른 요소수량이 많아질수록 요소수요가 커짐
- 요소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요소수요의 증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요소수요의 감소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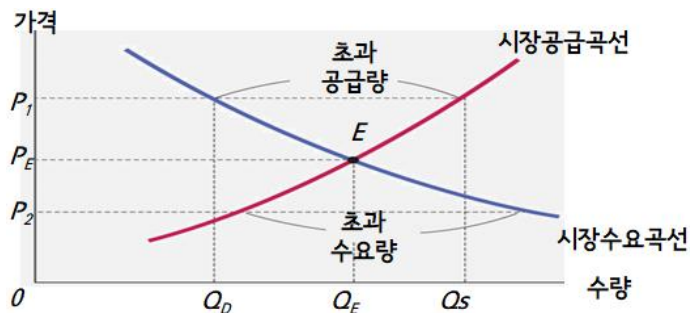
수요 · 공급의 이론과 자원배분 및 소득분배 / 5주차 1차시

1. 생산물 가격과 거래량

1) 생산물 가격과 거래량의 결정

■ 균형가격과 거래량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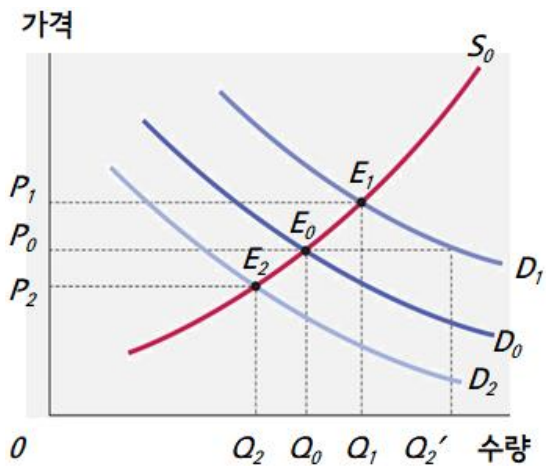
- 균형 : 일단 도달하면 다른 상태로 바뀔 유인이 없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



- E : 균형점
 - 시장공급곡선과 시장수요곡선이 만나는 점.
 - 이때의 가격 P_E 를 균형가격, 거래량 Q_E 를 균형거래량이라 함
 - 시장가격이 P_E 일 때 매기당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생산물수량과 모든 기업이 팔고자 하는 수량이 Q_E 로 같아 바뀔 유인이 없기 때문
- P_1 : 초과공급(량) \Rightarrow 물자과잉
 - 수요일보다 공급량이 커 매기당 재고가 쌓임
 - 기업들이 재고를 처리하려고 가격을 낮추게 됨
 - 가격을 낮추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공급량이 감소해 이중으로 초과공급이 축소됨
 - 균형가격이 될 때까지 시장가격은 계속 하락압력을 받게 됨
 - 결국 E 수준으로 균형이 회복
- P_2 : 초과수요(량) \Rightarrow 물자부족
 - 소비자들 이 웃돈을 주고서라도 더 사려고 함
 - 소비자간 경쟁으로 시장가격이 오름
 - P_E 에 도달할 때까지 이런 조정과정이 계속됨
- 수요 · 공급의 이론
 - 현실시장에서 관측되는 시장가격과 거래량을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의 교차로 설명하는 이론
 - 시장가격이 변하면 이는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이 이동함으로써 균형가격이 변한 것으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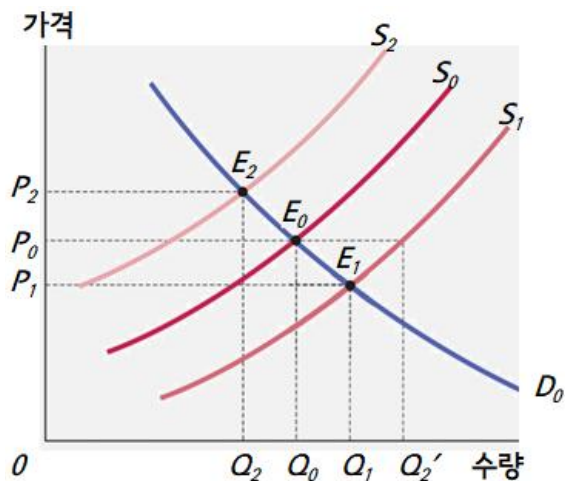
2) 생산물가격과 거래량의 변동

■ 수요만 변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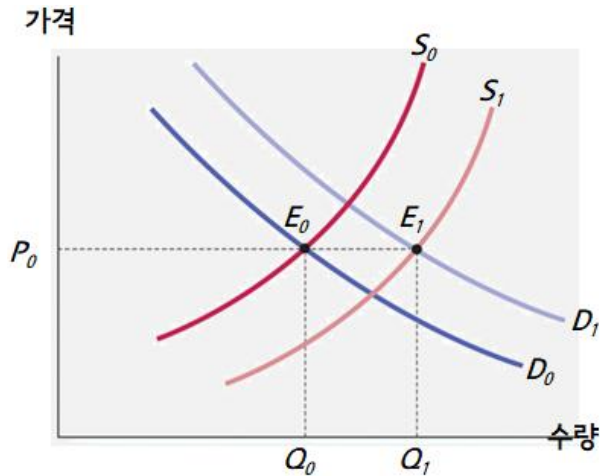
- 최초의 수요곡선 Q_0 , 균형 E_0
- 수요곡선이 D_1 처럼 오른쪽으로 이동
 - 수요증가 \rightarrow 종전가격 P_0 에서 Q_0Q_0' 만큼 초과수요(량) 존재 \rightarrow 가격상승 압력
 - \rightarrow 새 균형 E_1 : 최초 균형점에 비해 가격상승, 거래량 증가
- 수요곡선이 D_2 처럼 왼쪽으로 이동
 - 수요 감소 \rightarrow 가격하락, 거래량 감소

■ 공급만 변할 경우



- E_0 : 균형
- S_1 : 공급증가 \rightarrow 종전가격 P_0 에서 초과공급(량) 존재 \rightarrow 가격하락 압력
- \rightarrow 새균형 E_1 : 가격하락, 거래량 증가
- S_2 : 공급감소 \rightarrow 가격상승, 거래량 감소

■ 수요와 공급이 같이 변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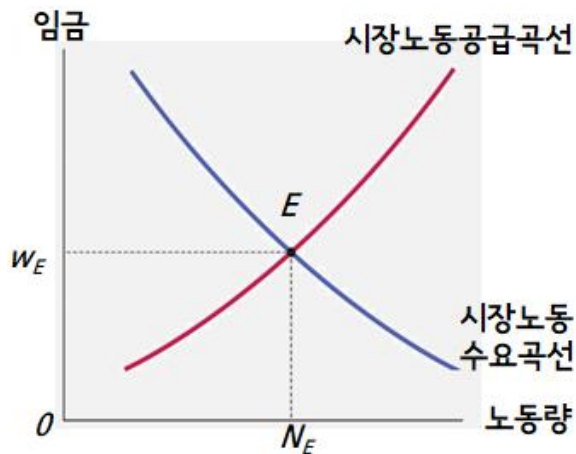


- 수요와 공급 둘 다 증가할 때 가격은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느냐에 따라 결정됨
- 거래량은 어느 한 곡선이 이동하는 것보다 더 많이 증가

3) 생산요소 가격과 거래량의 결정 : 소득분배

■ 노동시장과 임금소득

-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임금소득
 - 노동량에 임금을 곱한 사각형 OW_EEN_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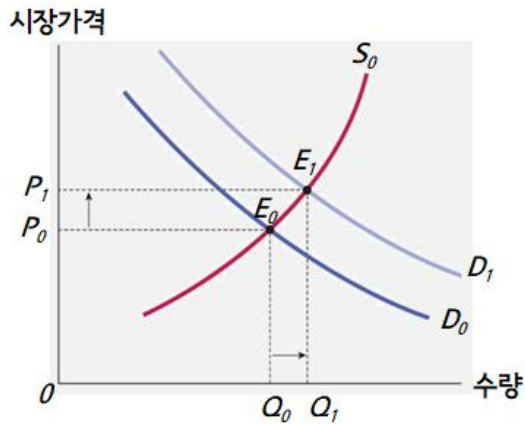
- 소득분배의 한계생산력이론(Marginal Productivity Theory of Income Distribution)
 - 생산요소에게 그 요소의 마지막 단위가 창출하는 가치(한계생산물 가치)만큼 보상해 주라. 그러면 총생산액이 과부족 없이 딱 맞아 떨어진다.
- 모든 시장이 경쟁시장이면 소득분배의 한계생산력이론 성립

2. 시장경제와 자원 배분

1) 시장경제와 소비자주권

■ 소비자주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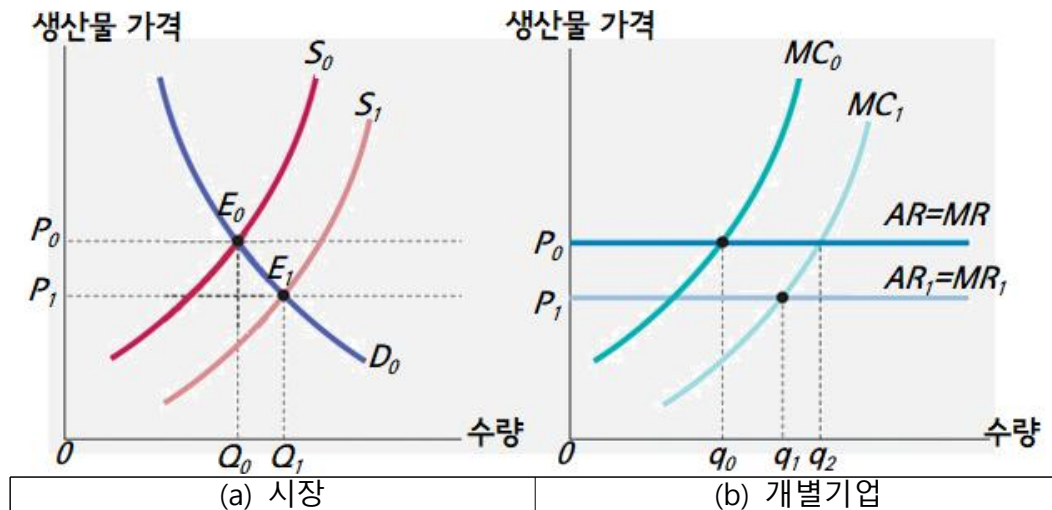
- 희소한 자원의 배분에 소비자의 선호가 존중되고 반영되는 현상



- 시장경제에서는 균형가격이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의 교점에서 결정
- 이때 시장수요곡선은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한 것
- 소비자들이 종전보다 더 찾는 상품들은 수요의 증가($D_0 \rightarrow D_1$)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오름
-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상품은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 많이 생산됨

2) 생산성향상과 자원배분

■ 기업이 생산성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생산성이 향상되면 같은 고용량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음
 - 생산비용이 절감되어 생산물공급이 증가하므로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늘어남($P_0 \rightarrow P_1$, $Q_0 \rightarrow Q_1$)
 - 기업은 기술혁신과 시설투자 등을 통하여 생산성향상을 힘씀

■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

- 기술혁신
- 투자 : 노동과 결부되는 자본량의 증가
- 교육 · 직업훈련 등을 통해 노동의 질 향상
- 노사화합을 통한 노동의욕의 고취

3) 시장경제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배분이 왜 효율적인가?

- 한계비용가격설정(Marginal Cost Pricing)

시장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은 것 : $P = MC$

- 시장가격(P)

☞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마지막 단위에 대하여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 한계비용(MC)

☞ 상품의 마지막 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기회비용

- $P = MC$ 가 바람직함
- 모든 부문에서 $P = MC$ 이도록 자원이 사용될 때 더 이상의 생산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음
- 효율적인 자원배분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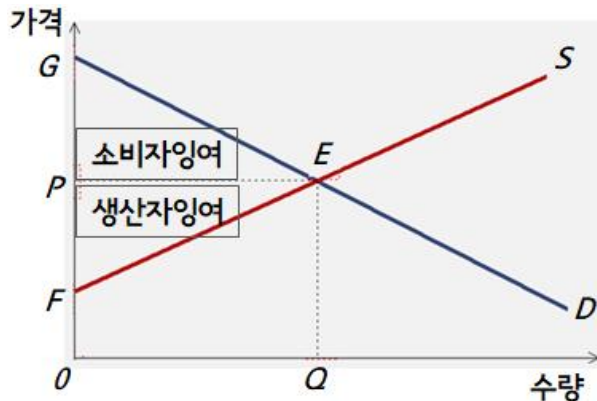
예) $P < MC$ 이면 상품의 마지막 단위를 생산하는 비용이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보다 비싸다는 뜻이므로 적게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수요 · 공급 이론과 정부 개입 / 5주차 2차시

1. 수요 · 공급의 이론과 응용

1)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



- 소비자잉여

-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소비하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수요가격)과 실제로 지불한 가격과의 차액

I. Q만큼 소비할 때 소비자 수요가격의 총계 = $\square GOQE$

II. Q만큼 소비할 때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 : $\square POQE$

- 소비자잉여 = $\square GOQE - \square POQE = \triangle GPE$

■ 생산자잉여(Producer's Surplus)

- 생산자잉여

-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판매해 얻는 실제 수입과 생산자가 그 상품을 판매해 꼭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수입과의 차액

I. Q 생산 시 생산자가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최저수입 : $\square FOQE$

II. Q 생산 시 생산자의 실제수입 = 소비자의 실제지불가격 = $\square POQE$

- 생산자잉여 = $\square POQE - \square FOQE = \triangle PFE$

■ 사회후생(총잉여)

- 사회후생

-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 : $\triangle GFE$

단, 사회후생이 일반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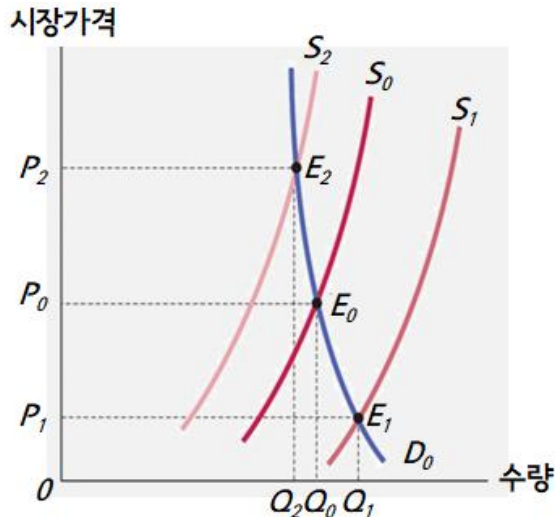
-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사회후생이 달라짐

- 자유시장기구의 분배의 효율성이 분배의 형평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생산요소의 경우에도 위의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음

- 생산요소의 경우
 - 소비자잉여는 요소의 수요자인 기업의 잉여가 되고
- 생산자잉여
 - 요소의 공급자인 가게의 잉여가 됨
 - 이때 가게의 잉여를 경제지대라 함

2) 농산물가격 파동



■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가격비탄력적

- 수요측면
 - 농산물은 식량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거나 싸졌다고 해서 소비량을 당장 줄이거나 늘이지 않음
- 공급측면
 - 공산품보다 생산기간이 길고 보관이 어려우며 사람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기후의 영향을 받음

예) 채소 A의 가격이 올해 P_0 수준에서 다른 농산물보다 좋은 시세였다면 다음 해 농민들이 A를 많이 재배해 S_1 으로 공급이 증가
 $\Rightarrow P_1$ 으로 가격하락 거래량은 Q_1 으로 조금밖에 늘지 않음 수요가 비탄력적인
 농산물시장에서 풍작이 일어난 후 농가소득이 오히려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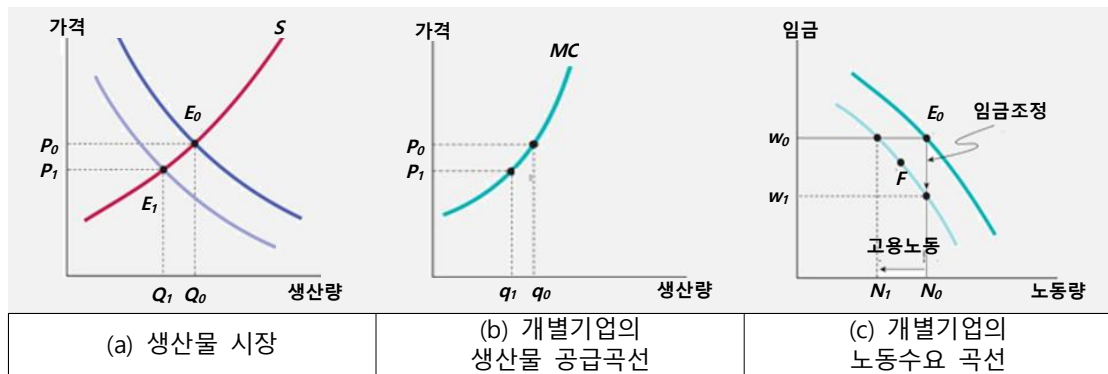
3) 노동시장의 유연성 : 고용조정과 임금조정

■ 노동시장의 유연성

- 노동시장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노동고용과 임금결정이 신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 사양산업이 되어 시장수요가 감소 \Rightarrow 시장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 시장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 이윤극대화 추구 기업
 - 기업은 임금이 변하지 않을 경우 고용을 줄임 (고용조정), 또는 종전의 고용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임금을 줄임 (임금조정)
- 노동시장
 - 경직적이어서 고용조정과 임금조정을 쉽게 할 수 없다면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경쟁력과 수익성이 떨어짐

4) 위험시장(Market for Risk)

■ 위험시장

- 위험 혹은 위험회피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
 - 예) 보험시장, 선물시장
- 보험시장과 선물시장도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서비스에 대한 균형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됨

■ 보험상품의 공급에서 고려할 사항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서 위험을 인수하는 것을 믿고 사고를 방지하려는 유인이 떨어지는 현상
- 역선택(Adverse Selection)
 - 위험도가 커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큰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향
 - ➔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때문에 위험을 100% 보장해 주는 보험은 없음

■ 선물시장

- 거래는 일정한 가격조건으로 현재 이루어지지만 대금지불과 상품 인도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시장

예) 농산물시장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위험을 피하고 싶은 농부가 선물시장에서 6개월 전에 일정한 가격에 보리를 팔고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6개월 후에 약정한 가격으로 넘겨줌

2. 정부의 시장개입과 자원배분의 왜곡

1) 세금부과와 자원배분의 왜곡

■ 소비세와 조세의 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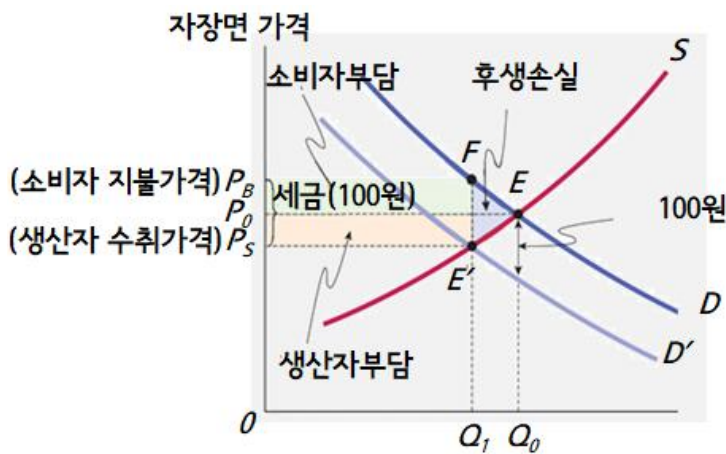
- 소비세의 유형

- 종가세 : 소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것
- 종량세 : 팔리는 상품 한 단위마다 일정액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

-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

- 한 상품에 세금을 매길 때 세금이 누군가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

■ 소비세 부과 효과(소비자에게 종량세가 부과된 경우)



- 최초 균형 E

- ① D' : 소비자에게 세금부과 후 실제인식가격이 높아져 수요곡선이 이동한 것
- ②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거래규모가 줄어들어 시장이 위축됨

③ $\square P_B P_S E' F$: Q_1 소비 시의 세금액

- 소비자는 Q_1 을 소비할 때 $\square P_B O Q_1 F$ 를 지불

$$\Rightarrow \text{소비자 부담} = (P_B - P_0) \times Q_1$$

- 생산자는 Q_1 생산 시 균형가격에서는 $P_0 \times Q_1$ 만큼의 수입이 있었으나 세금부과 후, $P_S \times Q_1$ 을 실제로 얻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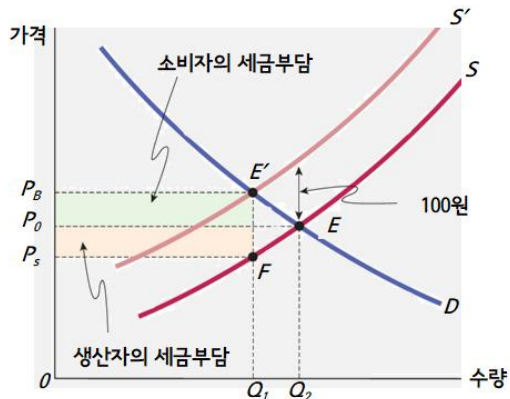
$$\Rightarrow \text{생산자 부담} = (P_0 - P_S) \times Q_1$$

- ④ 세금이 부과되고 나면 $Q_0 \rightarrow Q_1$ 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감소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triangle FE'E$ 만큼 후생이 감소 : 후생손실

- 경제학에서 조세가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고 말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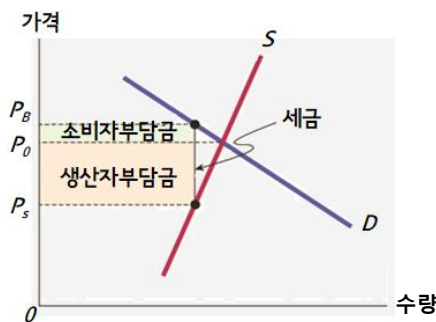
➔ 세금부과가 거래량을 감소시키면서 후생손실을 낳기 때문임

■ 세금이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에게 부과된 경우도 분석결과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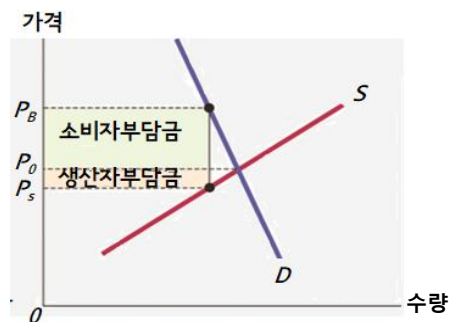


■ 소비자와 생산자 중 누가 더 조세를 많이 부담하느냐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도에 따라 결정

- 탄력도가 크다
 - 세금이 부과된 상품 외에 다른 상품을 생산하거나 소비할 대안이 많음
 - ☞ 조세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이 큼
- 탄력도가 작다
 -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꼭 소비하거나 생산해야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을 피할 대안이 적음
 - ☞ 세금은 생산자와 소비자 중 가격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많이 부담



(a) 탄력적 수요와 비탄력적 공급



(b) 비탄력적 수요와 탄력적 공급

소비자 지불가격 = P_B

세금 전 가격 = P_0

생산자 수취가격 = P_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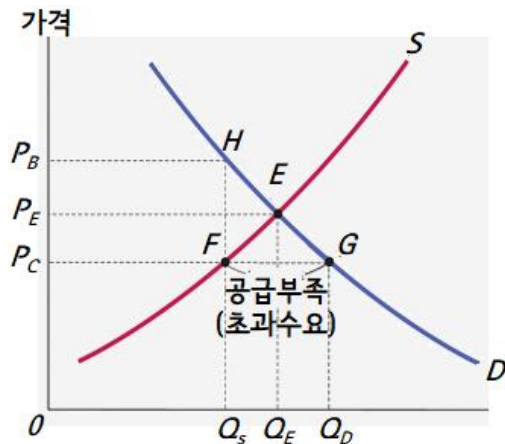
2) 가격통제와 자원배분의 왜곡

■ 가격통제

-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 형성에 간섭하는 것

■ 최고가격제

- 정부가 상한가격을 정해 그 이상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제도



■ 최고가격은 대개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

- 공급의 부족으로 초과수요 존재

→ 소비자들은 최고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소비하려 하기 때문에 암시장이 등장

- 물음 : 정부가 최고가격제 하에 부족한 물자를 어떤 방법으로 할당해줄 것인가?
- 풀이 : 선착순 방식, 배급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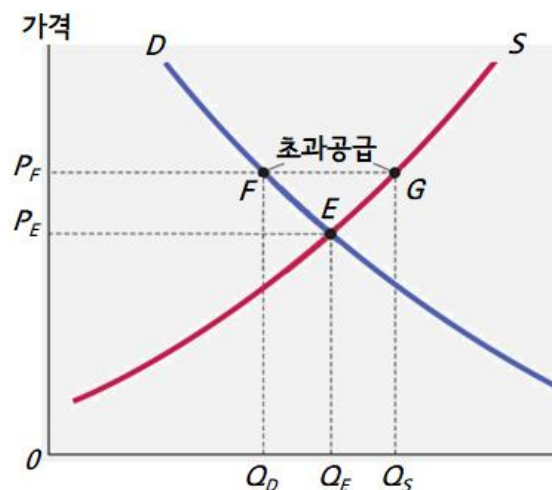
예) 최고가격제의 예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기간산업에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배분하기 위해 은행의 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규제

→ 금리규제와 신용배급으로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가 생김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에게는 은행대출이 그림의 떡이었음
선진국의 임대료 규제

■ 최저가격제

- 정부가 하한가격을 정하고 그 이하로는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제도



- 최저가격 이하로는 가격이 하락하지 못함

- 시장가격은 균형가격보다 높은 상태에서 초과공급이 존재함

☞ 초과공급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김

■ 최저임금제

- 노동의 초과공급으로 실업자가 생김
 -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이어서 임금상승이 크고 고용량 감소가 작을 때에만 전체 노동소득이 증가함
 - 그러나 이는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소득이 증가한 것이고 신규 노동자나 비숙련노동자의 취업기회는 종전보다 좁아져 최저임금제가 노동자에게 이롭다고 할 수만은 없음

독점시장과 자원배분 / 6주차 1차시

1. 독점시장의 정의

1) 독점시장이란?

■ 불완전경쟁시장

- 경쟁시장의 특징인

- ① 대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 ② 상품의 동질성,
- ③ 생산요소의 완전한 이동성,
- ④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중 적어도 한가지가 만족되지 못하는 시장
 - 불완전경쟁생산물시장은 기업의 수를 기준으로 독점시장, 과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구분

■ 독점(Monopoly)시장

-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단일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시장

- 단일기업을 독점기업, 독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독점상품이라 함
ex)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송전시장, KT&G의 국산담배시장, 철도공사의 철도운송시장

■ 독점시장의 특징

- ① 독점기업의 공급량은 그 상품에 대한 시장의 총공급량과 일치
 - 독점기업 = 독점산업 = 독점시장
☞ 독점기업은 경쟁산업의 시장수요곡선 처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
- ② 독점기업은 시장지배력을 가짐
 - 독점기업 = 가격결정자
 - (완전)경쟁기업 = 가격수용자
- ③ 밀접한 대체재를 생산하는 다른 기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없음
 - 현실경제에서는 어느 정도 대체관계에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진입을 노리는 기업과는 잠재적인 경쟁이 있음

2) 독점이 생기는 원인

■ 독점을 유지시키는 진입장벽 네 가지

① 규모의 경제

- 단일기업이 시장수요량을 모두 생산하는 것이 여러 기업이 나누어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듭 ➔ 자연독점

② 특허권

- 정부가 특허권, 판권, 인 · 허가 등을 한 기업에만 내줌으로써 법적으로 독점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경우

③ 정부의 독점력 직접행사

-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직접 독점력을 행사하는 경우

④ 독점기업의 시장전략

- 임계가격설정, 약탈적 가격설정, 과잉설비 보유 등으로 독점 유지
- 임계가격 설정
 - ☞ 이윤을 극대로 하는 가격보다 가격을 훨씬 낮추어 새 기업 진입 저지
- 약탈적 가격설정
 - ☞ 새로 진입해 올 기업의 평균비용 이하로 가격을 매겨 새 기업 진입 저지
- 과잉설비 보유
 - ☞ 과잉설비를 보유하여 새 기업 진입 시 생산을 늘려 가격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위협적인 신호 발송

3) 독점기업의 수요곡선과 수입곡선

- 독점기업의 수입곡선은 독점기업이 시장에서 직면하는 수요곡선으로부터 도출
(전제 : 독점기업은 시장수요곡선을 정확히 알고 있음)

- 독점기업의 총수입, 평균수입 및 한계수입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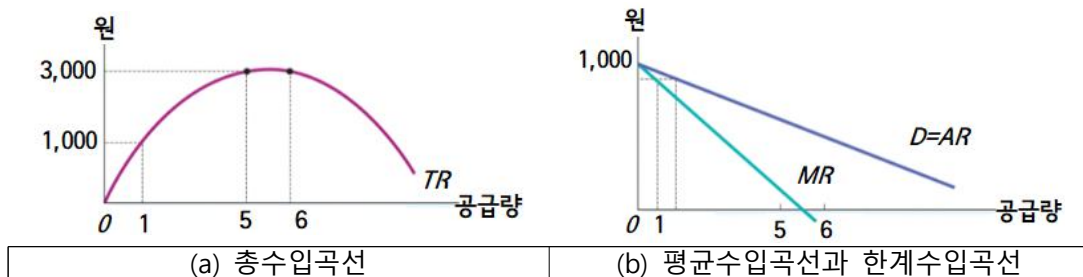
(1) 출하량 Q	(2) 가격 = 평균수입 $P = AR = \frac{TR}{Q}$	(3) 총수입 $TR = P \times Q$	(4) 한계수입 $MR = \frac{\Delta TR}{\Delta Q}$
0		0	
1	1,000	1,000	1,000
2	900	1,800	800
3	800	2,400	600
4	700	2,800	400
5	600	3,000	200
6	500	3,000	0
7	400	2,800	-200
8	300	2,400	-400

- (1)과 (2) : 시장수요곡선 = 평균수입곡선

- (1)과 (3) : 총수입곡선

- (1)과 (4) : 한계수입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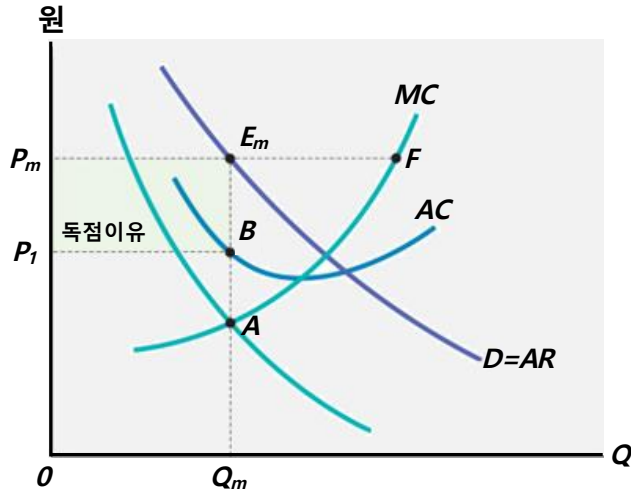
- 우하향의 수요곡선 $\Rightarrow P = AR > MR$



- 경쟁시장에서는 제품의 시장가격이 한계수입과 같지만 독점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이 한계수입보다 큼

2. 독점기업의 균형

1) 독점기업의 균형



- 독점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경우 $MR = MC$ 인 Q_m 을 공급
- 가격은 수요곡선에서 P_m 으로 결정
- 총수입(TR) = $P \times Q = \square OP_m E_m Q_m$
- 총비용(TC) = $AC \times Q = \square OP_1 B Q_m$
- 총이윤(π) = $TR - TC = \square P_1 P_m E_m B \Rightarrow$ 독점이윤

2) 독점기업의 공급곡선은 없다.

- 독점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은 공급곡선이 아님
 - 이윤극대화 공급량은 $MR = MC$ 인 생산량
 - 이 생산량을 출하할 때 가격은 수요곡선에 의해 결정
 - 이때 수요곡선이 MC 곡선보다 위에 존재하므로 독점시장에서의 시장가격은 한계비용과 같지 않음
 - 독점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은 공급곡선이 아님

3) 독점기업의 가격결정

- 독점기업이 시장수요곡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 독점기업이 이윤극대화 공급량을 결정하고 시장수요곡선이 시장가격을 결정
 - 독점기업이 이윤극대화 가격을 결정하고 시장수요곡선이 판매량을 결정
 - 양자는 같은 얘기

- 독점기업이 시장수요곡선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확률분포로 묘사될 때
 -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이론을 이용하여 독점기업의 이윤을 평균적으로 극대화시키는 가격이나 공급량을 정함
- 시장수요곡선의 불확실성이 확률분포로 묘사되지 않을 때
 - 비용할증가격 설정 : 생산비에다 적정마진을 얹어 가격을 정하는 것
$$P = AC(1+m), m : \text{적정마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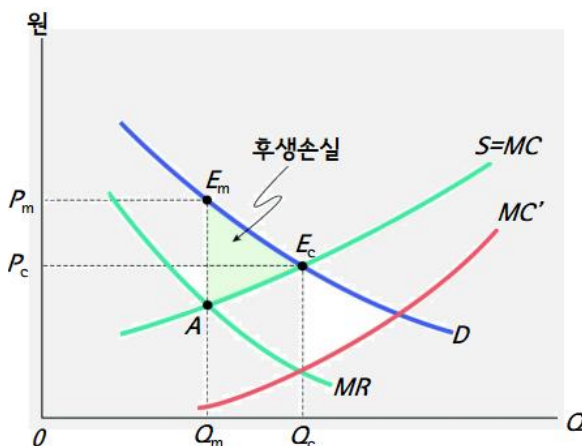
4) 독점과 가격차별

- 가격차별
 - 한 상품의 생산비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시장에 상이한 가격을 매기는 것
- 가격차별이 성립하기 위한 네 가지 조건
 - ① 판매자가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어야 함
 - ② 서로 다른 시장이 쉽게 구분되어야 함
 - ③ 상이한 시장 사이에 상품의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함
 - ④ 상이한 시장간의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달라야 함
 - 독점기업은 수요가 탄력적인 시장일수록 가격을 싸게 매기고 비탄력적인 시장일수록 가격을 비싸게 매겨 수입을 늘릴 수 있음

3. 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비교

1) 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비교

- 독점은 경쟁시장과는 달리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함
- 경쟁산업의 독점화에 따른 사회적 손실



- ① 경쟁산업이 독점산업이 되면
 - 경쟁산업의 시장공급곡선이 독점기업의 한계비용곡선으로 바뀜
 - 독점기업은 시장수요곡선에서 도출된 한계수입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Q_m 을 생산·출하, 이에 따라 가격이 P_m 으로 결정
 - 생산량 : $Q_C \rightarrow Q_m$ 으로 감소

- 가격 : $Q_C \rightarrow P_m$ 으로 상승

② 소비자 입장

- 예전보다 적은 수량을 더 비싸게 사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잉여가 감소

③ 자원배분 측면

- 독점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자원을 과소고용하여 상품을 과소생산함
- 이때 제품단위당 비효율성의 크기는 $P - MC$ 임

④ 감소한 생산량 한 단위마다 $P - MC$ 만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함

- 손실의 크기는 $\Delta E_m AE_C$ 와 같음
- 이를 독점의 후생손실이라 함
- 참고 : 독점화로 규모의 경제가 생겨 한계비용곡선이 MC' 만큼 하방이동 하면 독점의 비효율성이 없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음

■ 소득분배

- 독점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재할 경우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심화

■ 기술혁신

① 기술혁신 저지

- 경쟁을 하지 않으므로 안이하게 초과이윤을 향유하려는 경향

② 기술혁신 촉진

- 방대한 자금과 연구진 활용
- 독점과 완전경쟁 중 어느 쪽이 기술혁신 유인이 낫다고 할 수 없음

■ 독점의 기타효과 : X- 비효율성(X- inefficiency)

- 평균비용곡선이 보여주는 비용보다 높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비효율

ex.1) 독점은 경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호를 무시하고 비용절감을 위하여 크게 노력하지 않는 등의 방만한 경영으로 사회적 손실을 증대시킴

ex.2) 민주정치 발전 저해 (정경유착)

☞ 여분(Extra)의 비효율성을 낳음

2) 수요 · 공급의 이론과 불완전경쟁시장

■ 현실세계에서 드문 경쟁시장을 경제학에서 즐겨 다루는 이유

- ① 경쟁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낳음으로써 현실시장들의 이상적인 준거로 삼을 수 있음
- ② 경쟁시장을 다루는 분석도구인 수요 · 공급의 이론을 활용하여 대부분이 가격결정자인 현실기업들의 행태도 잘 분석할 수 있음

■ 독점시장의 가격 · 판매량 결정 이론이 수요 · 공급의 이론을 활용한 예

- ① 한계비용곡선과 (시장수요곡선으로부터 도출하는) 한계수입곡선이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시장가격과 수요량 중 하나를 결정
 - 나머지 하나는 시장수요곡선이 결정
- ② 시장수요곡선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용할증가격 설정

- 과점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도 독점시장처럼 분석
 - 상호의존관계가 큰 과점시장의 전략적 상황은 게임이론으로 보완
 -

독점적 경쟁 시장과 과점 시장 / 6주차 2차시

1. 독점적 경쟁시장과 자원배분

1) 독점적 경쟁시장이란?

■ 독점적 경쟁시장 : 완전경쟁과 독점의 성격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시장

ex) 음식점, 술집, 커피전문점, 옷가게, 미용실 등

■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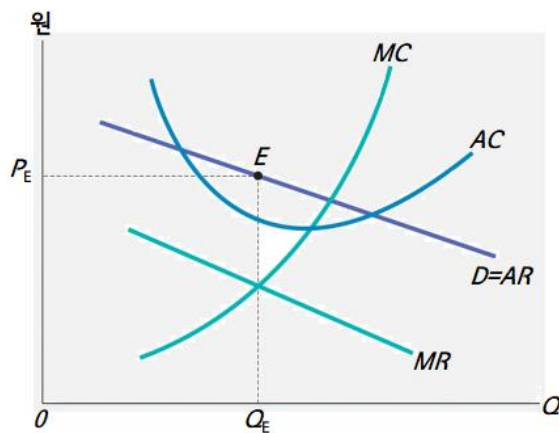
- ① 다수의 기업
- ② 상품 차별화 → 시장지배력 보유
- ③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 ④ 비가격경쟁의 존재

• 경쟁이 제품가격보다는 품질이나 판매서비스의 개선, 광고 등의 형태로 일어남

2) 독점적 경쟁기업의 균형

■ 독점기업이 장기에도 초과이윤을 얻는 데 비해 독점적 경쟁기업은 기업의 진입 · 퇴거가 자유롭기 때문에 장기에는 정상이윤만을 얻음

■ 단기균형



- 독점적 경쟁기업의 단기균형은 수요곡선을 완만하게 그린 것 빼고는 독점기업의 경우와 같음
- 독점적 경쟁하에서는 상품의 비동질성을 가정했기 때문에 경쟁산업에서처럼 개별기업의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해 시장수요곡선을 도출할 수 없음

■ 장기균형

- ①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가 보장 : 장기에 정상이윤($\Pi = 0$)만 얻음

$$\therefore P = \text{평균수입}(AR) = \text{단기평균비용}(SAC) = \text{장기평균비용}(LAC)$$

- ② 단기뿐 아니라 장기에도 이윤극대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text{한계수입}(MR) = \text{단기한계비용}(SMC) = \text{장기한계비용}(LMC)$$

⇒ 위 두 조건을 만족하면 독점적 경쟁기업은 장단기에 걸쳐 이윤극대화를 달성하고 최대이윤규모는 0이 됨

- ③ $MR = MC$ 인 생산량에서 시장수요곡선과 평균비용곡선이 접하게 됨

3) 독점적 경쟁시장의 평가

■ $P > MC$

- 독점적 경쟁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낳음

■ 독점적 경쟁은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는데 부정적

- 초과이윤이 단기에 그쳐 장기적으로 방대한 자금과 연구진을 활용할 수 없고 비가격경쟁에 의한 품질 개선은 겉치레 개량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소득분배

-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정상이윤만을 얻기 때문에 독점보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완화
- 그러나 평등분배에 기여하는 정도는 완전경쟁보다 못 미침

2. 과점시장과 자원배분

1) 과점시장이란?

■ 과점(Oligopoly) 시장

- 소수의 기업에 의하여 지배되는 시장
- 두 기업이 전체 시장을 석권하는 경우 이를 복점(Duopoly)이라 함

■ 특징

- ① 기업 간의 밀접한 상호의존관계

- 수요곡선과 비용곡선 아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되 이 과정에서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함

- ② 치열한 비가격경쟁과 가격의 경직성

- ③ 기업들이 담합과 같은 비경쟁행위를 하려는 경향이 강함

ex) 과점기업 공동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격협정과 공동행위

- ④ 새로운 기업의 진입에 상당한 장벽이 존재

ex) 규모의 경제가 상당한 생산규모에까지 존재하면 과점이 형성, 이 과점을 자연과점이라 함

2) 과점기업의 행태

■ 기업 간 상호의존관계와 가격의 경직성

- ① 기업 간 상호의존관계를 게임이론으로 다룸

- ② 수요 · 공급의 이론과 게임이론을 결합하여 과점제품 가격의 경직성을 설명할 수 있음

- 비가격경쟁

- 과점기업들이 가격 이외의 측면에서 벌이는 경쟁
ex) 상품차별화, 광고, 판매조건경쟁

- 담합

- 과점기업간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고정시키거나 생산량을 기업간에 할당하는 등의 담합을 함으로써 참가기업 전체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ex) 카르텔 : 명시적 담합에 의한 기업연합.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

- 가격선도

- 과점산업에서 한 기업이 앞장서서 가격을 인하하거나 인상하면 다른 기업들이 이것을 따르는 것

3) 과점시장의 평가

- 지나친 광고경쟁을 통하여 자원이 낭비됨

- 기술혁신 유인 면에서는 아주 긍정적

- 치열한 비가격경쟁으로 기술개발의욕을 불러 일으키고,
- 장기적으로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기 때문

- 소득분배 : 불평등에 기여

- 기여하는 정도는 독점과 독점적 경쟁의 중간

- 대기업들의 횡포에 대항하는 사회세력들을 등장시킴

- 갤브레이스(John K. Galbraith)의 대항세력의 이론

3. 불완전경쟁시장과 관련된 토픽

1) 지식의 경제학

- 경제학에서의 기술진보

- 새로운 지식이 기존 지식스톡에 추가되는 것
 - 기술진보 = 새 지식의 창출
 - 지식 : 체계화된 정보나 아이디어

- 지식의 특징

- ① 비경합성

- 지식은 한 사람이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음
- 공동사용 가능

- ② 부분적 배제성

- 특허권, 저작권 등을 통해 일정기간 독점적 사용이 가능

- ③ 규모의 경제

- 최초로 생산하는 데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만 추가로 생산할 때는 비용이 작음
☞ 지식과 지식을 낳는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 R & D)에는 규모의

경제가 따름

■ 독과점의 재평가

- 지식의 특징 때문에 R & D 산업은 독과점 산업일 수밖에 없음
 - R & D에 의한 새 지식 창출은 일정 기간 지식재산권으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함
 - R & D에 관한 한 성과물에 대한 독과점은 바람직함
 - "특허란 천재라는 불꽃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다."
- <에이브러햄 링컨>

■ 지식재산권(혹은 지적재산권)

-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고 보호해 주는 것
- 지식의 창출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지식창출의 디딤돌이 되어 성장의 원동력임
- 이러한 동태적 효율성을 위해 새로운 발명과 발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P > MC$ 가 허용되는 것이 지식재산권임
- 역사적으로 볼 때 지식재산권을 보장하기 시작한 산업혁명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음

■ 혁신(Innovation)

- 혁신이란 종전보다 우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
- 신제품, 신생산방식, 신시장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원자재를 사용하거나 신제도를 도입하는 것
- 혁신을 위해 기업가가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창조적 파괴를 서슴지 않음으로써 자본주의가 역동적으로 발전함(슌페터)
- 이윤은 혁신에 대한 보상이자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

2) 인터넷 시장

■ 인터넷 시장

-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지원하거나 인터넷에 기반을 둔 산업
- 인터넷산업 = 인터넷시장

■ 인터넷 시장의 특징

- ①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지 않으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거래비용이 크게 낮음
- ② 규모의 경제가 크게 일어남
 - 소프트웨어, CD, 웹사이트 등의 정보재는 지식이 담겨있는 상품으로서 지식의 추가생산 비용이 0에 가깝기 때문임
- ③ 사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네트워크 외부효과 (Network Externality)가 일어남
- ④ 소비자가 기존제품을 고수하는 잠김 효과(LOCK-in Effect)가 일어나기 쉬움
 - 이전비용이 크기 때문

- 경쟁시장의 특징보다 독과점시장의 특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이에 관한 경제이론도 계속 발전해 갈 것

3) 게임이론

■ 게임이론(Game Theory)이란?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응용수학의 일부로 등장
- 경제학에서는 처음에 과점기업 간의 경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활용됨
- 각자의 행위가 자기 이해관계뿐 아니라 상대방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서로 어떤 전략을 세워 행동하는가를 연구하는 이론

■ 정의와 구성

① 구성 : 경기자, 전략, 보수함수 등의 요소로 구성

- 경기자 (Player) : 개인 · 집단 · 기업 · 국가 등의 의사결정자
- 전략 (Strategy) : 경기자가 선택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계획
- 보수함수 (Payoff Function) : 경기자의 효용함수

② 게임은 각 경기자가 자신의 보수함수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선택하여 행동하는 방식으로 전개

■ 내쉬균형(Nash Equilibrium)

- 미국의 수학자 겸 경제학자 내쉬(John Nash)가 비협조적 게임의 균형으로 제시한 개념
- 각 경기자가 다른 경기자들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에게 최적의 전략을 선택할 때 최적전략의 조합
- 다른 경기자의 전략이 주어져 있는 한 어떤 경기자도 자신의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는 균형
- "개별적 합리성을 가진다." "유인합치적이다."

■ 공범자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 어떤 미제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두 사람이 지목되었음
 - 둘 다 순순히 자백하면 비교적 가벼운 형벌인 징역 2년을 삶
 - 둘 다 범행을 부인하면 징역 6개월을 삶
 - 둘 중 한 사람만 자백하면 자백한 사람은 수사에 협조한 공로로 방면되고, 범행을 부인한 사람은 징역 10년을 삶
- 이 두 용의자 간 의사소통의 기회가 없을 때 용의자를 경기자로, 자백이나 부인을 전략으로 한 보수함수는 다음과 같음

		용의자2	
		부인	자백
용의자1	부인	(-0.5, -0.5)	(-10, 0)
	자백	(0, -10)	(-2, -2)

- 이 게임에서 두 용의자가 자백하는 것이 내쉬균형임
- 용의자 1이 부인한다고 할 때 용의자 2는 자백하는 것이 최선
- 용의자 1이 자백할 때도 용의자 2는 자백하는 것이 최선
- 이는 용의자 2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용의자 1의 전략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

- 따라서 둘 다 부인하면 보수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자백하는 것이 내쉬균형으로 선택됨
 - 둘 다 부인하는 경우보다 둘 다에게 못한 경우임
- 공범자의 딜레마는 구성원 각자에게 이익인 행동이 공동체에게는 손해인 경우를 보여줌
 - 개별적 합리성이 공동선을 보장해 주지는 않음
 - ☞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중대한 도전
- 3인 이상의 비슷한 게임을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라 불림

		기업2	
		가격인하	가격유지
기업1	가격인하	(20, 20)	(5, 8)
	가격유지	(8, 5)	(10, 10)

- 두 기업이 현행가격을 유지하면 매기당 10억 원씩의 이익을 얻음
- 한 기업만 가격을 인하하면 불경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되어 인하한 기업은 5억의 이익을, 인하하지 않은 기업은 8억의 이익을 얻음
- 두 기업 모두 가격을 인하하면 20억씩의 이익을 얻음
- 이 조정게임에서 내쉬균형은 두 가지가 존재
 - 기업 1이 가격을 인하할 때는 기업 2도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최선
 - 기업 1이 가격을 유지할 때는 기업 2도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
- 두 기업 모두 가격을 인하하면 양쪽 다 이득을 보지만 서로 현행가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두 기업 모두 손해인 상태에 고착될 수 있음
 - 조정 실패 상황

■ 게임이론의 의의

- ① 수요 공급의 이론에서는 경쟁이란 항상 좋은 것
 -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과당경쟁이 흔히 일어남
 - 개별적 합리성이 공동선을 보장해 주지는 않음
 - ☞ 게임이론이 이를 잘 보여줌
- ② 시장경제의 기본원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잘 정비하고 정부가합리적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함

시장의 실패와 정부규제 / 7주차 1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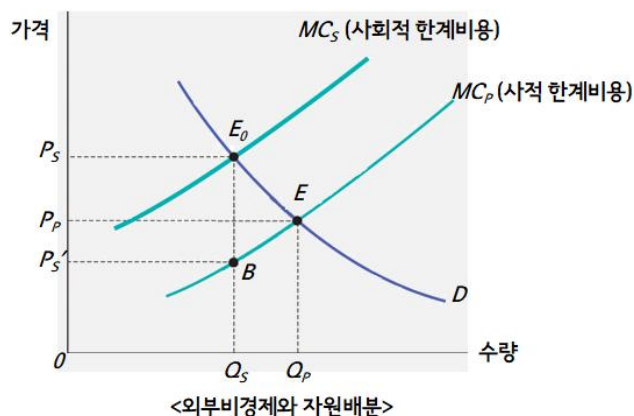
1. 시장의 실패와 그 원인

1)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란?

- 경제활동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공평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

2) 시장의 실패의 원인

- 시장이 경쟁시장이고 외부효과, 공공재, 불확실성 등이 없으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임
 - 그러나, 현실경제에는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 공공재, 불확실성 등이 존재하여 시장에 맡길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음
- 시장의 불완전성과 규모의 경제
 - 불완전경쟁시장
 - 독점 · 과점 · 독점적 경쟁과 같은 불완전경쟁시장이면 한계비용가격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임
 - 규모의 경제
 - 생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완전경쟁이 무너지고 자연독점이 생성
 - 외부효과
 -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사람(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 ☞ 외부경제 :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입히는 효과
 - ☞ 외부비경제 :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는 효과
 -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사회적 관점에서 계산된 비용(혹은 편익)과 개인적 관점에서 계산된 비용(편익)이 다르기 때문에 자원배분이 비효율적



1. 경쟁시장에서 균형점은 E(균형가격 P_P , 균형생산량 Q_P)

- 외부비경제
 - $MC_S > MC_P$
 - 사적 한계비용보다 사회적 한계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은 MC_S , 사회적으로 적정생산량은 Q_S
 - 경쟁시장의 생산량 Q_P 는 사회적 적정생산량보다 많음
 - 사회적 적정 생산량 수준(Q_S)보다 과다생산
- 외부경제
 -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이 MC_P 보다 아래에 있는 상황
 - 이때는 사회적으로 적정생산량은 Q_S 이지만, 시장은 Q_P 를 생산하므로 경쟁시장에서 과소생산
 \therefore 외부효과가 있을 경우 자원배분이 비효율적
- II. 때로 외부효과를 시장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음(외부효과의 내부화)
 - 그림처럼 외부비경제가 있을 때 제품 1단위당 E_0B 만큼의 종량세를 부과하면 시장공급곡선이 MC_S 로 이동하여 Q_S 를 생산
 - 외부경제가 있을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과소생산문제 해결
- 공공재
 - 각 단위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비경합성), 어떤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는(비배제성) 상품
 ex) 등대 · 공원 · 국방 · 경찰 등
 - ☞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불가능
 - 자유시장경제에 방임하는 경우 사기업에서 공공재를 생산할 유인이 없음
 - ☞ 단, 사적재(Private Goods) : 경합성과 배제성의 두 속성 소유
 - ☞ 경합성 : 한 사람이 재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그 재를 소비하지 못하거나 소비할 기회가 줄어드는 속성
 - ☞ 배제성 :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하는 속성
- 소득분배의 불균등
 - 경쟁시장에서는 요소의 한계생산물가치만큼 요소소유자가 소득분배를 받음
 -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생산과정에서 배제되어 소득을 얻지 못함
 - 소득분배의 불균등은 경제적 복지의 불균등과 힘의 불균등분배를 낳아 사회분열과 불안을 키울 수 있음
- 불확실성
 - 불확실성 하에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전제인 한계비용가격설정이 어려워 시장의 실패가 발생
 -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보험시장이 완벽하게 기능하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때문에 현실 보험시장이 완벽하게 기능하지 못함

3) 정부의 기능

■ 두 가지 기능 (by 세계은행)

- ① 시장의 실패의 보완
- ② 형평의 증진

■ 두 가지 기능을 각각 세 가지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음

- ① 최소한의 기능
- ② 중간 기능
- ③ 적극적인 기능

■ 정부의 기능

	시장의 실패의 보완	형평의 증진
최소한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재의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 법치, 재산권 보호, 거시경제운영(경제성장, 물가안정 등), 공중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층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퇴치, 재난구제
중간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효과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 연구 · 개발, 환경보존 • 독점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사업 규제, 독점금지정책 • 불완전정보의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감독, 금융규제, 소비자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험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재분배를 위한 연금제도, 빈곤계층을 위한 공적 부조, 실업보험
적극적인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 경제활동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기구의 활성화(공기업 민영화, 탈규제 등), 유인체계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재분배

2. 독과점 시장구조와 정부규제

■ 유효경쟁

- 경쟁시장처럼 다수의 기업이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행동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 시장가격이 평균비용에 근접하는 상태
- 유효경쟁의 개념에 따르면 시장가격이 비용보다 크게 높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에도 고쳐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그 시장은 독과점으로 판단

1) 시장구조의 측정

■ 시장구조

- 시장이 경쟁의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상태에 있는가를 말함
- 시장집중지수를 사용하여 측정

- 대표적인 시장집중지수
 - 상위 k 기업 집중률
 - 허쉬만 - 허핀달 지수

■ 상위 k기업 집중률

- 규모 면에서 제일 상위에 속하는 k개 기업 각각의 시장점유율을 합계한 것

$$- CR_k = S_1 + S_2 + \dots + S_k = \sum_{i=1}^k S_i$$

- CR_3 (상위 3대 기업집중률)이 흔히 사용됨

■ 허쉬만 : 허핀달 지수

- 한 산업 안에 있는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을 합한 것
- CR_k 와는 달리 시장점유율이 큰 기업에 더 비중을 둠

$$- HHI = S_1^2 + S_2^2 + \dots + S_k^2 = \sum_{i=1}^k S_i^2$$

$$- \text{동등규모지수} = \frac{1}{HHI}$$

- 한 시장에 동일한 규모의 기업만 있다면 몇 개의 기업이 있는 것과 비슷한가를 알려줌
예) $HHI = 0.2$ 이면 동등규모지수는 5로서 5개의 기업이 각각 20%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시장임

2) 우리나라의 시장구조

■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 KSIC)의 세세분류(5단위 숫자)상 광공업에 478개 산업 내지 시장이 있음

- 이중 CR_3 가 0.75 이상인 산업은 2013년에 16%, 0.5 이상은 35%, 0.25 이하는 29%임
- HHI 가 0.05 이하(동등규모기업 수가 20개 이상)인 산업 수 비중은 37% - 경쟁시장에 가까운 산업은 전체 광공업의 40% 미만 - 불완전경쟁시장이 지배적인 시장구조임 2)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우리나라 광공업부문의 시장집중도는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였음 -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약간의 상승세 내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음

3) 재벌의 경제력집중

■ 경제력집중

- 특정인(총수)과 그 가족이 기업집단(재벌 혹은 그룹)을 지배하여 경제활동의 주요부문을 좌지우지하는 상태

■ 경제력집중의 순기능

- 재벌이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의 견인차 노릇을 해 옴
 - I.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
 - II. 계열기업간 인력과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 가능
 - III. 기술혁신과 신사업 개발을 선도
 - IV. 경영의 다각화로 위험 분산

■ 경제력 집중의 문제점

- ① 정경유착, 부동산투기, 탈세, 편법 증여, 계열기업에 일감몰아주기 등 부의 축적과정이 정당하지 못함
- ②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발전과 신규기업의 진입을 억제
- ③ 창업주나 2세 중심의 폐쇄적 경영으로 전문경영자의 입지 협소
- ④ 문어발식 사업확장
- ⑤ 경제는 물론 정치·행정·사회·언론·문화 등 각 분야를 휘두르는 '재벌공화국'이 됨

4) 공정거래법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법

- 독과점이 심화되는 기업결합이나 카르텔을 제한하고, 독과점기업이 자유경쟁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
- 미국과 같은 원인규제가 아니라 폐해규제임

■ 주요내용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 가격남용, 출고조절, 영업방해, 진입방해 등의 경쟁제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법상 독과점기업의 명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 ★ 한 거래분야에서 상위 3기업 집중률이 75% 이상이면서 개별기업 점유율이 10%를 넘는 과점기업
- 기업결합 제한
 - 경쟁을 제한하는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도·인수, 신규회사 설립 등을 통한 기업결합 금지
- 경제력집중 억제
 - 계열기업간 상호출자 금지, 재벌기업들의 계열사 빚 보증금지, 재벌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
- 당한 공동행위 제한
 - 가격카르텔, 조건카르텔, 수량카르텔, 시장분할카르텔, 설비도입카르텔, 특허카르텔, 합작회사 결성 등을 금지
 - 단, 산업합리화, 기술개발, 불황타개,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함
 - ☞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상대방의 자유를 구속하여 정상적인 거래관습상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5) 기타 정부규제

■ 가격규제

- ① 직접규제 : 정부가 상품가격을 직접 결정 ex) 철도요금, 우편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 ② 간접규제 : 가격은 시장자율기능에 맡기되 가격이나 생산량을 보완 조절하는 관리방식 ex) 대중음식점 · 이미용업소 등의 가격표시제, 요금담합 규제

■ 기타 공공규제

- ① 의약품과 식품 등 제품 특성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가 부족한 경우
 - 정부가 안전 및 품질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토록 감독
- ② 의사 · 약사 · 변호사 · 회계사 등 전문직종의 자격시험
- ③ 전략물자 정부 비축
- ④ 자연독점산업에 대한 정부규제
- ⑤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6) 규제의 경제학과 정부의 실패

■ 규제에 따른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규제하는 것이 최선

■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측정이 어려움

■ 관료들은 한계편익을 높게 잡고 한계비용을 낮게 잡는 경향

- 정부의 실패

- 정부의 경제개입과 규제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는 상황

- 정부의 실패의 원인

- 규제자의 불완전한 지식
- 규제수단의 불완전성
- 규제의 경직성
- 근시안적인 규제
- 규제자의 개인적 편견이나 권한확보 욕구
- 정치논리 등

-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의 실패가 더 문제

- 규제완화가 세계적 추세

☞ 시장의 기능을 살리는 방식으로 시장의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

☞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규제가 또 다른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낳기 쉬움

☞ 자원배분의 주요 기제는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아니라 시장이어야 함

ex)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비효율성과 기술혁신의 결여

- 포획이론(스티글러)

- '정부의 규제를 받는 비규제자가 규제자를 결국 사로잡는다.'
- 정부가 이익집단의 논리에 휘둘리게 마련이라는 것

- 밀튼 프리드먼, "좋은 정부보다 나쁜 시장이 낫다."
- 건전성 규제의 중요성
 - 금융시장, 외환시장, 부동산시장에서는 단기에 투기가 극성을 부려 자산가격이 크게 부풀었다가 꺼지는 경우가 종종 생김
 - 자산시장의 이런 혼란이나 환경오염 등을 막기 위한 규제장치가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 건전성 규제로 정부가 꼭 개입해야 할 분야
ex) 금융제도 안정, 식품 안전, 항공 안전, 토지용도 지정 등
 - 미국의 금융위기는 규제완화라는 일반적인 추세와는 별도로 건전성 규제는 필요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

외부효과와 사회복지정책 / 7주차 2차시

1. 외부효과와 환경정책

1) 환경의 질과 수요 · 공급의 이론

■ 기업의 생산에는 환경오염이라는 외부비경제가 따름

- 오염이 전혀 없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
- 수요 · 공급의 이론에서 볼 때 적정 정화수준은 환경정화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됨

■ 환경정화수요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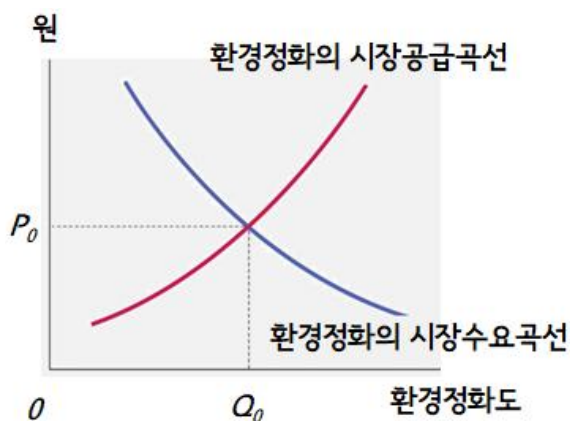
- 환경정화수요곡선은 우하향
 - 정화비용이 비쌀수록 환경정화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
- 환경정화의 한계편익
 - 환경개선을 위해 사회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로 측정
 - ∴ 환경정화의 한계편익곡선이 환경정화의 수요곡선임

■ 환경정화공급곡선

- 환경정화의 한계비용곡선이 공급곡선이 됨
- 환경정화의 한계비용
 - 환경개선을 위해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
 - 보통상품의 한계비용처럼 U자형으로 상정
 - ☞ 환경정화의 공급곡선은 이 중 우상향하는 부분임

■ 사회의 적정정화수준

- 환경정화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됨



① 균형정화도 : $Q_0 \rightarrow$ 환경의 적정정화수준

② 균형정화비용 : P_0

- ③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더 이동하면 균형정화도가 높아져 더 깨끗한 수준의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음
 - ∴ 무공해공정, 오염방지시설, 오염축소 상품, 산업폐기물의 효과적인 폐기 및 선용 등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함
 - 이는 장기적으로 환경정화비용을 끌어내리는 데 기여함

2) 외부비경제와 환경정책

■ 정부의 직접규제

- 독극물질 배출 금지
- 공해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제정·감독 등

■ 시장유인을 통한 간접규제

① 재산권 부여

- 재산권을 부여하면 정부의 개입 없이 협상이나 합병을 통해 환경오염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코즈 정리

② 공해세 부과

- 오염행위자에 세금부과

③ 오염배출권 거래

- 오염배출권 : 정부가 오염배출 총량을 결정하여 개별오염원들에게 할당해 준 것
- 오염배출권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팔아 오염 총량을 통제

■ 정부의 직접투자

- 정부가 환경오염을 정화하는 투자를 함
ex)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과 운영, 쓰레기 수거

3)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환경정책

■ 지구온난화로 파괴되는 생태계와 국제공조

-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 지구의 평균기온이 올라가는 현상
- 지구온난화의 주원인
 -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불화탄소 등)
 - 교토의정서(1997)
 - ☞ 온실가스의 총배출량을 국가별로 감축하도록 하는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의정서
- 정부의 직접규제가 국제적인 공조로 확산

■ 녹색산업과 녹색성장

- 온실가스의 배출을 낮추는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열, 조력, 세일 가스 등) 산업을 적극 지원·육성해야 함
- 녹색산업
 - 환경친화적이면서 미래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재생에너지산업

- 녹색성장(Green Growth)
 - 녹색산업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 녹색산업의 육성과 연구·개발 투자는 미래에 수익성을 갖추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음
 - "Green is Green!"

2 소득분배의 현황과 사회복지정책

■ 기능별 분배

- 요소소득이 생산에 참여한 생산요소의 제공자들에게 얼마만큼씩 돌아갔는가를 봄

■ 계층별 분배(인적 분배)

- 전체소득이 국민 개개인에게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를 소득계층별로 봄

1) 소득분배의 측정방법

■ 10분위분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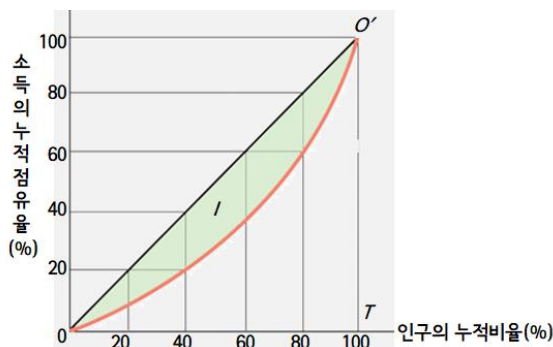
- 최상위 20% 소득계층의 점유율에 대한 최하위 4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의 비율
- 10분위분배율 = $\frac{\text{최하위 4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text{최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
- 이론적으로 0~2 사이의 값을 가짐
 -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
- 0.55 이상 : 소득분배가 아주 양호
- 0.35 이하 : 소득분배가 아주 불균등

■ 5분위배율

- 최상위 소득계층과 최하위 소득계층의 소득격차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는 지표
- 5분위분배율
- 5분위배율은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해짐
- 양극화 지표로 활용

■ 로렌츠 곡선

-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 사이의 관계를 표시한 곡선



- 소득의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로렌츠 곡선은 아래로 더 늘어지게 그려짐
- 지니계수(지니집중계수)
 - 소득의 완전균등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그늘진 면적 I를 직각삼각형 OTO'의 면적으로 나눈 값
- 소득분배가 완전균등할 경우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 OO'이 되어 I면적이 0이므로 지니계수도 0임
 - ∴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함을 나타냄
- 지니계수가 0.50 이상이면 소득분배가 아주 불균등함
- 지니계수가 0.30 이하이면 소득분배가 아주 양호함

2) 소득분배 불균등의 원인과 공정분배

■ 소득분배 불균등의 원인

- ① 인적자본(교육 · 훈련 등을 통해 축적된 지식이나 기술)의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
- ② 개인별로 능력과 노력이 서로 달라 생기는 임금격차
- ③ 사회경제적 차별이나 사회적 역학관계 때문에 생기는 임금격차
- ④ 근검절약, 상속, 정경유착 등에 따른 재산규모의 차이로 생기는 재산소득 격차
- ⑤ 세계화와 기술혁신
- ⑥ 인구 · 가구구조의 변화

■ 공정한 분배

- ① 공헌도원칙
 - 생산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는 것
- ② 기본수요보장원칙
 - 생산에 공헌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기본수요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 ③ 최약자보호원칙
 - Maximun Rule
 - 미국의 철학자 롤스가 제안
 - ☞ 효율적인 분배상태가 여럿 있을 때 그 중에서 최약자의 후생이 가장 높은 분배상태가 공정한 분배라는 것
- ④ 공정한 분배
 - 공헌도원칙의 바탕 위에 기본수요보장원칙과 최약자보호원칙이 보강되는 것

3) 경제발전과 소득분배 : 쿠즈네츠의 U자가설

■ 쿠즈네츠 U자가설

- 소득분배의 균등도를 세로축에 표시하고 경제발전단계 또는 1인당 국민소득의 크기를 가로축에 표시하면 소득분배의 균등도가 U자 형태가 됨



- 세로축에 소득분배의 균등도 대신 불균등도를 표시하면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분배의 변화는 역U자를 그리게 되어 이를 역U자가설이라고도 함

■ 쿠즈네츠의 U자가설이 성립하는 이유

- 경제가 발전하는 초기 단계에는 소득분배가 악화됨
 - 자본축적이 부족하여 으레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경제개발 추진
- 경제발전이 성숙한 후기 단계에는 소득분배가 개선됨
 - 최저임금제도, 의료보험제도, 실업수당, 연금제도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 도입

4) 기본수요 보장과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제도(사회안전망)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
 -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가 사회보장제도의 2대 지주임

■ 사회보험

- 국민이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도록 정부가 지원
 - 4대 보험(1차 사회안전망)
 - ☞ 국민연금(퇴직할 때)
 - ☞ 건강보험(아플 때)
 - ☞ 고용보험(실직할 때)
 - ☞ 산재보험(생산현장에서 다칠 때 지원)

■ 공적 부조

- 정상적 생활수준에서 낙오되었거나 낙오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정부가 도와줌
 - 아동, 모자, 청소년, 노인, 신체장애자, 특수원호 대상자 등을 상대로 교육 · 보건의료 · 고용 · 주거비 · 최저생계비 등을 지원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2000년 10월부터 실시
 - ☞ 대략 5%가량의 극빈층 가구에 대해 최저생계비 보장

- 사회보험이 수혜자도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반면 공적 부조는 정부가 비용을 모두 부담

경제의 순환과 경제활동 규모의 측정 / 9주차 1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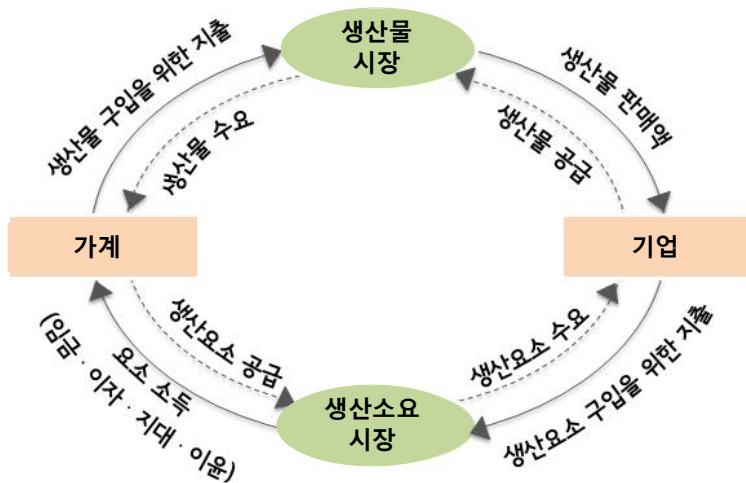
1. 경제의 순환

1) 총생산과 총소득

■ 총생산 = 총소득 = 총지출

- 경제는 인위적인 규제가 없어도 자율적으로 순환함

■ 단순한 민간경제의 흐름



* 실선은 화폐의 흐름을, 점선은 실물의 흐름을 표시함

- 기업 : 생산의 주체, 가계 : 소비의 주체
- 생산 → 소득 → 지출 → 생산의 순환관계
- 순환관계에 있는 생산과 소득과 지출의 크기는 같음 : 총생산 = 총소득 = 총지출
- 실제로는 가계, 기업뿐 아니라 정부부문과 해외부문도 존재하여 국민경제가 위의 그림보다는 훨씬 복잡함
- 그러나 총생산 = 총소득 = 총지출의 순환적 관계는 그대로 적용됨

2) 총소득과 국부

■ 소득과 부 : 유량 대 저장

- 소득

• 일정기간 동안에 벌어들이는 화폐액 → 유량(flow)

- 부

• 일정시점에 축적되어 있는 자산액 → 저장(stock)장

■ 국부

- 한 나라가 일정시점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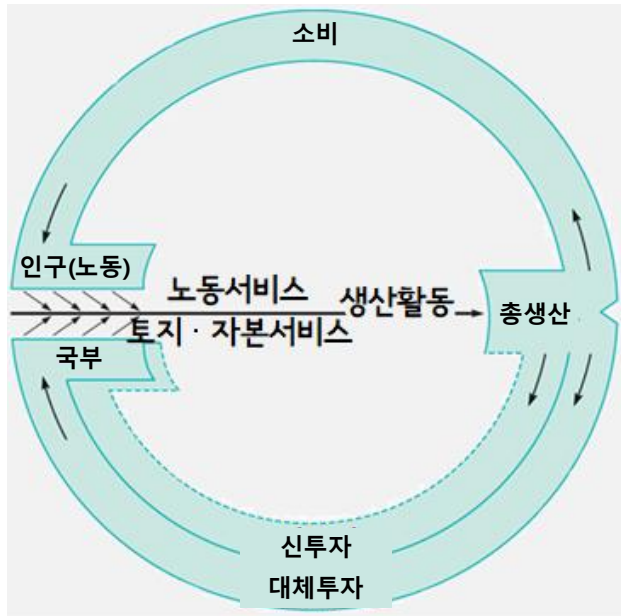
① 토지와 자본재로 구성

② 자본재는 건물·기계설비 등 사람이 만든 실물자산을 이르는 말로 이를 통틀어

총자본(총자본스톡)이라 함

③ 국부는 그 자체가 원활한 경제활동과 높은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님

■ 국부의 관계



- 국부와 노동을 상호 결합하여 생산물을 생산
 - 생산물은 소비재와 자본재로 나누어짐
- 소비재
 - 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구의 부양에 쓰임
- 자본재
 - 투자활동을 통하여 국부의 유지(대체투자)나 증대(신투자)에 쓰임
- 다음 단계에서 다시 기업이 국부와 노동을 결합하여 생산이 반복됨
- 모든 사회가 주어진 생산물을 가지고 얼마만큼 소비하고 투자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함
- 사회가 소비하지 않은 생산물의 가치분만큼 투자할 수 있음
 - 총생산 = 총소비 + 총투자
- 총소득 중 소비되지 않은 몫이 총저축임
 - 총소득 = 총소비 + 총저축
- 총생산 = 총소득이므로 사회전체로
 - 총저축 = 총투자의 관계가 성립함

■ 가계의 부와 국부

- 가계의 부(가계자산) = 실물자산 + 금융자산 - 부채
 - 실물자산
 - ☞ 토지, 주택, 공장, 기계 등 실물 형태의 자산
 - 금융자산
 - ☞ 현금, 예금, 채권(회사채, 국공채 등), 주식 등

- 기업의 부 = 실물자산 + 금융자산 - 부채
- 정부의 부 = 실물자산 + 금융자산 - 부채
- 국부 = ① + ② + ③
 - = 나라 전체의 실물자산 - 순대외채무
 - = 나라 전체의 실물자산 - (대외채무 - 대외채권)
- 국부에는 개별 경제주체의 부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 포함되지 않음
 - ☞ 한 경제주체의 금융자산은 다른 경제주체의 부채이거나 실물자산에 대한 청구권이어서 나라 전체로는 상쇄되기 때문
- 실물자산 형성을 위해 해외에서 빌린 부채(대외채무)는 빼야 함
 - ☞ 같은 논리로 국내에서 실물자산을 형성하는 대신 해외에 빌려 준채권(대외채권)은 더해야 함
- 저축과 국부 : 총투자는 신투자와 대체투자로 구성됨
 - 대체투자
 - 총자본이 감모되는 것을 보충해 줌으로써 국부의 크기를 종전과 같게 유지시킴
 - 신투자
 - 총자본과 국부를 증가시킴
 - ☞ 이때 사용되는 저축분을 순저축이라 함
 - ➔ 총저축 = 총투자 = 대체투자 + 신투자

2. 한 나라 경제활동의 규모의 측정 : 총생산 · 총소득

1) 국내총생산이란?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 GDP)
 - 일정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 ① 일정 기간 동안에 : 유량
 - ② 한 나라 국경 안에서 : 생산의 주체가 그 나라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국경 안에서 생산된 것은 모두 포함
 - ③ 최종생산물 : 중간생산물(다른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쓰여진 원재료.반제품 등)의 가치는 포함하지 않음
 - ☞ 이 중간생산물의 가치를 중간투입액 또는 중간소비라 함
 - ☞ 생산물에는 재화 뿐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도 포함
 - cf) 총산출(gross output) : 일정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 총산출 = 국내총생산 + 중간소비
 - ④ 시장가치 :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치만이 화폐액으로 평가됨
 - ☞ 가정주부의 가사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음

cf) 농부가 자가 소비하는 농산물,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의 귀속임대료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도 GDP에 포함됨

■ 명목 GDP와 실질 GDP

- 최종생산물이 n 개가 있고 i 생산물의 수량이 q_i , 가격이 p_i 라 하면, GDP는 각 생산물의 수량과 가격의 곱을 합한 것

$$GDP = p_1q_1 + p_2q_2 + \dots + p_nq_n = \sum_{i=1}^k p_i q_i$$

■ 명목 GDP

- 당해연도의 최종생산물(q_{it})과 당해연도의 시장가격(p_{it})의 곱

$$\text{명목 GDP} = p_{1t}q_{1t} + p_{2t}q_{2t} + \dots + p_{kt}q_{kt} = \sum_{i=1}^k p_{it} q_{it}$$

■ 실질 GDP

- 특정 연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당해 연도의 최종생산물(q_{it})에 기준연도의 시장가격(p_{io})을 곱하여 얻은 국내총생산

$$\text{실질 GDP} = p_{1o}q_{1t} + p_{2o}q_{2t} + \dots + p_{no}q_{nt} = \sum_{i=1}^k p_{io} q_{it}$$

예)

- 2013년의 명목 GDP : 2013년의 최종생산물을 그해의 시장가격으로 평가
- 2013년의 실질 GDP : 2013년의 최종생산물을 기준연도(예컨대 2005년이나 2010년) 시장가격으로 평가

■ 실제 GDP와 잠재 GDP

- 실질 GDP : 앞에서 정의한 GDP
- 잠재 GDP : 두 가지로 정의함

■ 완전고용 GDP

-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자원을 정상적으로 고용할 경우 생산할 수 있는 최대 GDP

■ 자연생산량

-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지 않고 실현시킬 수 있는 최대 GDP(1970년대부터의 정의)
- 오늘날에는 이 정의를 흔히 사용함

■ GDP 갭

- 잠재 GDP와 실제 GDP의 차이
 - GDP 갭 = 잠재 GDP - 실제 GDP
 - 생산이 저조하고 경제가 침체 될수록 GDP 갭은 커짐

2) 국내총생산의 측정

■ GDP는 생산, 지출, 소득의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함

- 이는 똑같은 GDP를 생산 · 지출 · 소득이라는 다른 각도에서 포착한 것으로 어느

접근방법을 사용하면 GDP는 같음

➔ 국민소득계정의 기본항등식 또는 국민소득 3면등가의 원칙

■ 생산접근방법 혹은 부가가치접근방법

- 부가가치 (value-added)
 - 생산과정에서 새로 덧붙인 가치
 - 부가가치 = 산출 - 중간소비 - 감가상각
- 생산요소 이용에 대한 보수로 임금 · 지대 · 이자 · 이윤 · 순간접세로 분해됨
 - 산출, 중간소비, 부가가치의 예

생산 및 유통단계	산출	중간소비	감가상각	부가가치
원재료	40,000			40,000
쌀(농부)	100,000	40,000	10,000	50,000
쌀(도매상)	110,000	100,000		10,000
쌀(소매상)	120,000	110,000		10,000
쌀 과자(제조업자)	150,000	120,000	10,000	20,000
쌀 과자(제과점)	200,000	150,000		50,000
합계	720,000	520,000	20,000	18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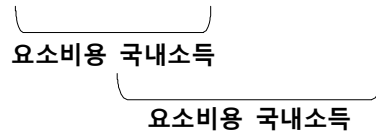
- 표에서 최종생산물 쌀과자(제과점)의 시장가치는 20만원임
- 이 20만원만 GDP에 포함
- 이는 각 생산과정에서의 감가상각과 부가가치의 합 2만원 + 18만원과 같음
-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는 생산과정의 감가상각과 부가가치의 합
- 우리나라의 GDP는 산업별 생산자료를 활용하여 생산접근방법으로 GDP 규모를 측정 · 확정하고, 지출과 소득측면에서 '통계상 불일치'라는 조정항목을 두어 국민소득 3면등가의 원칙을 관철시킴

■ 지출접근방법

- 최종생산물의 흐름과는 반대방향으로 화폐지출의 흐름이 있는데 이 지출을 추계하여 국내총생산을 얻을 수 있음 ➔ 국내총지출
- 최종수요부문들이 기업에 지출한 화폐액을 더함
- 국내총생산 = 민간소비지출 + 정부소비지출 + 국내총투자 + 재화와 서비스의 순수출
➔ 국내총지출

■ 소득접근방법 · 분배접근방법 : 요소소득에 의한 접근방법

- GDP는 생산요소시장에서 각 요소가 받는 요소소득을 전부 합계하여 측정
- 국내총생산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순간접세 + 고정자본소모



- 피용자보수 : 임금
- 영업잉여
 - ☞ 기업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
 - ☞ 지대 · 이윤 · 이자 등이 혼합되어 있음
- 순간접세 : 간접세에서 정부의 기업보조금을 뺀 것
- 고정자본소모(감가상각) : 자본재의 감모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몫

3) 기타 총생산 · 총소득지표

■ 국민총소득(gross nation income; GNI)

- 한 나라 국민이 일정기간 동안에 만들어 낸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든 해외에서 생산된 것이든 간에 그 나라 국민 소유의 생산요소에 의해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가 포함
- 국민총소득(GNI) = 국내총생산 + (국외수취요소소득 - 국외지급요소소득)
= 국내총생산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 UN은 1993년에 내놓은 국민계정체계(SNA)에서 실질국민소득지표는 생산지표인 실질 GDP와 소득지표인 실질 GNI로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
- 실질 GNI
 - 실질 GDP + 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 + 교역조건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 1인당 GNI(원화) = $\frac{\text{명목 GNI}}{\text{연중인구}}$
 - 1인당 GNI(미 달러화) = $\frac{\text{명목 GNI(원화)}}{\text{對미달러환율}}$

■ 국민총처분가능소득(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 : GNDI)

-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
- 국민총소득에 두 가지 조정을 하여 GNDI를 얻음
 - 교포 송금, 종교기관 기부금과 같이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외국으로부터 받는 소득(국외수취경상이전)을 더함
 - 해외기부금, 해외이주비 등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외국에 지급하는 소득(국외지급경상이전)을 뺀
- 국민총처분가능소득 = 국민총소득 + (국외수취경상이전 - 국외지급경상이전)
= 국민총소득 + 국외순수취경상이전 = 총소비 + 총저축

- 소비율 = $\frac{\text{총소비}}{\text{국민총처분가능소득}} \times 100$
- 총저축률(국민저축률) = $\frac{\text{총소비}}{\text{국민총처분가능소득}} \times 100$
- 국민순소득(net national income : NNI)
 - 국민총소득 - 고정자본소모 = 시장가격국민소득
- 국민소득(nation income : NI)
 - 국민순소득 - 순생산 및 수입세
 - 피용자 보수 + 영업잉여 = 요소비용국민소득
 - 순생산 및 수입세 = 생산 및 수입세 - 정부의 기업보조금
 - 생산 및 수입세
 - 부가가치세, 소비세와 같이 상품가격에 포함되어있는 세금
 - 노동소득분배율 = $\frac{\text{피용자보수}}{\text{국민소득}} \times 100$

4) 총생산, 총소득 개념의 한계

- 1인당 GNI는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
 - 잘 사는 선진국 : 1인당 GNI가 연 40,000달러 이상
 - 못 사는 후진국 : 1인당 GNI가 연 1,000달러 이하
- GDP, GNI 등의 지표
 - 경제활동수준을 나타내는 완전한 지표는 아님
 - 한 사회의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완벽한 지표도 아님
 - ① 총생산의 추계방법이 전체적인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음
 - ex) 가정주부의 가사서비스 가치는 포함되지 않고, 식당, 세탁소의 서비스 가치는 포함됨
 - ② 총생산 = 총소득은 소비자들이 즐기는 여가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음
 - ③ 환경오염을 도외시함
 - ④ 생산물의 질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⑤ 마약 · 부동산투기 · 밀수 · 탈세 등 지하경제의 활동을 반영하지 못함
- 총생산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는 지표들
 - ① 경제후생지표 (measure of economic welfare : MEW)
 - 미국의 경제학자 토빈과 노드하우스가 고안
 - ② 순경제후생 (net economic welfare : NEW)
 - 새뮤얼슨 고안
 - 경제후생지표 혹은 순경제후생
 - = GDP + 가정주부서비스가치 + 여가가치 - 공해비용
 - = 녹색 GDP + 가정주부서비스가치 + 여가가치

③ 녹색 GDP = GDP - 환경오염 비용

- 위 지표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추계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아직은 GDP와 GNI의 총생산 · 총소득 지표에 의존하고 있음

■ 경제의 순환과 경제활동 규모의 측정

물가와 경기 순환 / 9주차 2차시

1. 물가와 인플레이션

1) 물가란?

■ 물가(prices)

-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가격을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 수준

■ 물가지수

- 물가의 움직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준연도의 물가수준을 100으로 하여 지수의 형태로 나타낸 것

■ 물가지수의 종류

① 생산자물가지수 (producer price index : PPI)

- 전국 주요 지역에서 거래되는 주요 품목 870개(재화 776개, 기업서비스 104개)의 생산자판매가격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기준연도 대비 산술평균

②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 CPI)

- 전국 38개 도시지역에서 거래되는 460개의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자 구입 가격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기준연도 대비 산술평균

☞ 생활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 중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기본 생필품 141개의 평균적인 가격동향 조사

③ GDP디플레이터

- 가격변동을 직접 조사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계산

☞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평균가격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물가지수임

2) 물가의 측정

■ 물가지수를 작성하는 방법

- 라스파레이스지수

$$\bullet \frac{\sum_{i=1}^n p_{it} q_{io}}{\sum_{i=1}^n p_{io} q_{io}} \times 100$$

- 기준연도의 거래량이 기준연도와 비교연도의 시장에서 평가되는 것을 비교하여 물가의 변동을 포착

- 파세지수(PPI)

$$\bullet \frac{\sum_{i=1}^n p_{it} q_{it}}{\sum_{i=1}^n p_{io} q_{it}} \times 100$$

- 비교연도의 거래량이 기준연도와 비교연도의 시장에서 평가되는 것을 비교하여 물가의 변동을 포착

- 우리나라는 라스파레이스지수를 사용하고 있음

- GDP디플레이터는 파세지수임

■ 생산자물가지수(PPI), 소비자물가지수(CPI), GDP디플레이터는 물가변동에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

→ 그러나 대상품목과 포착하는 거래단계, 가중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로 나타나지는 않음

CPI	PPI	GDP 디플레이터
소비재와 서비스의 가격이 포함되지만 원재료와 중간재, 그리고 최종재 중 자본재의 가격은 포함되지 않음	소비재와 서비스의 가격이 포함되고, 원재료와 중간재, 그리고 최종재 중 자본재의 가격 포함	최종생산물일 경우 모두 포함되어 대상품목 수가 가장 광범위한 종합적인 물가지수임
수입품가격이 포함	수입품가격이 포함되지 않음	수입품가격이 포함되지 않음
주택·토지 등 부동산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음	주택·토지 등 부동산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음	신축건물은 GDP에 포함되므로 신축건물 가격이 포함
주택임대료 포함	주택임대료 포함	주택임대료 포함

3) 인플레이션

■ 인플레이션 (inflation)

- 일반물가수준이 상승하는 현상
- 구체적으로 물가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표시됨 현실적으로는 물가지수의 변동만 가지고는 인플레이션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① 인플레이션은 어느 물가지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

☞ 일반적으로 CPI가 PPI보다 더 오르는 경향이 있음

② 물가가 올라 외관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있더라도 물가가 상승한 이상으로 상품의 질이 향상되었다면 실질적으로는 물가가 하락한 것과 같음

③ 지수물가와 체감물가(피부물가)의 괴리

☞ 토지와 주택의 가격이 물가지수 작성에서 제외

- 개개인의 소비구조가 다름
- 정책당국이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가격통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지수물가는 별로 오르지 않지만 상품의 무게와 질이 떨어지고 암시장이 생기는 등 체감물가는 크게 오름

2. 기타 주요 거시경제변수들

■ 이자율(금리)

-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
- 화폐가 거래되는 화폐시장이나 채권이 거래되는 채권시장을 균형시켜 주는 가격변수

I. 명목이자율 : 매기당 화폐액으로 표현한 이자율

II.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물가상승률

■ 임금

- 명목임금 :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매기당 받는 화폐액

- 실질임금 = $\frac{\text{명목임금}}{\text{물가수준}}$ = 명목임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수량

■ 환율

- 명목환율 : 외화 1단위를 얻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자국화폐액

- 실질환율 = 명목환율 $\times \frac{\text{외국물가}}{\text{자국물가}}$

1) 기타 주요 거시경제변수

-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이 관심을 가지는 가격변수는 명목이자율, 명목임금, 명목환율과 같은 명목가격변수가 아님

- 실질이자율, 실질임금, 실질환율과 같은 실질가격변수임

3. 경기 순환

1) 경기 순환이란?

- 경기 : 전반적인 경제활동 상태,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

- 경기순환(경기변동) : 경제활동이 상당한 규칙성을 보이며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



- 성장추세선
 - 경기순환이 없을 경우의 경제의 정상적인 성장경로
 - 한 나라의 성장추세선의 기울기는 생산기술, 자본축적, 인적자본, 사회하부구조 등에 의해 결정됨
- 저점(계곡)
 - 경기가 가장 나쁜 상태
- 정점(정상)
 - 경기가 가장 좋은 상태
- 확장국면
 - 저점에서 정점까지의 구간
- 수축국면
 - 정점에서 저점까지의 구간
- 주기
 -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를 경기순환의 한 주기라 함
- 진폭
 - 정점과 저점의 격차

2) 경기순환의 특징

■ 공행

- 특정 분야나 특정경제변수에만 일어나지 않고 많은 경제활동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남
- ① 경기순응변수
 - 생산활동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시경제변수
ex) 출하, 고용, 생산, 개인처분가능소득, 소비, 투자, 임금, 물가 등
- ② 경기역행변수
 - 생산활동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시경제변수
ex) 실업, 재고
- ③ 경기선행변수
 - 시간과 관련하여 전환점이 생산활동의 전환점보다 빨리 나타나는 변수
ex) 종합주가지수, 소비자기대지수, 건설수주액 등
- ④ 경기동행변수
 - 전환점이 생산활동의 전환점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변수
ex) 내수출하, 소매판매액,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등

⑤ 경기후행변수

- 전환점이 생산활동의 전환점보다 나중에 나타나는 변수
ex) 제품 재고, 상용근로자 수, 소비지출, 회사채수익률 등

■ 지속적, 비대칭적임

- 경기후퇴가 일단 시작되면 상당 기간 경기는 더 나빠지고 경기가 일단 확장되기 시작하면 상당 기간 경기는 더 좋아짐
- 대개 확장국면이 수축국면보다 길게 나타남

■ 반복적이되 비주기적임

- 주기와 진폭이 경기순환마다 다름

3) 경기순환이 일어나는 원인과 진행과정

■ 경기순환이 일어나는 원인

① 생산물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기술진보
- 생산방식의 혁신
- 노사관계의 변화
- 연구·개발정책의 변화
- 기업가의 동물적 욕감의 발동 등

② 생산물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소비풍조의 변화
- 해외경기의 변화
- 재정지출의 변동
- 통화공급의 변동
- 기업투자마인드의 변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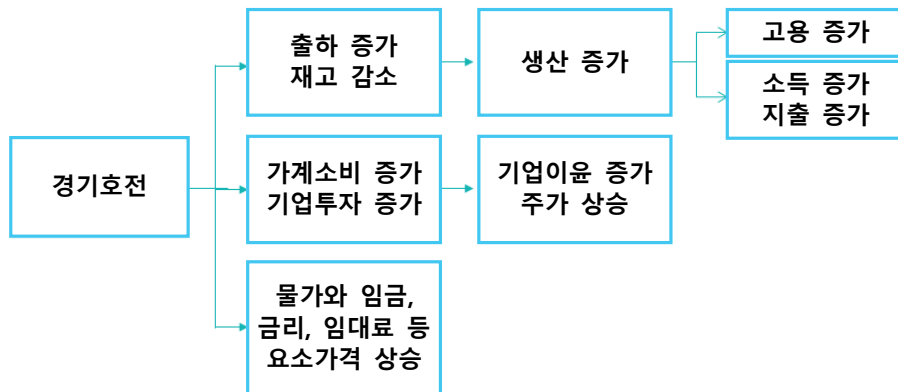
③ 기타 요인들

- 자원파동
- 전쟁
- 사회분위기의 변화와 같은 심리적 요인 등

☞ 위 요인들이 단독으로 혹은 서로 합쳐져 경기순환을 일으킴

■ 공행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 주요 거시변수들의 밀접한 상호의존관계 때문



■ 지속성이 일어나는 원인

- ① 시차적인 파급 효과
- ② 투자에 상당한 건설기간 소요

■ 비대칭성이 일어나는 원인

- 주로 경제안정화정책의 비대칭성 때문
 - 경기가 침체할 때 정부는 여러 활성화 정책을 폭넓고 깊게 씀

■ 반복성 · 비주기성이 일어나는 원인

- 가격변수들의 작용으로 경기순환의 정점과 저점이 나타나고 반복됨
- 국내외 경제상황과 정부정책에 따라 주기와 진폭은 달라지게 마련임

4) 경기순환의 종류

■ 순환의 주기에 따른 분류

- ① 단기파동
 - 2.5~5년을 주기로 하는 경기변동
 - Kitchen wave
 - 통상적인 경기순환
- ② 중기파동
 - 8~10년을 주기로 하는 경기순환
 - Juglar wave
- ③ 장기파동
 - 50~60년을 주기로 하는 경기순환
 - Kondratiev wave ex) 기술의 혁신이나 신자원의 개발 등에 따라 일어나는 순환
 - ☞ 18세기 말에 시작된 산업혁명, 1840년대의 철도 등장
 - ☞ 1890년대의 자동차 · 전기 발명 등

■ 변동현상이 주로 일어나는 분야별로 분류

- 건축순환
- 재고순환
- 농산물파동

■ 우리나라의 경기순환

	저점(연월)	정점(연월)	저점(연월)	지속기간(개월)		
				확장	수축	주기
제1순환	1972.3	1974.2	1975.6	23	16	39
제2순환	1975.6	1979.2	1980.9	44	19	63
제3순환	1980.9	1984.2	1985.9	41	19	60
제4순환	1985.9	1988.1	1989.7	28	18	46
제5순환	1989.7	1992.1	1993.1	30	12	42
제6순환	1993.1	1996.3	1998.8	38	29	67
제7순환	1998.8	2000.8	2001.7	24	11	35
제8순환	2001.7	2002.12	2005.4	17	28	45
제9순환	2005.4	2008.1	2009.2	33	13	46
제10순환	2009.2 ^p	2011.8 ^p	2013.3 ^p	30	19	49
제11순환	2013.2 ^p					
제 1~10 순환 평균				33	13	49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 온라인 간행물 > 경기종합지수 > 부록.(단. p추정 월임)						

- 우리나라의 경기순환과정은 1950년대 말부터 한국은행이 분석
- 1970년대부터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편제
- 평균적으로 확장기간이 33개월, 수축기간이 13개월, 주기가 49개월인 단기파동임

재정과 화폐 / 10주차 1차시

1. 재정과 재정정책

1) 재정이란?

■ 재정

- 정부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에 관련된 정부의 경제활동

■ 정부는 재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

① 본예산 :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편성된 예산

- 추가경정예산

- 회계연도가 진행되는 도중에 국내외 경제정세의 변화나 천재지변과 같은 돌발사태 등으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덧붙이거나 고치는 예산

② 결산 : 예산을 집행한 결과 재정수지

- 정부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

- 재정수지가 양이면 재정(수지)흑자

☞ 정부수입 > 정부지출

- 재정수지가 음이면 재정적자라 함

☞ 정부수입 < 정부지출

- 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재정균형 혹은 균형재정이라 함

☞ 정부수입 = 정부지출

2) 재정의 범위

■ 나라살림을 꾸려가는 기관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의 3개 부문으로 나눔

■ 중앙정부재정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이 있음

① 일반회계

- 일반행정 · 국방 · 교육 · 공공사업 등 일반적인 정부활동에 관련된 세출과 이를 충당하는 세입을 나타내는 회계

☞ 일반예산

② 특별회계

- 나라가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때, 일반회계와 달리하여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운영하는 회계

- 기업특별회계

☞ 양곡관리 · 조달 · 책임운영기관 · 우편사업 · 우체국예금 특별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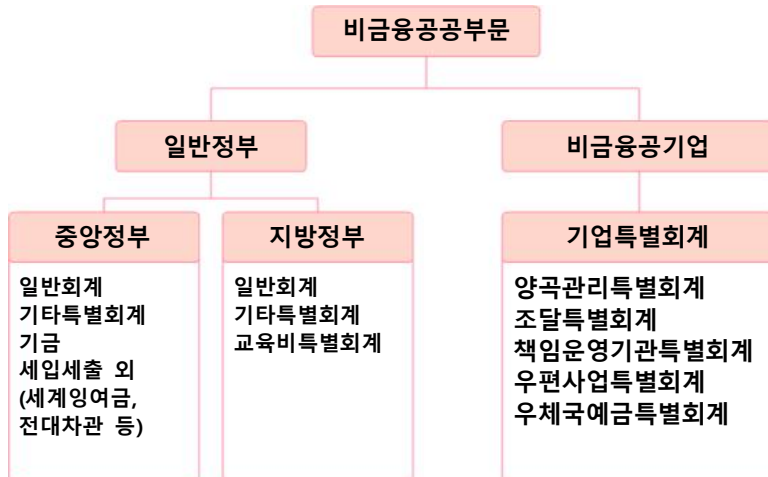
- 기타특별회계

☞ 기업특별회계 외의 특별한 정부기능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들어가는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임

③ 기금

- 정부가 사업운용상 필요한 경우 설치하여 예산과는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것
 - ☞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
 - ☞ 한국은행차입, 국채발행 등에 의하여 조달

- 지방정부재정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 비금융공기업재정 : 위에 나온 5개 기업특별회계
- 우리나라 재정이 범위



3) 세입 : 정부의 수입

■ 세입의 종류

- 조세수입, 세외수입, 자본수입
 - ① 조세수입 : 국민으로부터 세금으로 징수한 것
 - ② 세외수입 : 조세 이외의 수입. 수수료 · 입장료 · 벌과금 등의 수입
 - ③ 자본수입 : 정부가 소유하는 토지 · 건물 등을 팔아서 얻는 수입
 - ☞ 세입의 대종은 조세수입

■ 조세의 과세대상에 따른 분류

- ① 소득세
 -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의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
 - ex) 개인소득세, 법인세
- ② 자산세
 - 재산의 보유 ·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 ex) 재산세, 상속세
- ③ 재화 및 서비스세
 - 재화와 서비스의 매매 ·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ex) 부가가치세, 주세
- ④ 관세
 -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⑤ 기타 세금

- 특정목적에 위해 부과되는 세금

ex) 방위세, 교육세 a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세는 재화 및 서비스세, 그 다음은 소득세

■ 직접세와 간접세

① 직접세

- 세금이 부과되는 경제주체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경제주체가 같은 세금 ex)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 세금의 전가가 어렵고 누진세로 부과가능 → 소득재분배효과

② 간접세

- 세금이 부과되는 경제주체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제주체가 다른 세금 ex) 재화 및 서비스세
- ☞ 우리나라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은 대략 6 : 4

■ 세율

- ① 정액세 :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는 세금
- ② 비례세 :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 ③ 누진세 :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 ④ 역진세 : 과세대상의 가격이나 수량이 클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 현실적으로 역진세는 없음
 - 그러나 생필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면 실질적으로 역진세가 됨

■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 1990년대까지의 조세정책

- 급속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손쉽게 조달하고 자본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 ☞ 직접세보다 간접세에 의존
- 직접세의 경우
 - ☞ 노동소득에 상대적으로 중과하고 자산에 경과
- 수출산업, 중화학공업 등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부문
 - ☞ 각종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
 - ➔ 경제성장에 기여했으나 부문간 ·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킨 부작용이 컸음

- 근래 정부가 부작용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조세원칙을 세우기 위해 세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 바람직한 네 가지 조세원칙(애덤 스미스)
 - ☞ 개인의 능력과 국가로부터 받는 이익에 비례하여 내는 조세부담의 공평성
 - ☞ 징수비와 경제적 비효율을 극소화하는 경제성
 - ☞ 조세체계가 명확하고 징수과정이 법규에 따라 확실하게 집행되는 확실성
 - ☞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편리성

■ 조세와 관련된 거시지표

- 조세부담률 = $\frac{\text{조세수입}}{\text{명목GDP}} \times 100$
- 국민부담률 = $\frac{\text{조세수입} + \text{사회보장기여금(4대보험출연료)}}{\text{명목GDP}} \times 100$

4) 세출 : 정부의 지출

■ 경제적 성격에 따른 분류

① 경상지출

- 공무원보급 지급과 사무용품 구입 등을 포함한 정부소비지출
- 정부가 차입한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및 이전지출 등

② 자본지출

- 정부가 토지와 각종 자본재 등을 취득하는 데 따른 지출

③ 순대출

- 정부가 각종 기관에 빌려준 융자금에서 회수금을 뺀 것

■ 기능적 성격에 따른 분류

① 일반행정비

- 정부의 기본적인 행정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비

② 국방비

- 국군 유지, 방위산업 육성에 지출

③ 교육비

- 교육환경 개선에 지출

④ 사회개발비

- 상하수도 시설확충, 환경오염 방지, 사회보장 및 복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등을 위한 지출

⑤ 경제개발비

-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자원을 개발하며 산업을 지원 · 육성
-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경제개발비 · 사회개발비 · 교육비 등의 증대가 주축이 되어 재정규모가 명목 GDP의 증가세보다 높게 팽창해 옴

5) 재정정책

■ 재정정책

-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을 변경시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복지증대를 도모하는 정책
 - 정부지출 : 정부소비지출과 정부투자지출이 주축
- 정부지출을 증가시킬 때 그 재원을 조세수입 증대나 국채발행 증가로 마련
- 정부의 예산제약식
 - 세출 - 세입 = 통화공급 증가 + 국채발행 증가 + 해외차입 증가
 - ★ 재정정책은 통화공급 증감을 초래하지 않고 국채발행 증감으로 세출과 세입을 변동시키는 정책

■ 총수요관리정책

- 경제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지출을 조절하는 정책
- (경제)안정화 정책이라고도 함
 - 단기에 재정정책은 총수요관리정책의 기능을 수행
 -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 ☞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 재정흑자를 냄 → 경기를 진정시킴
 - 경기가 침체상태에 있을 때
 - ☞ 세금을 적게 걷고 정부지출을 늘려 재정적자를 냄으로써 → 경기회복을 도모함

2. 화폐

1) 화폐란?

■ 화폐의 기능

- ① 일반적인 교환의 매개수단(지불수단)
 - 화폐 = 일반적인 구매력
- ② 회계의 단위 혹은 가치의 척도
- ③ 가치의 저장수단
 - 화폐의 본원적인 기능 : ①과 ②

■ 화폐의 정의

- 화폐
 - 상품을 매매하고 채권 · 채무관계를 청산하는 일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불수단

2) 화폐의 종류

■ 화폐의 발달

- 물품화폐 → 금속화폐 → 지폐 → 예금화폐 → 전자화폐 화폐 종별 특성
- ① 물품화폐 : 물물교환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화폐로 쓰이기 시작한 물품
 - ☞ 운반 · 저장 · 분할 · 동질성면에서 불편함 ex) 소금, 곡물, 가축
- ② 금속화폐
 - 귀금속을 화폐로 사용
 - 칭량화폐
 - ☞ 일일이 무게로 달아 사용
 - 주조화폐
 - ☞ 일정한 양의 금속을 소재로 하여 일정한 모양으로 돈을 찍어 냄
- ③ 지폐
 - 금속화폐 대신 정부가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종이돈을 찍어내게 한 것
 - ☞ 소재가치 < 명목가치
 - ☞ 주조이익이 생김
 - 중앙은행제도

- ☞ 중앙은행이 지폐를 독점적으로 찍어내는 화폐제도
- ☞ 이렇듯 지폐처럼 강제 통용력을 부여받아 통용되는 화폐를 '법화'라 함
- ex) 한국은행권

- 그레샴의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 ☞ 소재가치가 작은 지폐가 출현하자 소재가치가 큰 주조화폐가 사라지고 지폐만 통용

④ 예금화폐

- 지폐가 내구성과 가분성 면에서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화폐
- ☞ 은행예금을 기초로 발행되는 수표로 수표 위에 금액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사용함
- ☞ 법화가 아니어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고 통용지역이 제한됨

⑤ 전자화폐

- IC카드와 같은 전자매체에 가치를 저장하여 지불수단으로 쓰는 것

3) 통화지표

- 화폐에 관한 정설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의 통화지표를 편성하여 병용하고 있음

■ 통화지표

■ 통화량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총액을 통화량이라 함

■ 통화지표

- 통화량의 크기와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 우리나라

- 협의통화, 광의통화, 금융기관유동성, 광의유동성의 네 지표

① 협의통화(M_1)

- 민간화폐보유액(현금통화) + 예금취급기관의 결제성 예금(예금통화)

② 광의통화(M_2)

- M_1 + 예금취급기관의 저축성 예금 + 기타 각종 수익성금융상품
- ☞ 단, 만기 2년 이상의 장기금융상품은 제외
- M_1 + 준결제성 예금(준예금통화)

③ 금융기관유동성(L_f)

- 광의통화(M_2) + 금융기관 기타예수금

④ 광의유동성(L)

- L_f + 정부와 기업이 발행한 유동성 금융상품
- ☞ 국채, 지방채, 회사채, 기업어음 등

■ 통화지표의 구성내용(2017년 말 잔액 기준)

(단위 : 조원)

광의유동성 (L) (4,493)			
금융기관유동성 (L_1) (2,519)			정부 · 기업 발행 유가증권 등(954)
광의통화 (M_2) (2,519)		금융기관 기타예수금 등 (1,020)	(좌동)
협의통화 (M_1) (826)	준결제성예금 (1,693)	(좌동)	(좌동)
결제성예금(731)	(좌동)	(좌동)	(좌동)
현금통화(95)	(좌동)	(좌동)	(좌동)

금융과 통화정책 / 10주차 2차시

1. 금융

1) 금융과 금융시장

■ 금융

- 자금(돈, 화폐)의 유통
- 돈을 빌려 주거나 빌려 쓰는 것

① 직접금융

- 자금의 최종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자금을 거래하는 방식
ex)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② 간접금융

- 중개기관을 사이에 두고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방식
ex) 은행이 가계로부터 받은 예금을 기초로 하여 기업에 대출

■ 금융시장 - 금융이 이루어지는 시장

① 단기금융시장(자금시장)

-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금융시장
 - ☞ 콜시장 : 만기가 하루에서부터 2주 정도까지 최단기금융시장
 - ☞ 할인시장 : 기업어음 · 통화안정증권 · 양도성예금증서(CD) · 환매채(RP) 등이 거래되는 시장

② 장기금융시장

-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금융시장
 - ☞ 장기대부시장 : 기업의 설비자금과 같은 장기자금이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등에 의해 대부되는 시장
 - ☞ 증권시장(자본시장) 발행시장 :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 채권을 발행하는 시장
 - 유통시장 :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 ex) 증권거래소

2) 금융기관

■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중개하는 기관

- 예금취급기관
 - M_1 과 M_2 를 공급하는 기관
 - ☞ 중앙은행과 기타예금취급기관으로 구성
- 기타금융기관
 - 예금취급기관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
 - ☞ 기타금융중개기관, 보험회사 및 연금기금, 금융보조기관으로 구성

■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중개하는 기관

- 우리나라 금융기관(2013년 12월 말 현재)



■ 중앙은행

- 통화가치와 금융의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은행의 은행

- 중앙은행의 기능

① 발권은행으로서의 기능

☞ 지폐와 주화를 발행

②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기능

☞ 은행에 대해 여신과 수신을 행함

③ 통화정책 수립과 집행

☞ 중앙은행 = 통화당국

④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기능

☞ 국고금의 출납

☞ 정부에 대한 여신 및 수신 등

⑤ 외환관리

☞ 외환을 보유하고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

■ 기타예금취급기관

- 예금은행

① 일반은행

•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 기본적인 업무 → 수신업무와 여신업무 → 전통적인 상업금융업무

☞ 2017년 말 현재 시중은행(8개), 지방은행(6개), 외국은행국내지점(36개)

② 특수은행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정부출자에 의존

☞ 일반은행이 영리성만을 기준으로 자금을 공급할 때 소외당하기 쉬운 부문에

자금을 정책적으로 배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 수협은행

cf) 수출입은행은 예금은행이 아닌 은행임

- 종합금융회사

- 다양한 기업금융수요에 부응하여 종합적인 금융서비스업을 취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백화점'

☞ 은행과 증권회사에 있는 종합금융계정도 종합금융회사에 포함

- 자산운용회사

- 증권투자신탁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기관
- 증권투자신탁

☞ 고객의 돈을 맡아 주식 ·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금을 고객에게 분배하는 것

- 고객은 수익증권을 사는 형식으로 투자신탁회사에 돈을 맡김

- 신탁회사계정

- 신탁

☞ 금전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위탁 받아 대신 관리해 주는 것을 신탁이라 함

- 부동산이나 증권이 아닌 금전의 신탁을 취급

☞ 기록한 계정이 신탁계정임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금전신탁을 취급
- 신탁회사계정의 금융상품은 M_2 (계약 만기 2년 미만)이나 금융기관유동성(만기 2년 이상) 포함

- 상호저축은행

- 일반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

- 신용협동기구

- 조합원에게 저축 편의를 제공하고, 조합원에 대한 저리융자를 통해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ex) 직장 단위의 신용협동조합, 지역 단위의 새마을금고 등

- 우체국예금

-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각종 예금

■ 기타금융중개기관

- 증권기관

- 증권투자회사

- 여신전문금융기관

- 신용카드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유동화 전문기관

- 공적 금융기관

- 부실정리금융기관 등

■ 보험회사 및 연금기금

- 생명보험회사
- 손해보험회사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등

■ 금융보조기관

- 금융중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하지만 자가계정에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중개기관과 다름
- 신용보증기관
- 신용평가회사
- 자금중개회사
- 금융결제원
- 한국증권거래소
- 선물거래소
- 투자자문회사
- 금융감독원 등

3) 금융제도

■ 금융제도란?

- 금융제도
 - 금융거래에서 일어나는 비대칭정보의 문제를 완화하고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 ☞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하부구조(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을 뒷받침하거나 감시하는 각종 기구 · 제도와 법률체계)를 포괄

■ 금융제도의 유형

- 시장중심 금융제도와 은행중심 금융제도
 - 시장중심 금융제도
 - ☞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금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
 - ➔ 미국과 영국
 - 은행중심 금융제도
 - ☞ 은행이 금융의 중요한 역할 담당 ➔ 독일과 일본
- 전업주의와 겸업주의
 - 전업주의
 - ☞ 은행 · 증권 · 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각 전문 금융기관이 제공
 - ➔ 미국, 일본, 우리나라

- 검업주의
 - ☞ 한 금융기관이 여러 금융서비스를 함께 취급 → 독일
- 최근 세계금융제도 변화의 특징
 - ① 규제완화(금융자유화)
 -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재규제
 - ② 금융제도의 수렴현상
 - 금융의 증권화를 통해 시장중심 금융제도에 가까운 쪽으로 수렴
 - ③ 금융의 국제화
- 경제발전과 금융심화
 -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frac{\text{금융자산액}}{\text{실물자산액}}$ 비율이 상승
 - 금융심화
 - 금융심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금융연관비율이 있음
 - 금융연관비율(FIR) = $\frac{\text{금융자산액}}{\text{명목 } GDP}$ or $\frac{\text{금융자산액}}{\text{명목 } GNI}$
 - 실물자산액의 측정이 어려우므로 실물자산액 대신 명목 GDP나 명목 GNI를 사용
 -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연관비율은 9 내외

2. 통화의 공급과 통화정책

1)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공급

■ 본원통화

-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시중에 나온 현금
 - ① 본원통화는 민간의 수중에 남아 있거나 예금취급기관에 예치됨
 - ② 본원통화 = 현금통화 + 예금취급기관의 지급준비금
 - ③ 예금취급기관은 지급준비금을 자기 금고에 넣어두거나(시재금) 중앙은행에 예금 (지준예치금)
- 중앙은행으로 환류되지 않은 본원통화를 화폐발행액이라 함
 - ∴ 본원통화 = 현금통화 + 예금취급기관의 지급준비금
 - = 현금통화 + 예금취급기관시재금 + 중앙은행지준예치금
 - $$= \underbrace{\hspace{10em}}_{\text{화폐발행액}} + \text{중앙은행지준예치금}$$

■ 본원통화의 공급원천

- ① 정부부문을 통한 공급
 - 순정부대출이 증가할수록 본원통화 증가
- ② 예금취급기관을 통한 공급
 - 예금취급기관이 중앙은행의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본원통화 증가

③ 해외부문을 통한 공급

- 상품수출이 상품수입보다 많거나 자본유입이 자본유출보다 많으면 중앙은행의 매입외환이 매각외환보다 많아져 본원통화의 순증가 발생

④ 중앙은행 기타자산의 순증가를 통해 본원통화 증가

■ 본원통화의 공급원천

- 한국은행 대차대조표

차변(자산)	대변(부채와 자본)
정부대출	← 정부예금
	← 본원통화
예금취급기관대출	← 화폐발행액
	← 예금취급기관지준예치금
해외자산	← 해외부채
기타자산	← 기타부채



차변(자산)	대변(부채와 자본)
순정부대출	← 본원통화
예금취급기관대출	← 화폐발행액
순해외자산	← 예금취급기관지준예치금
순기타자산	

■ 본원통화와 지급준비금

- 지급준비율

-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이 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text{지급준비율}(r) = \frac{\text{지급준비금}(R)}{\text{예금}(D)}$$

① 필요지급준비율(법정지급준비율)

- 예금은행이 반드시 지키도록 중앙은행이 강제하는 지급준비율

☞ 요구불예금의 경우 7%

☞ 저축성예금의 경우 2%

② 초과지급준비율

- 고객의 예기치 못한 예금인출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지급준비율

☞ 각 예금은행이 결정

2) 예금은행의 신용창조와 예금통화 공급

■ 신용창조

- 전체 예금은행조직을 통한 예금통화의 창출
- 가정

- I. 예금은 요구불 예금만 존재
- II. 예금은행조직 밖으로의 현금누출은 없음
- III. 예금은행은 대출의 형태로만 자금을 운용
- IV. 초과지급준비금은 없음

- 위 가정하의 신용창조 예

- 필요지급준비율은 20%로 가정
- 영찬이가 A은행에 10만원을 예금함
 - ☞ 예금은행조직으로 최초에 흘러들어온 본원적 예금이 10만원
- 이 10만원 중 필요지급준비금으로 2만원을 남기고 8만원을 B은행에 대출
- B은행도 마찬가지로 필요지급준비금을 남기고 C은행에 대출
- 이 과정이 시장 내 모든 은행에 거쳐 반복되면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은행	요구불예금	대출	필요지급준비금
A	100,000	80,000	20,000
B	80,000	64,000	16,000
C	64,000	51,200	12,800
D	51,200	40,960	10,240
E	:	:	:
F	:	:	:
:	:	:	:
총계	500,000 (총예금창조액)	400,000 (순예금창조액)	100,000 (본원적 예금)

- 영찬이의 예금 10만원은 신용창조과정을 거쳐 은행조직 전체로 50만원의 예금통화를 창출
- 총예금창조액 = $100,000 + 80,000 + 64,000 + \dots$

$$= 100,000 + (100,000 \times 0.8) + (100,000 \times 0.8^2) + \dots$$

$$= 100,000 \times (1 + 0.8 + 0.8^2 + \dots)$$

$$= 100,000 \times 1/(1-0.8) = 100,000 \times 1/0.2 = 500,000$$
- 초항이 10만원이고 공비를 0.8로 하는 무한등비급수의 합
- 신용승수
 - ☞ 현금누출이 없고 초과지급준비금이 없을 때 본원적 예금은 그 몇배에 해당하는 요구불예금을 창출하는데 이 배수를 신용승수라 함
 - ☞ 필요지급준비율의 역수로 표시
 - ➔ 신용승수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신용창조의 최대한도를 나타냄

- 모든 예금은행을 통틀어 하나의 조직으로 놓고 볼 때 신용승수의 신용창조가 일어남
☞ 필요지급준비율이 100%보다 낮은 부분지준제도 때문에 신용창조가 일어남

3) 본원통화와 통화량

■ 현금통화비율

- 현금통화가 협의통화에서 차지하는 비중
- 현금통화비율(z) = $\frac{\text{현금통화}(C)}{\text{협의통화}(M_1)}$

$$\therefore C = zM_1$$

$$\text{예금통화} = (1 - z)M_1$$

■ 지급준비금

- 지급준비금 = 지급준비율 \times 예금통화
- $(D) = rD = R(1 - z)M_1$

■ 본원통화

- 본원통화(B) = 현금통화(C) + 지급준비금(R)
- $C + rD = [z + r(1 - z)] M_1$

$$\therefore M_1 = \frac{1}{z + r(1 - z)} B \text{의 관계가 성립}$$

-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결정하면 통화는 본원통화에 $\frac{1}{z + r(1 - z)}$ 를 곱한 값
- 이때의 $\frac{1}{z + r(1 - z)}$ 를 통화승수라 함
- 본원통화는 통화량을 통화승수배 만큼 증가시킴
 - 본원통화는 고성능화폐
- 본원통화가 일정할 때
 - 일반대중의 현금통화비율이 작을수록, 예금은행의 지급준비율이 작을수록 통화공급은 커짐

4) 통화정책이란?

■ 통화정책

- 통화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
 - 금융정책, 통화신용정책, 통화금융정책이라고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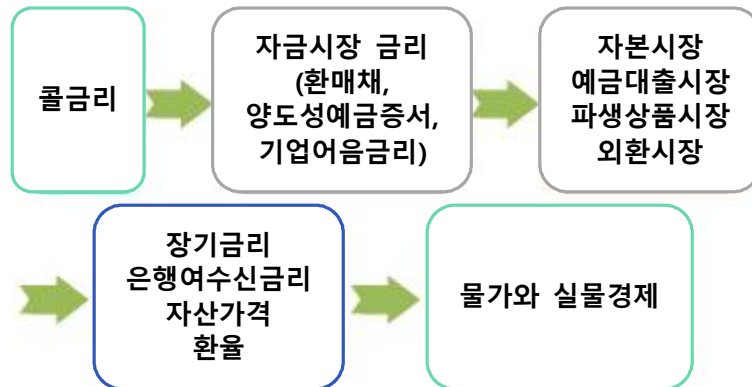
■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 통화정책수단 :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정책, 여수신제도
 - 통화정책의 운용 목표 : 이자율, 환율, 통화량
 - 통화정책의 최종목표 :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균형,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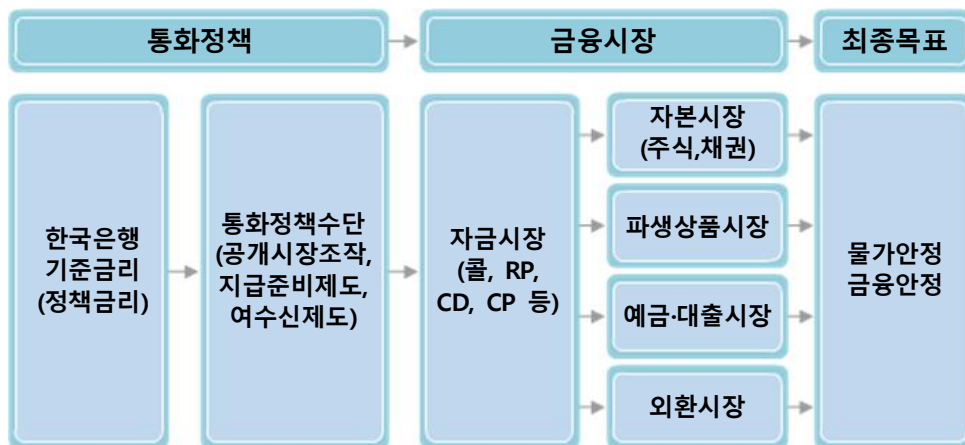
■ 물가안정목표제

- 통화당국이 통화정책의 여러 최종목표들 대신 물가안정이라는 단일목표만 추구하는 것
 -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실시

- 설정된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 통화정책수단들을 이용
 -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 물가안정목표제 하에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5) 통화정책수단

■ 공개시장조작

- 중앙은행이 증권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하거나 매각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
 - ex) 국채매입 → 통화량 증가, 국채가격상승 = 금리하락

■ 지급준비율정책

- 중앙은행이 예금취급기관의 필요지급준비율을 변경시킴으로써 통화량을 조절
 - ex) 필요지급준비율 인상 → 예금은행 지급준비율 상승 → 통화량 감소

■ 지준부리제도

- 예금취급기관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에 이자 지급
 - 이자를 많게 혹은 적게 지급하여 시중유동성에 영향을 줌

■ 여수신제도

- 총액한도대출제도와 자금조정 대출 및 예금

① 총액한도대출제도

-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는 총액한도를 미리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운용하는 제도
 - ☞ 총액한도를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유동성을 조절

② 자금조정 대출 및 예금

- 자금조정 대출
 - ☞ 금융기관의 필요지급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한국은행이 대출해 줌
- 자금조정 예금
 - ☞ 금융기관의 필요지급준비금이 남을 경우 예금함

총수요 · 총공급의 이론 / 11주차 1차시

1. 총수요 · 총공급의 이론

1) 총수요 · 총공급의 이론

- 총수요곡선 : 경제 전체에 대한 수요곡선
- 총공급곡선 : 경제 전체에 대한 공급곡선
- 총수요 · 총공급이론

-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을 이용하여 한 나라의 생산 및 물가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분석하는 것

2) 총수요곡선이란?

- 총수요곡선(aggregate demand curve)이란?

- 각각의 물가수준에서 수요되는 실질총생산을 보여주는 곡선

I. 세로축에 물가, 가로축에 실질총생산을 측정하는 평면에 우하향의 곡선으로 표현됨

II. 이때 실질총생산이 실질 GDP이면 물가는 GDP 디플레이터임

III. 개별상품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을 모두 합한다고 하여 총수요곡선이 되는 것은 아님

ex) 개별상품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을 그릴 때는 해당상품의 가격만 변하지만
총수요곡선을 그릴 때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변하는 것을 전제로 함

IV. 총수요의 정의

☞ 총수요 = 민간소비수요 + 총투자수요 + 정부소비수요 + 순수출수요
= 민간소비지출 + 총투자수요 + 정부소비지출 + 순수출

☞ 의도하고 계획한 만큼만 실제로 지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총투자분만 빼고
수요를 지출로 대체할 수 있음

☞ 총투자지출과 총투자수요는 다름

★ 재고투자가 총투자에 포함되고 제품이 기대한 만큼 팔리지 않으면 재고투자와
재고투자수요가 달라지기 때문임

-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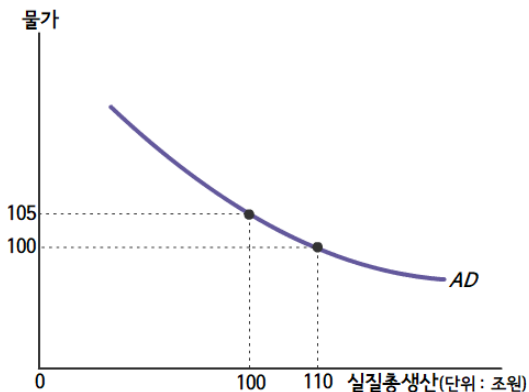
① 물가가 오르면 이자율도 오르는데 이자율이 오르면 민간소비와 투자수요가 감소

➔ 물가가 오를 때 이자율도 올라 총수요가 감소하는 효과 : 이자율효과

② 물가가 오르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국공채의 실질가치가 떨어져 소비수요를
감소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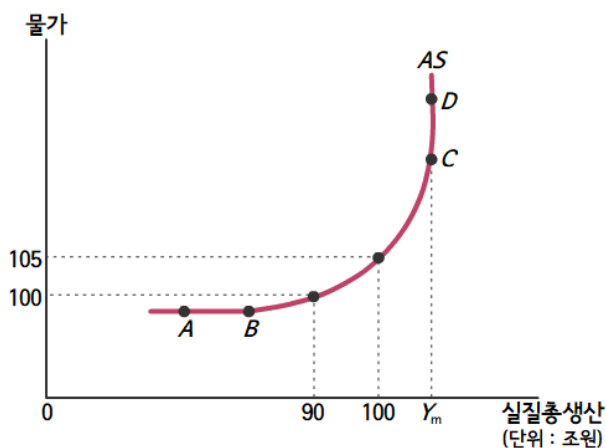
➔ 물가가 오르면 금융자산들의 상품구매력이 떨어져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 : 자산효과

- ③ 물가가 오르면 우리나라 수출상품가격이 올라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품이 상대적으로 싸져서 수입이 증가 : 무역수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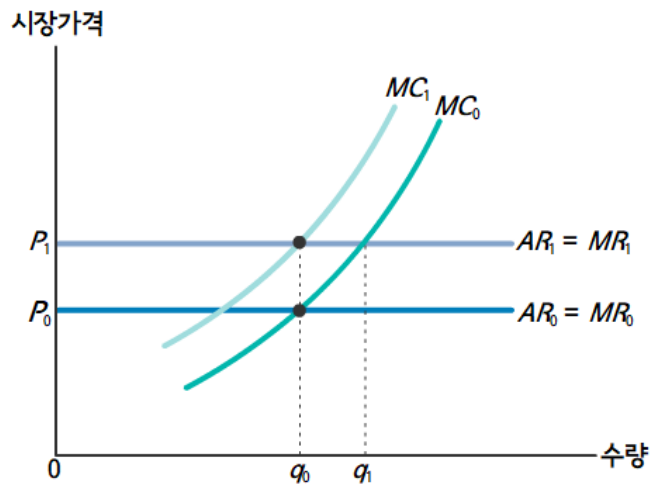


3) 총공급곡선이란?

- 총공급곡선(aggregate supply curve)이란?
 - 각각의 물가수준에서 공급되는 실질총생산을 보여주는 곡선
 - 개별상품의 시장공급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도출하는 것은 아님
-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



- 총공급곡선은 그림과 같이 우상향함
 - I.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쟁기업은 요소가격이 변하지 않을 때 생산물가격이 오름에 따라 우상향하는 한계비용곡선을 따라 생산을 증가시킴
 - II. 만약 생산물가격이 오를 때 요소가격이 같은 비율로 오른다면 개별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변하지 않음
 - ☞ 이에 따라 실질총생산도 불변



III.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산물가격이 오를 때 생산요소가 가격은 생산물가격의 인상분만큼 즉각 오르지 않고 천천히 조정되는 경향이 있음

- ☞ 요소의 가격은 일정기간 계약에 의해 고정되어 있기 때문
- ☞ 생산물가격이 오르면 적어도 단기에는 이윤이 증가하므로 기업의 생산량도 증가함

IV. A~B구간

- ☞ 아주 낮은 생산수준에서의 총공급곡선 → 수평선, 케인스 영역
- ex) 1930년대 초반의 대공황처럼 실업과 생산설비의 유휴가 만연되어 있는 시기에는 물가를 상승시키지 않고도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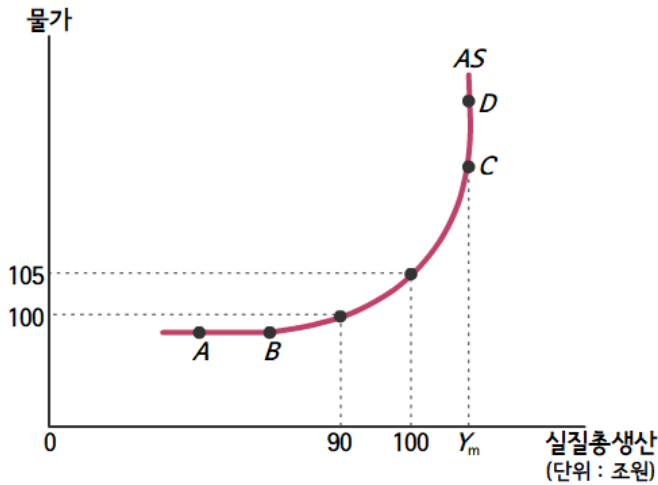
V. C~D구간

- ☞ 모든 상품의 생산설비능력을 완전가동하는 상태에서의 총공급곡선 → 수직선, 고전학파영역
- ☞ 경제가 최대총생산 수준에 도달하면 생산설비를 확장할 수 없는 단기에는 물가가 올라도 생산이 최대총생산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고전학파는 단기에 총공급곡선이 최대총생산수준에서 수직선이라 생각함

VI. B~C구간

- ☞ 현실경제에서의 총공급곡선
- ☞ 케인스영역과 고전학파영역의 중간영역으로 물가가 오르면 총공급이 증가하는 우상향의 총공급곡선을 가짐

4) 총생산과 물가의 결정



- 균형총생산과 물가수준은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의 교차점에서 결정
ex) 위 그림의 균형총생산은 100조원이고 균형물가수준은 105임
- 물가수준이 균형수준보다 높거나 낮을 때
 - 수요 · 공급의 이론에서와 같이 물가의 조정에 의하여 균형이 회복됨
- 총수요 · 총공급의 이론
 - 현실경제에서 관측되는 물가와 실질총생산을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만나는 수준으로 보는 것

2. 총수요 · 총공급곡선의 이동

1) 총수요곡선의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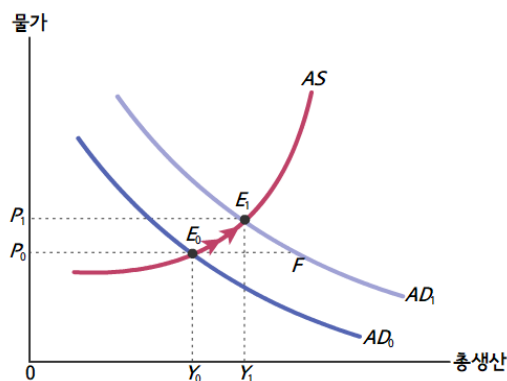
- 총수요의 증가 : 총수요곡선의 오른쪽 이동

① 최초의 균형점

- E_0

② 새 균형점 E_1

- 총수요가 증가하여 총수요곡선이 $AD_0 \rightarrow AD_1$ 으로 이동한 경우의 새로운 균형
- 총생산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



■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

- ① 근검절약풍조가 해이해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소비심리가 커지는 경우
 - 물가수준에 관계없이 소비수요가 증가하여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함
- ② 기업가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투자수요를 확대하는 경우
- ③ 외국에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 ④ 사람들이 미래에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
 - 물가가 오르기 전에 필요한 물품을 사두려 하기 때문에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⑤ 정부가 정부지출 증가, 조세 감면 같은 확대재정정책을 쓰는 경우
- ⑥ 정부가 금리 인하, 통화공급의 증가와 같은 확대통화정책을 쓰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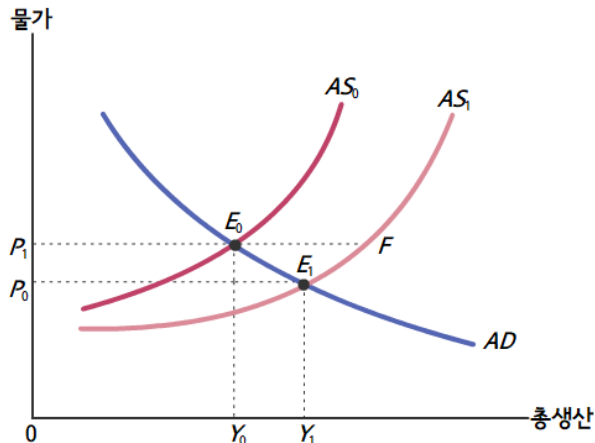
■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물가가 떨어지고 총생산도 감소

- 위의 요인들이 반대로 작용할 경우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함

2) 총공급곡선의 이동

■ 총공급의 증가 : 총공급곡선의 오른쪽 이동

- ① 최초의 균형
 - E_0
- ② 새 균형점 E_1
 - 총공급이 증가하여 총공급곡선이 $AS_0 \rightarrow AS_1$ 으로 이동한 경우의 새로운 균형
 - 총생산이 증가하고 물가는 하락



■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

- ① 임금과 기타 생산요소가 가격이 내리는 경우
- ② 생산기술의 향상
 - 주어진 요소로 종전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음
 -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이 하락하여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③ 경제에 존재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많아지는 경우
 - 노동인구가 증가하고 기업이 신투자를 많이 할수록 각 물가수준에서 종전보다 생산이 증가

-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④ 미래에 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경제 안정화 정책 / 11주차 2차시

1. 경제 안정화 정책의 효과

■ 경제안정화정책

- 물가안정, 고용안정, 국제수지균형 등 경제안정을 위해 정부가 단기에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 cf) 성장정책

-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투자 및 인력관리 등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정책
-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장기적인 정책
 - ① 안정화정책은 단기적인 정책으로 총수요를 조절하여 경기순환의 진폭을 줄이고자 함
→ '경기대책',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도 함
 - ②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나뉨

1) 재정정책의 효과

■ 정부지출이나 세금의 조정을 통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

- 정부지출의 증감
 - 정부지출이 총수요의 네 구성항목 중 하나이므로 정부지출을 증감하면 직접적으로 총수요가 증감
- 세金の 조정
 - 간접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침
ex) 개인의 소득세율을 낮추면 종전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되므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증가 → 민간소비수요 증가
- 재정정책의 유형
 - 확대재정정책
 - ☞ 정부지출 증가, 세금감면, 세율인하 등
 - ★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부작용은 있으나 총생산은 증가
 - ★ 경기침체 시 사용
 - 긴축재정정책
 - ☞ 정부지출 축소, 증세, 세율인상 등
 - ★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 ★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불안이 심각한 사회적 관심사일 때 사용

2) 통화정책의 효과

■ 중앙은행이 돈(통화량)이나 이자율을 변동시켜 총수요를 조절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

- 확대통화정책 : 통화공급 증가, 금리 인하
- 긴축통화정책 : 통화공급 감소, 금리 인상

■ 통화량 증감의 직접적 영향 : 교환방정식

- 명목국내총생산 = 물가수준(P) × 실질국내총생산(Y)
- 명목국내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에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로서 최종생산물의 총거래액과 같음
 - 최종생산물의 총거래액은 경제주체들이 화폐로 지출한 것
 - ☞ 명목국내총생산 = 통화량(M) × 화폐의 소득유통속도(V)
 - 이때 화폐의 소득유통속도
 - ☞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데에 화폐 1단위가

$$\text{평균적으로 사용된 횟수} \left(V = \frac{PY}{M}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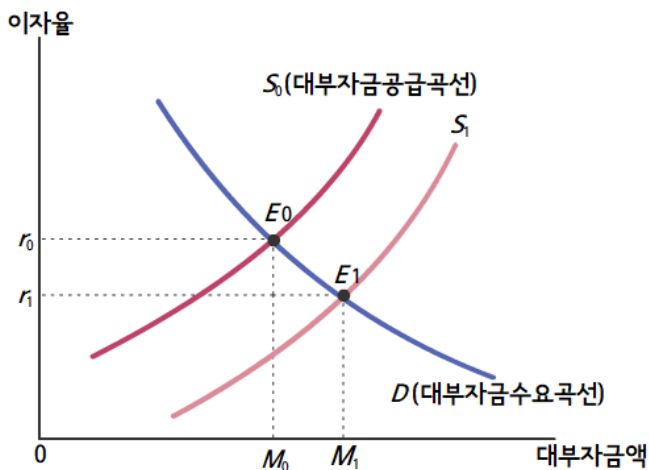
$$\therefore \frac{\text{물가}}{100}(P) \times \text{실질국내총생산}(Y) = \text{통화량}(M) \times \text{화폐의 소득유통속도}(V)$$

➔ 교환방정식

- 화폐의 소득유통속도가 일정할 때 통화량이 증가하면 $P \times Y$ 가 증가함. 단기에 P도 증가하나 Y도 증가

➔ 돈이 늘어나 실질총생산에 대한 총수요가 증가하므로 실질국내총생산도 증가

■ 통화량 증감의 간접적 영향 : 이자율의 변화



- 이자율을 세로축, 대부자금액을 가로축으로 하는 평면에서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대부자금의 공급곡선은 우상향함
 - 균형이자율 : r_0
 - 통화당국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확대통화정책

- ☞ 사람들의 수중에 돈이 늘어나므로 각각의 금리수준에서 종전보다 대부자금의
급이 늘어나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 초과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이자율이 하락함(r_1)

• 통화공급증가 → 이자율하락 → 소비수요와 투자수요 증가 → 총수요 증가

3)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과 이자율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이자율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름

- 확대통화정책은 이자율을 인하
- 확대재정정책은 이자율을 인상시킴

■ 재정정책과 이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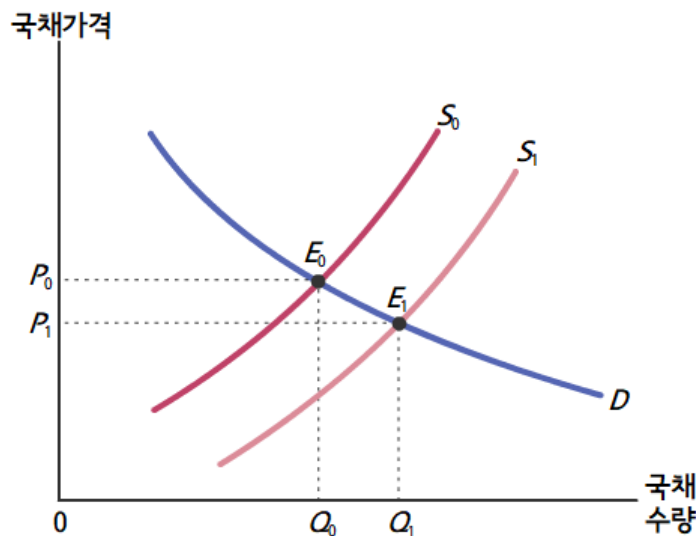
- 정부지출(G) = 세금(T) + 통화공급 증가($\Delta M/P$) + 국채발행 증가($\Delta B/P$)

$$\therefore G - T = \frac{\Delta M}{P} + \frac{\Delta B}{P}$$

• 순수한 의미의 확대재정정책

- ☞ 통화량변동을 초래하지 않고 그 재원을 국채발행의 증감으로 충당하는 것

- ☞ $G - T = \frac{\Delta B}{P}$ 를 만족시키면서 양변의 값을 증가시키는 것



- 초기균형 : E_0
- 정부가 확대재정정책을 쓸 경우
 - 국채 추가 발행 → 국채공급곡선 오른쪽으로 이동 → 국채가격하락(이자율상승) → 민간소비, 투자수요 위축
- 구축효과(잠식효과)
 - 확대재정정책이 이자율의 상승을 초래하여 민간소비와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
 -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시한 확대재정정책이 자체 내에 민간소비와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소를 내포

■ 통화정책과 이자율

- 통화량의 증감은 국공채잔고의 증감으로 나타남
 - 확대통화정책 : 통화량 증가(국채매입조작) → 국채수요 증가 → 국채가격 상승 → 이자율 하락
 - 긴축통화정책 : 통화량 감소(국채매각조작) → 국채공급 증가 → 국채가격 하락 → 이자율 상승
- ∴ 통화정책은 구축효과가 일어나지 않음

2. 안정화정책을 보는 거시경제학파의 두 조류

1) 케인스학파의 재량정책

- 시장경제는 내재적으로 불안정하며 경기변동은 시장실패의 증상
 - 안정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장실패를 수정해야 함
- 정부가 경기상태를 예의 주시하여 안정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재량'이 바람직함
 - 정부의 준칙은 신축성이 결여되어 외부충격이 시장경제에 가해졌을 때 일어나는 교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함
- '재량'이 바람직하다는 이론적 배경
 - 총공급곡선은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곡선
 - 현실세계에서는 생산요소가격이 생산물가격의 변동에 부응하여 즉시 신축적으로 변하지 않음
 - 확대재정정책이 잠식효과를 수반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총수요의 증가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음
 - 안정화정책이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폭이 큼
- 총수요측면을 중요시하는 케인스의 이론을 유효수요의 이론이라고도 함

2) 고전학파의 준칙정책

- 안정화정책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음
 -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인위적인 안정화정책을 쓰는 것에 반대
 - 시장경제는 효율적이며 외부충격에 대하여 자율적인 조정능력을 가짐
 - 경기순환을 시장실패로 보고 정부가 개입하면 정부실패가 발생하여 더 큰문제가 됨
- 재량정책의 두 가지 중대한 문제점

① 길고 가변적인 시차

- 안정화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 · 실시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고(내부시차)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또 시간이 걸림(외부시차)
 - ☞ 각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대단히 가변적임
 - ☞ 결국 경기가 나쁠 때 경기부양책을 쓰면 그 효과가 경기회복기에 나타나 경제를 필요 이상으로 과열시킬 수 있음

② 재량정책의 시간비일관성문제

- 재량정책이 당장에는 최선인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최선이 아님

■ 정부는 공표된 준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함

■ '준칙'이 바람직한 이론적 배경

- 준칙에는 재량정책에 따르는 두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없음
- 자연생산량 수준에서 총공급곡선이 수직이거나 수직에 가까움
-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안정화정책이 생산에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침
 ∴ 생산요소수요가 생산물수요에 따른 파생수요이기 때문에 생산물가격이 변하면
 생산요소가격도 생산물가격 변동에 꽤 신속하게 조정됨
- 확대재정정책은 잠식효과가 크기 때문에 총수요의 증가효과가 미약.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쓰더라도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폭이 작을 것임
- 확대통화정책은 잠식효과는 없으나 장기에 생산증가효과가 거의 없고 물가상승효과만 크게 나타남

3) 현실세계와 경제안정화정책

■ 통상의 경기순환과정

- 고전학파처럼 시장경제의 자연스러운 윤통이라고 보고 경제안정화정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심각한 불황에 빠질 때

- 케인즈 학파의 처방대로 적극적인 재량정책을 써야 함

4) 두 학파와 소비 · 저축 : 소비가 미덕인가? 저축이 미덕인가?

■ 케인스학파

- 소비증가 → 총수요증가 → 생산의 증가 → 소득증가
 → 소비 및 총수요가 다시 증가 (소비가 몇 배의 소득을 창출하는 승수효과가 일어남)
 ∴ 소비의 승수효과 때문에 소비증가가 생산증가와 고용증가로 이어지므로 저축보다는 소비가 미덕

■ 고전학파

- 단기에 저축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고 총수요가 감소
- 그러나 늘어난 저축이 투자재원이 되고, 다른 한 편으로 이자율이 하락하여 기업의 투자가 증가함 → 투자의 승수효과 발생 → 총자본 증가 → 생산능력 확충
 ∴ 저축은 장기에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고 물가를 안정시킴 → 저축이 미덕

■ 현실경제에서 어느 한 학파가 옳고 나머지는 옳지 않다는 극단적인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음

-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미덕이나 장기적으로는 저축이 미덕임
- 안정화정책을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경우 경기 진폭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음
 - 반면 너무 준칙만을 주장하면 경기변동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힘들

실업의 정의와 이론 / 12주차 1차시

1. 실업의 정의와 대책

1) 실업이란? →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

■ 경제활동인구 or 노동력

- 한 나라의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

①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학생이나 주부, 일할 능력이 없는 노약자, 환자 등을 뺀 인구

②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뉨

③ 취업자

-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나,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자영자 가구주의 사업을 도와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가족종사자

④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생산가능인구}} \times 100$

- 실업률 = $\frac{\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취업률 = $\frac{\text{취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고용률 = $\frac{\text{취업자}}{\text{생산가능인구}} \times 100$

■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인구나 취업, 실업의 구분 등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하는 기준을 따름

-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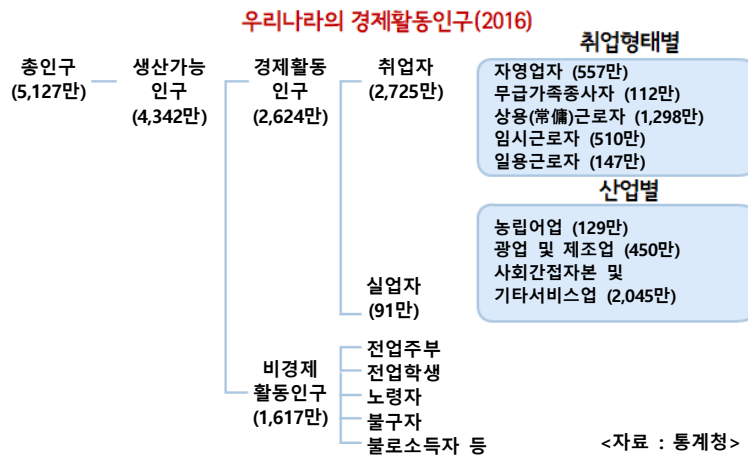
① 임시로 고용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정식고용을 원하는 사람도 취업자

② 실망노동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서 실업자에 포함 안 됨

• 실망노동자

☞ 오랫동안 일자리를 찾아다닌 끝에 지쳐서 당분간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

→ 실망노동자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보아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업통계에서도 빠짐



-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2) 실업의 형태와 대책

■ 마찰적 실업

- 좋은 일자리를 탐색하거나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당분간 실업상태에 있는 것
 - 지금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자리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탐색한다는 뜻에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함
 - 마찰적 실업은 역동적인 사회에서는 존재하게 마련

■ 구조적 실업

- 기술혁신으로 종래의 기술이 쓸모없게 되거나 어떤 산업이 사양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
 - 예) 3D 업종에 종사하던 노동자가 산업로봇의 등장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석탄노동자가 감원되어 일어나는 실업
- 구조적 실업을 포함한 광의의 마찰적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자연실업률이라 부름

■ 경기적 실업

- 총수요가 부족하여 일자리 수보다 노동자 수가 많음으로써 발생하는 실업
 - 경기순환과 결부되어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생김

2. 실업의 비용

■ 실업의 (기회)비용 = 실업의 명시적 비용 + 취업의 순가치

- 실업의 명시적 비용
 - 실업수당
 - 공적 부조
 - 실업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 실업에 따르는 사회불안에 대처하는 치안비용
 - 실업자의 실의와 좌절감

- 가족의 걱정과 피해 등의 심리적 비용
- 취업의 순가치
 - 취업의 순가치 = 취업의 가치 - 취업의 비용 = 실업자들이 고용되었을 때의 순생산의 가치
 - ☞ 취업의 순가치(실업의 생산손실효과)는 실업의 종류에 따라 다름
 - ☞ 마찰적 실업의 생산손실효과는 작고 경기적 실업의 그것은 큼
 - ☞ 경기적 실업의 생산손실효과에 관해서는 오쿤의 법칙
 - 오쿤의 법칙
 - ☞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이 제시한 실증분석 결과
 - ☞ 경기적 실업률이 1% 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실질 GDP가 2.5% 내외로 감소한다는 것

3. 실업이론에 대한 경제학파들의 시각

1) 고전학파의 이론

■ 실업은 대부분 자발적 실업이거나 탐색적 실업임

- 자발적 실업
 -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의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없고 임금이 더 높아야 일할 의사가 있는 실업상태
- 탐색적 실업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현재 잡을 수 있는 일자리는 자기 적성에 맞지 않거나 격과 보수가 낮다고 생각하여 제쳐두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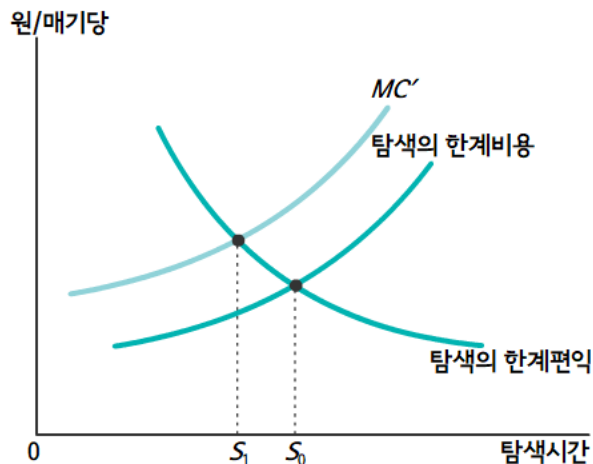
■ 실업은 일종의 균형현상임

- 실업을 없애기 위해 안정화 정책을 쓸 필요가 없고 써도 별 효과가 없음

■ 균형실업과 세이의 법칙

- 균형실업률 : 노동시장에 변화가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되어 노동시장의 균형과 공존하는 실업률
 - 이때의 실업자는 자발적으로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임
 - ➔ 정책적으로 취업시키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음
- 균형실업
 - 경기침체 시
 - ☞ 물가가 하락
 - ☞ 종전의 명목임금수준에서는 실질임금이 상승
 - ☞ 노동공급량이 노동수요량을 초과하므로 명목임금을 하락시켜 다시 실질임금이 떨어짐
 - ☞ 이러한 조정과정이 신속히 이루어짐
 - ➔ 임금이 물가에 따라 신속적으로 하락하여 금방 균형을 회복

- 호경기 시
 - ☞ 물가가 상승
 - ☞ 실질임금이 일시적으로 하락함
 - ☞ 노동의 초과수요가 명목임금의 상승을 가져옴
 - ☞ 다시 곧 균형을 회복
- 세이의 법칙
 - “공급은 그 자체가 수요를 창조한다”
 - ☞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자들이 요소소유자들에게 지불한 총액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액과 같음
 - ☞ 요소소유자들이 받은 소득을 모두 소비하면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기에 충분함
 - ☞ 따라서 공급은 그 자체가 수요를 창조함
 - ☞ 요소소유자들이 받은 소득을 모두 소비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할 경우에도 저축이 조만간 투자수요로 나타나므로 세이의 법칙이 여전히 성립함
- 탐색적 실업이론
 - 가정
 - 실업자와 기업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탐색을 함
 - 직업탐색의 이론
 - ☞ 합리적인 사람은 직업탐색으로 얻으리라고 기대되는 편익이 직업탐색에 들어가기리라고 기대되는 비용보다 크면 탐색활동을 계속함
 - ➔ 개인적인 차원에서 최적탐색 시간이 감소할수록 경제 전체적으로 실업이 감소함



- 최적탐색시간
 - 탐색의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교차하는 점 S_0
- 최적탐색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
 -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발생
 - 실업수당의 감소

- 탐색의 이론은 실업을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최적실업을 논함

∴ 예상된 인플레이션을 낳는 정부의 확대재정 · 통화정책은 실업감소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
 →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고전학파의 입장을 뒷받침

2) 케인스학파의 이론

- 케인스가 본 고전학파 이론의 단점

- 낮은 실업률수준에서 저축과 투자수요가 같아진다는 보장이 없음
 - 저축의 주체와 투자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성격 및 주체가 판이한 저축과 투자수요가 이자율에 의해 낮은 실업률수준에서 같아지라는 보장이 없음
 - 예) 대공황기에는 세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음
- 임금 · 물가 · 이자율 등 가격변수가 완전신축적이라는 고전학파의 가정은 비현실적임
 - 현실세계에서 명목임금은 오르는 쉽게 오르지만 내릴 때는 쉽게 내리지 않음

- 현실세계에서는 임금이 하방경직적

- 물가가 떨어지더라도 노동조합이 임금인하를 용인하지 않음

- 현실세계의 실업은 대부분 비자발적 실업

→ 일할 능력과 현재의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노동자가 존재함

- 케인스는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확대정책을 통한 총수요의 증대로 비자발적 실업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

→ 확대정책을 사용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물가가 오르게 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여 균형상태가 회복

- 실질임금 경직성의 이론

- 수요 · 공급 이론의 틀에서 보면 실질임금이 경직적일 이유가 없음
- 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은 실질임금의 경직성을 여러 이론을 들어 설명함
- 효율임금이론
 - 독과점기업들이 근로자의 생산성과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장평균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
 - ☞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주면 근로자가 태만하다 해고당할 때의 기회비용이 크므로 열심히 일할 유인이 생김
 - ☞ 반면 경기가 나쁠 때에 임금을 낮추면 우수한 인력부터 회사를 그만두는 역선택의 문제가 생기므로 높은 임금을 주게 되어 실질임금이 경직적임
- 내부자 - 외부자이론
 - 노동조합이 임금협상과정에서 외부자를 고려하지 않고 내부자의 복리만 고려하는 집단이기주의에 이끌려 높은 임금을 고집하기 때문에 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

3) 두 학파 이론의 평가

- 통상적인 경기침체국면에서 일어나는 실업 증가는 고전학파가 제안하는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좋음
- 경기침체국면마다 안정화정책을 쓰면 정책의 길고 가변적인 시차효과 때문에 나중에 인플레이션을 크게 일으키는 등 경기진폭을 불필요하게 확대시키기 때문
- 경기가 크게 나빠지면 케인즈 학파가 처방하는 것과 같이 과감한 확대재정정책, 확대통화정책을 써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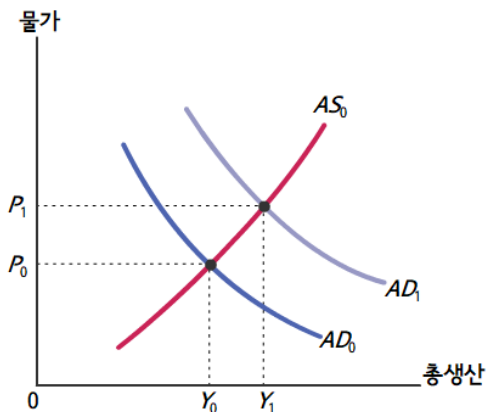
인플레이션 / 12주차 2차시

1. 인플레이션

- 물가의 일반적인 상승 - 구체적으로 물가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표시

1) 인플레이션의 원인

- 수요측 요인



(a)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 과소비풍조가 번지는 경우
 - 기업의 투자의욕이 고취되는 경우
 - 해외경기가 좋아 수출이 수입에 비해 잘 되는 경우
 - 사람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정부가 확대재정정책이나 확대통화정책을 펴는 경우
 -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을 지속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
 - 지나친 통화공급의 증가

$$\frac{\text{물가지수}}{100} (P) \times \text{실질총생산}(Y) = \text{통화량}(M) \times \text{화폐의 소득유통속도}(V) \text{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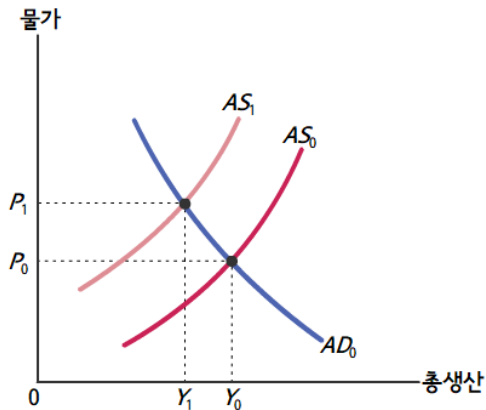
$$\text{인플레이션율} + \left(\frac{\Delta P}{P} \right) + \text{경제성장률} \left(\frac{\Delta Y}{Y} \right) = \text{통화증가율} \left(\frac{\Delta M}{M} \right)$$

$$+ \text{유통속도의 증가율} \left(\frac{\Delta V}{V} \right)$$

☞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과 화폐의 유통속도 증가율은 안정적

➔ 따라서 통화증가율이 높을수록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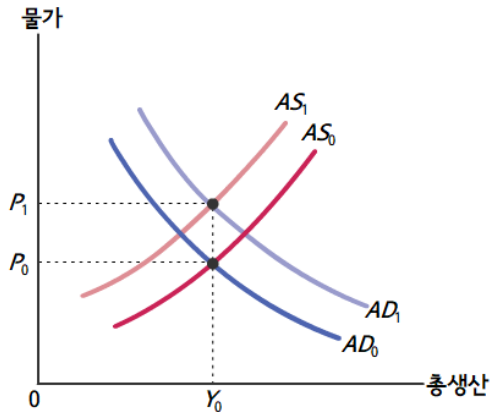
■ 공급측 요인



(b)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 I. 임금, 원자재가격 등 생산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 II. 태업 · 파업 등의 노사분규로 노동의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노동조합이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관철시키는 경우
 - III. 사람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
 - ☞ '노동의 한계생산물(MP_N) × 생산물가격(P) = 임금(w)'
 - $\therefore MP_N$ 의 증가율 + 생산물가격의 상승률 = (명목)임금상승률
- 임금 - 물가상승의 악순환
 - 노동의 한계생산물의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으로 나타남
 - I. 노동생산성 향상을 넘어선 과도한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을 낳고 물가상승은 다시 노동조합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불러오고 하는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
 - II. 임금 - 물가상승의 악순환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수용적 통화정책이 뒤따라야 함
 - ➔ 수용적 통화정책 :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통화공급을 증가시키는 것

■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의 혼합



(c) 혼합형 인플레이션

- 혼합형 인플레이션
- 수요측인 인플레이션과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 혼합되어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 I. 석유파동과 같은 불리한 공급충격이 가해질 경우 정부는 확대재정정책과 수용적 통화정책을 쓰게 됨
 - II.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III. 생산증가, 실업감소, 인플레이션이 더욱 높게 진행됨
 - IV.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형성, 기대인플레이션도 높아짐
 - V.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 VI. 다시 생산감소, 실업증가
 - VII. 정부가 다시 확대정책을 사용
 - VIII. 인플레이션과 기대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짐

예) 1970년대의 선진국과 남미제국이 경험한 높은 인플레이션

2. 인플레이션의 영향과 대책

1) 인플레이션의 영향

■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

- ① 인플레이션은 사회구성원 사이에 소득과 富를 재분배시킴
- ② 인플레이션은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
- ③ 인플레이션은 생산과 고용에 영향을 미침

■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영향

- ① 인플레이션으로 돈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손해를 보고 돈을 빌린 사람은 이득을 봄
- ② 물가상승에 의한 화폐가치의 하락은 화폐소유자의 실질비용이 됨
 - ➔ 이런 의미에서 인플레이션은 화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볼 수 있어 '인플레이션조세(inflation tax)'라 불림

③ 일시적으로 고용 및 생산이 증대

➔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예상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 환경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안정된 소비와 투자계획을 세울
수 없게 함

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불확실성이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비용임

■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영향

-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보다 예상인플레이션만큼
높음

- 예상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예상인플레이션율

-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합리적인 채권자는 그 몫만큼을 명목이자율에 반영시켜
실질이자율을 유지하고자 함 ➔ 피셔가설

-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비용

① 상대가격 왜곡

☞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한 상품의 다른 상품에 대한 상대가격이 바뀌는데 이런
상대가격 왜곡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함

② 세금부담의 증가

☞ 인플레이션이 명목소득을 증가시켜 명목소득에 대해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세율체계
하에서 세금부담을 가중시킴

③ 구두창비용과 차림표비용

☞ 일반 경제주체들이 화폐를 보유하는 기간을 짧게 하고 은행에 출입하는 횟수를 늘려
시간낭비와 구두창 마모를 초래

☞ 기업들은 가격이 오를 때마다 제품의 가격표를 바꾸고 고객에게 가격인상이 부득이
한 것임을 납득시켜야 함

■ 초인플레이션

- 아주 급속하게 진행되는 높은 인플레이션

예) 1980년대 이스라엘과 남미에서 경험한 연율 200%가 넘는 인플레이션

- 영향

①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물건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통화의 유통속도가
천문학적으로 높아짐

② 장기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물물교환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짐

③ 사람들이 세금납부를 꺼려하기 때문에 정부재정이 파탄을 맞기 쉬움

④ 근로자들은 끊임없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기업은 생산활동보다 투기활동에 매달림

2) 인플레이션 대책

■ 안정적인 총수요관리

- 지나친 통화공급의 증가는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므로 안정적인 통화공급이 강력한 인플레이션 대책
 - 프리드먼의 k% 준칙 : 교환방정식에 입각하여 적정 통화공급의 증가율 k%를 정해 경기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것
 - ☞ 통화공급은 경제에 길고 가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통화공급을 재량껏 하지 말고 k% 준칙에 따르는 것이 경제안정화에 더 기여한다는 주장
 - 재정면에서의 절제로 재정적자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고 건전재정을 추구하는 것
 - 근검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사치와 소비를 조장하는 계층 및 부문에 세금을 무겁게 매겨 과소비풍조를 다스리는 것

■ 소득정책

- 케인스학파
 -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의 주원인은 임금인상과 해외원자재가격 상승이므로 임금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정부가 소득정책을 실시해야 함.
- 소득정책
 - 임금과 물가의 상승을 규제하여 각종 요소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책
 - 예) 임금가이드라인 : 정부가 매년 임금상승률의 상한을 정함 임금
 - 물가통제 : 임금과 물가의 인상을 억제하거나 동결시킴

■ 경쟁촉진정책

- 공정거래법을 제대로 집행
- 독과점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
- 가격담합을 금하며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함
 - ➔ 독과점가격이 물가상승의 주범이 되는 것을 방지

■ 공급확대정책

- 수입자유화, 관세율인하정책
 - 수입이 증가하면 해당상품의 국내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음
- 공급능력 향상을 위한 제반정책
 - 투자 · 저축 및 노동공급의 증대를 위한 조세감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향상 · 연구개발 · 교육훈련 등의 정책수단

3. 필립스곡선

■ 필립스곡선 :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 단기에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에 역의 관계가 있으나 장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cf) 단기 :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기간

장기 :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예측하는 기간

$$\pi = -\beta(u - u_N) + \pi^e + \varepsilon$$

① $u - u_N$: 경기적 실업률

② π^e : 예상인플레이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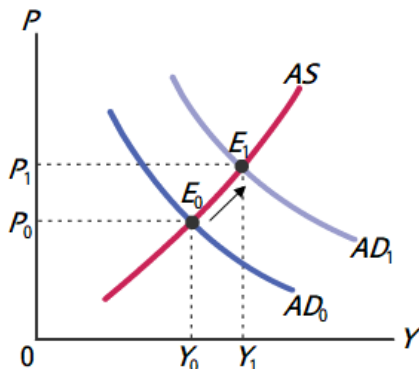
③ ε : 음의 공급충격

➔ 경기적 실업률이 낮아질수록, 예상인플레이션율이 높을수록, 음의 공급충격이 클수록 인플레이션이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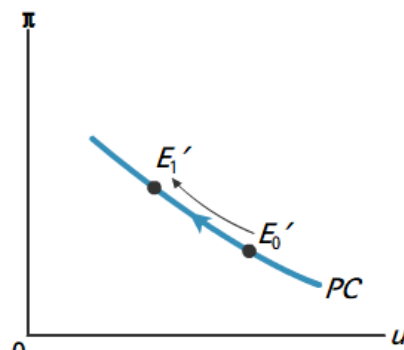
1) 최초의 필립스곡선

■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영국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명목임금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최초로 보임

➔ $\pi = -\beta u$ (단, β 는 양수)



(a) 수요변인 인플레이션



(b) 최초의 필립스 곡선

- (a) \Leftrightarrow (b)

- (a) $E_0' \rightarrow E_1'$

• 총수요가 증가하여 생산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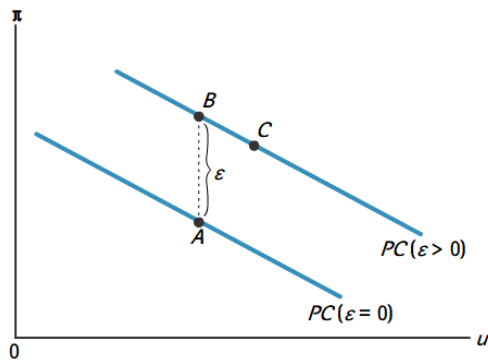
- (b) $E_0' \rightarrow E_1'$

• 생산이 증가하면 고용이 늘어 실업률이 감소

•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짐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경기가 침체(stagnation)하여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실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inflation)이 계속되는 상태
 - 최초의 필립스곡선에 따르면 실업률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져야 함
 - ☞ 1970년대에는 실업률이 높아지는데도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지 않는 현상이 생김
 - ➔ 비용인상인플레이션을 거론 (케인스학파)



① 최초의 식을 수정함

- $\pi = -\beta u + \varepsilon$, 이때 ε 는 불리한 공급충격

- ### ② 불리한 공급충격이 일어날 때는 실업률이 변하지 않는데도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나(B의 경우),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다같이 높아질 수 있음(C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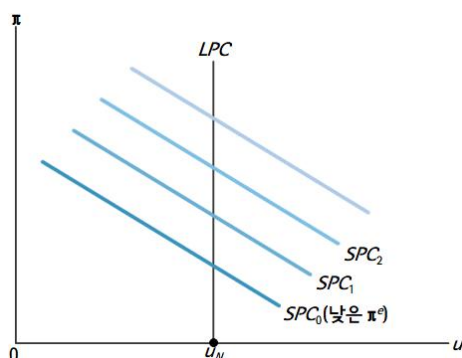
2) 자연실업률이론과 기대부가 필립스곡선

■ 자연실업률

- 공급측면의 교란요인이 없을 때 현재 진행되는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지도 않고 감속시키지도 않게 해 주는 실업률수준

■ 자연실업률이론

- 장기에 실업률은 인플레이션율과 상관없이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회귀한다는 이론



① 식 : $\pi = -\beta(u - u_N) + \pi^e + \varepsilon$

최초의 필립스곡선에 예상인플레이션율이 덧붙여졌기 때문에 위의 식을 기대부가 필립스곡선이라고 함

- ② 장기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을 거의 제대로 예상함 예상인플레이션이 실제인플레이션과 같은 장기에 공급충격이 없으면 위 식은 ' $u = u_N$ '이 되므로 장기 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선임
- ③ 예상인플레이션이 일정하게 주어진 단기에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함
- ④ 1960년대 중반 이후 확대정책으로 물가가 양등세를 보이자 사람들의 예상인플레이션율이 높아져 단기 필립스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또 석유파동은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단기 필립스곡선을 더욱 오른쪽으로 이동시킴
- ⑤ 1980년대 중반부터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자 사람들의 예상인플레이션율이 낮아져 단기 필립스곡선은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음. 이러한 조정과정을 통해 경제는 인플레이션의 크기에 관계없이 5~6%의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회귀하려는 성질을 보임
- 자연실업률
 - 정부의 안정화정책에 관계없이 시장의 독점과 경쟁의 정도,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탐색비용, 노동의 이동가능성 등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결정됨

■ 각국의 자연실업률

- ① 동아시아
 - 2~4%로 낮은 수준
 - ☞ 이유
 - ➔ 높은 경제성장으로 고용증대가 큼
 - ➔ 실업보험제도가 서구 선진국만큼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음
 - ➔ 놀고 먹는 풍조를 죄악시하는 유교권의 근면성
- ② 미국
 - 1970년대부터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5~6% 수준
- ③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로지역 국가
 - 10% 수준
 - ☞ 이유
 - ➔ 노쇠경제여서 경제성장이 낮음
 - ➔ 실업보험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실업자들의 직업탐색시간이 김
 - ➔ 미국, 영국과 달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없음
 - ➔ 이력현상으로 자연실업률 상승
 - ☞ 이력현상
 - ➔ 실제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오랫동안 초과하면 자연실업률 자체가 높아짐

국제무역과 비교우위의 원리 / 13주차 1차시

1. 국제무역의 원천

- 1) 국제경제
 - 여러 나라의 국민경제가 서로 연관되어 형성하는 경제
- 2) 국제무역
 - 나라와 나라 간에 각종 재화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
- 3) 국제무역이 일어나는 이유
 - 자발적인 거래가 거래쌍방에 이득을 줌
- 4) 쌍방에 이득을 주는 이유
 - 생산조건의 차이
 - 나라마다 토지, 노동, 자본, 기술 등이 다름
 - 헥셔 - 올린 정리
 - ☞ 두 나라 사이에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다른 경우 부존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 많이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서로 수출하면 두 나라 모두 이득
 - 규모의 경제
 -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의 경우 국내수요의 초과분을 수출하여 이득을 볼 수 있음
 - 선호의 차이
 - 모든 국가에서 생산조건이 똑같다 하더라도 각 재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다름
 - 교환을 통해 쌍방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2. 비교우위의 원리

- 1) 비교우위의 원리
 - 비교우위의 원리
 - 각국이 상대국에 비해 낮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하는 제품을 수출하고 높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하는 제품을 수입하면 무역으로 서로 이득을 보게 된다는 원리
 - 경제학이 제시하는 교환에 관한 가장 유력한 원리
- 2) 비교우위와 절대우위
 - 예) 절대우위
 -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직물 생산비가 적게 듭
 - ➔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직물생산에 절대우위를 가짐
 - 비교우위
 - 우리나라의 직물생산비는 중국의 3배인데 자동차 생산비는 중국의 2배임
 - ➔ 우리나라가 직물생산과 자동차 생산 모두 중국에 대하여 절대열위임

그러나 중국은 직물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고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말함

- I. 중국은 직물과 자동차, 둘 다 싸게 생산하지만 직물생산이 더 싸기 때문임
- II. 우리나라는 둘 다 비싸게 생산하지만 자동차 생산이 덜 비싸기 때문

3) 분업과 전문화

예) 박세리 선수가 골프선수가 된 것

다른 분야보다 골프에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임. 박세리 선수는 일반인보다 운동신경이 뛰어나 다른 운동도 잘 하지만 그 중 특별히 골프를 잘하기 때문에 골프선수가 된 것

➔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가 기회비용이 작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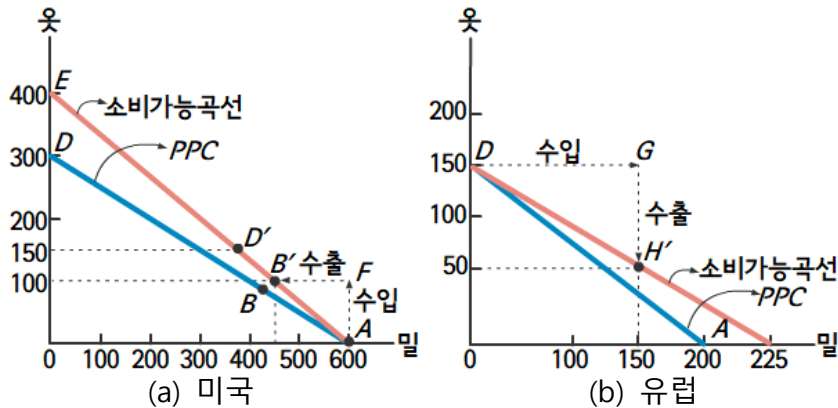
4) 무역에 관한 비교우위의 원리(리카도의 분석)

■ 미국과 유럽의 생산비

미국과 유럽의 생산비		
	재화 단위당 필요노동시간 (괄호안은 기회비용)	
	밀	옷
미국	1(1/2)	2(2)
유럽	3(3/4)	4(4/3)
총노동량 미국 : 600시간, 유럽 : 600시간		

- ① 미국은 밀과 옷 생산 모두에 절대우위를 가짐
- ② 미국은 밀 생산에, 유럽은 옷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짐
 - 두 나라 모두 무역에 참여하지 않고 자급자족할 경우
 - ☞ 미국노동자의 시간당 실질임금은 밀 1단위 or 옷 1/2단위
 - ☞ 유럽노동자의 시간당 실질임금은 밀 1/3단위, 옷 1/4단위
 - ☞ 노동시간으로 가격이 결정되었을 때, 밀과 옷의 가격비
 - ☞ 미국에서는 1 : 2(옷 1단위를 생산하는 데에 밀 2단위를 생산하는 노동 소요
➔ 옷값이 밀값보다 2배 비쌈)
 - ☞ 유럽에서는 3 : 4
- ③ 문호개방 이후 미국의 밀이 유럽으로 수출, 유럽의 옷이 미국으로 수출
- ④ 수입으로 재화의 양이 늘어난 미국의 옷 . 유럽의 밀의 국내가격이 하락
- ⑤ 두 나라의 옷과 밀의 가격이 같아질 때까지 수입 · 수출을 통해 가격조정이 일어남
 - 두 나라에서 밀과 옷의 가격비가 2 : 3으로 같아졌다고 하자
 - ☞ 두 나라의 소비가능곡선이 생산가능곡선보다 위에 있게 됨
 - 소비가능곡선
 - ☞ 한 사회가 최대 소비할 수 있는 두 생산물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
 - 외국과의 무역이 없는 나라
 - ☞ 생산가능곡선 = 소비가능곡선

5) 자유무역의 이득



■ 완전특화

-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만을 생산하고 비교열위가 있는 품목은 전혀 생산하지 않는 것
 - 생산가능곡선이 직선이면 완전특화가 일어남

■ 생산가능곡선이 제1장에서와 같이 원점에 대해 오목하면 비교열위품목도 일부 생산되는 부분특화가 일어남

■ 미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밀만 생산 → 밀 생산량 600단위

■ 유럽은 비교우위가 있는 옷만 생산 → 옷 생산량 150단위

■ 미국은 밀 150단위 수출, 옷 100단위 수입 → B'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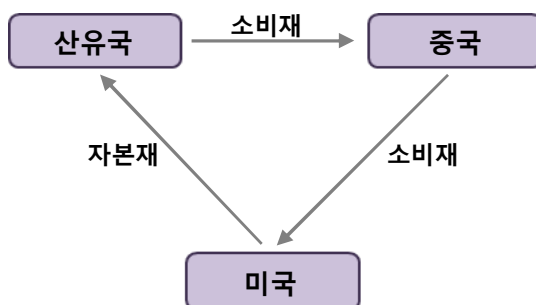
■ 유럽은 밀 150단위 수입, 옷 100단위 수출 → H' 소비

- 미국과 유럽 모두 PPC 바깥쪽 소비. 자급자족보다 높은 효용 누림

6) 리카도 분석의 확장

- 두 재화가 셋 이상의 재화로, 두 나라가 세 나라 이상으로 확장되어도 비교우위의 이론은 여전히 성립함

예) 다자간 무역 : 삼각무역



7) 비교우위의 원리의 한계

■ 정태적인 이론

- 한 상품이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비교우위를 가진다는 보장이 없음
- 어느 시점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을 보호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면 한시적으로 보호무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호무역론의 논거

■ 비교우위의 원리

- 가격과 임금이 신속하게 조정되고 요소의 부문 간 이동이 빨리 이루어지며 비자발적 실업이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유효
 - 현실경제에서 무역자유화로 실업이 발생하면 실제 생산이 생산가능곡선 상이 아니라 생산가능곡선 안에서 이루어짐
 - ☞ 소비가능곡선이 생산가능곡선의 안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음

무역정책과 국제경제질서 / 13주차 2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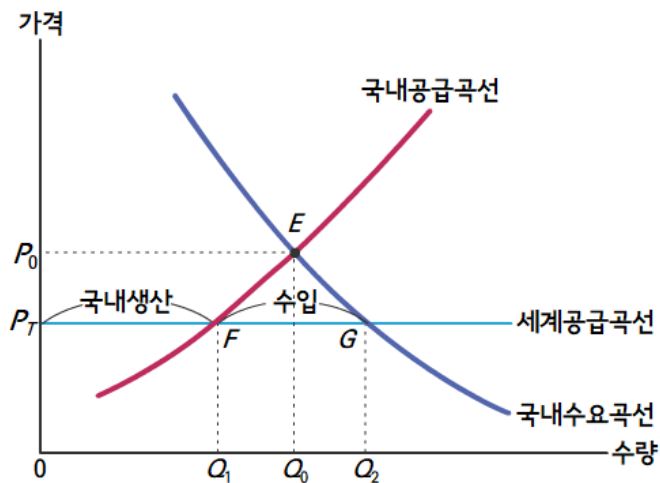
1. 자유무역론과 보호무역론

1) 자유무역론과 보호무역론

■ 자유무역론

- 자유무역론

- 국가가 수출을 통제하거나 수입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다 같이 이익이 된다는 이론
- ☞ 스미스, 리카도, 밀(J. S. Mill) 등이 주장



① 무역이 없을 경우

- E점에서 균형 $\rightarrow (P_0, Q_0)$

② 시장개방이후

- 세계가격이 P_T 로 주어진 경우 국내가격도 P_T 로 하락
 - ☞ 국내생산자는 P_T 가격에 Q_1 만큼 생산
 - ☞ 해외에서 $Q_1 Q_2$ 만큼 수입하여 소비
 - ☞ 소비자들은 P_T 가격에 Q_2 를 소비하므로 소비자후생은 개방 후 증가
 - ☞ 개방 후 후생 변화
 - \rightarrow 생산자잉여: $\square P_0 E F P_T$ 만큼 감소
 - \rightarrow 소비자잉여: $\square P_0 E G P_T$ 만큼 증가
 - \rightarrow 사회전체적으로는 $\triangle EFG$ 만큼 후생이 증가함

③ 국내시장이 경쟁시장이 아닌 경우

- 국내시장이 독점이라면,
 - ☞ 개방 이전 \rightarrow 가격이 P_0 보다 더 높음

☞ 개방 이후

➔ 국내가격이 세계가격과 같은 P_T 가 되고 한계수입곡선도 세계공급곡선과 같은 P_T 선이 됨

➔ 국내 독점기업은 경쟁시장에서의 국내기업 생산량과 같은 Q_2 만큼만 생산

➔ 개방으로 인해 독점기업이 경쟁기업으로 바뀜

- 시장구조가 독과점일수록 자유무역으로 인한 이득이 더 커짐

■ 보호무역론

- 보호무역론 : 한 나라의 산업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이론 ➔ 독일의 경제학자 리스트(F. List)가 주장

① 유치산업 :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아기에 있는 산업

- 후진국이 처음부터 자유무역을 하면 선진국에 눌러 유치산업이 성장할 수 없음
- 적당 기간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여 보호해 주면 국내수요를 기반으로 하여 성장할 수 있고, 또 국제경쟁력을 기를 수 있음

② 신보호무역론

- 미국의 경제학자 크루그만(Paul Krugman)이 주장

☞ 정보통신(IT)산업, 생명공학(BT)산업, 나노기술(NT)산업과 같은

고기술산업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외국 유수의 과점기업들과 경쟁할 수 없음

☞ 고기술산업에서 자유무역을 허용하기 어려움

☞ 고기술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현대적인 보호무역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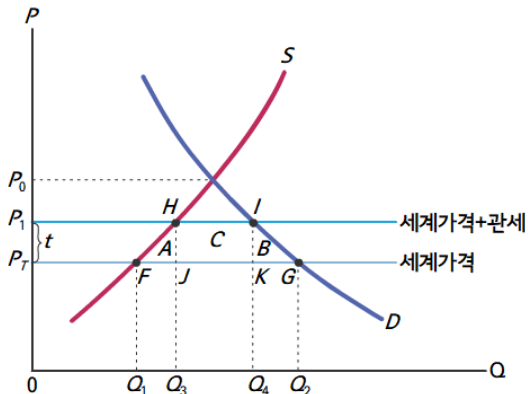
2. 보호무역을 위한 정책수단

1) 보호무역을 위한 정책수단

■ 관세장벽

- 관세장벽 :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
- 관세율 (tariff rate) : 관세의 수입가격에 대한 비율

■ 관세부과의 효과



- 종전의 국내가격(무역으로 세계시장가격과 동일)
 - P_T
- 새 국내가격 (관세 t 부과)
 - P_1
- ① 생산증가효과
 - 관세부과로 국내 생산량 증가
 - $Q_1 \rightarrow Q_3$
- ② 소비억제효과
 - 관세부과로 국내 소비량 감소
 - $Q_2 \rightarrow Q_4$
- ③ 재정수입증가효과
 - $\square C(\square HJKI)$ 만큼 정부의 관세수입이 증가
- ④ 무역수지개선효과
 - $\square FQ_1Q_3J + \square FQ_2Q_4G$ 만큼 수입액이 감소함
- ⑤ 소비자후생 및 사회후생의 손실효과
 - 가격이 P_T 에서 P_1 으로 상승 \rightarrow 소비자 잉여가 P_1P_TGI 만큼 감소
 - 이 중 P_1P_TFH 는 생산자잉여
 - $\square C(\square HJKI)$ 는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나타남
 - ☞ 그러나 $\triangle A(\triangle HFJ)$ 와 $\triangle B(\triangle IKG)$ 는 다른 국내경제주체들의 이익증대로 나타나지 않음
 - $\rightarrow \triangle HFJ + \triangle IKG$ 만큼 사회후생의 순손실이 발생함
- 보호무역론자들은 유치산업의 경우
 - 생산증가효과, 소비억제효과, 재정수입증가효과, 무역수지개선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관세부과에 찬성

■ 관세의 종류

- 일반적으로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율의 범위를 정하여 놓고 필요에 따라 관세율을 변경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를 사용함

예) 상계관세, 보복관세, 반덤핑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물가평형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음

① 상계관세

- 상대국의 수출차별에 대해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③ 덤핑방지관세

- 생산원가 이하로 덤핑하는 수출국의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

④ 긴급관세

- 특정 상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가 있을 때 긴급하게 부과

⑤ 조정관세

- 최근에 수입 자유화된 상품이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경우 해당 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

⑥ 물가평형관세

- 특정 상품의 수입가격이 국내가격과 지나치게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조정하는 관세

⑦ 할당관세

- 물자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 상품의 수입물량에 대해 조정해 주는 관세

■ 비관세장벽

- 수입을 규제하는 관세 이외의 수단들

① 수입허가제

- 정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게 하는 제도
 - ☞ 우리나라에서는 수입금지품목, 제한승인품목만을 고시하고 그 외의 품목은 자동적으로 수입을 승인 ➔ 제한품목열거방식(negative list system)

② 수입할당제

- 특정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량 이상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제도

③ 수입과징금

- 수입상품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 추가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

④ 수입담보금

- 정부가 수입을 승인할 때 수입업자로 하여금 수입 신청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에 적립하도록 함

⑤ 수출입링크제

- 정부가 제품의 수출을 전제로 하여 그 제품 원료의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

⑥ 구상무역

- 한 나라가 자국의 수출범위 내에서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허가하는 것

⑦ 협정무역

- 무역당사국 상호간에 교역상품의 종류나 수량을 정하여 놓고 그 범위 내에서 교역하는 것

⑧ 국영무역

- 국가에 중요한 물자를 국가가 직접 무역하는 것

3. 국제경제질서와 국제무역기구

1) 자유무역과 GATT자유무역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낮추고 국제무역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등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맺어진 일반협정 → 1947년 출범

■ GATT의 세 가지 기본 원칙

① 최혜국대우원칙(Most-Favored-Nation Treatment)

- 가트 회원국 중 두 나라가 쌍무적으로 관세인하협정을 맺으면 그 협정의 내용과 효력이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② 내국민대우원칙

- 회원국이 관세 이외에 내국세, 정부규제 등에서 수입품을 국산품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

③ 수량제한철폐원칙

- 관세 이외에 원칙적으로 수량할당, 수입허가 등에 의한 어떠한 수량규제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

- GATT 11조국

- 수량제한철폐원칙을 준수하는 국가

☞ 가트 11조국이라도

- ① 특정 상품의 수입증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 ② 국제수지가 극도로 악화될 경우 등에는 수입 제한 가능

→ ①에 의한 수입제한을 긴급수입제한(safeguard)이라 함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경제에 관한 선진공업국 중심의 국제협력기구

- 1961년 설립

- 2017년 말 회원국 수 → 35개국

- 우리나라는 1996년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만장일치제로 합의를 도출함

- 목표 : 지속적인 경제성장, 개발도상국 원조, 자유롭고 다변적인 무역의 확대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핵심적인 두 규범
 -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
 - 자본이동자유화규약
 - ☞ 국제간 서비스거래와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달성하려는 OECD의 기본 헌장
 - ☞ 형식상으로는 국제조약은 아니지만 사실상 법적인 구속력을 가짐

3) 선 · 후진국 간 공정무역과 UN무역개발회의(UNCTAD)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제기구
- 1964년 결성
- 개발도상국들이 주동이 되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심각한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선진국은 개도국 개발에 원조를 제공하도록 촉구

예)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 ➔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하여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이나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

■ 개도국 원조 및 개발 네트워크와 UNDP

- 개도국에 대한 원조문제를 계획하고 조정 · 통일하는 기구로 UN 내에 UN 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lanning)이 조직됨
- 매년 인간개발지수와 인간개발보고서를 발간

4)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WTO 체제의 출현

■ 우루과이 라운드의 배경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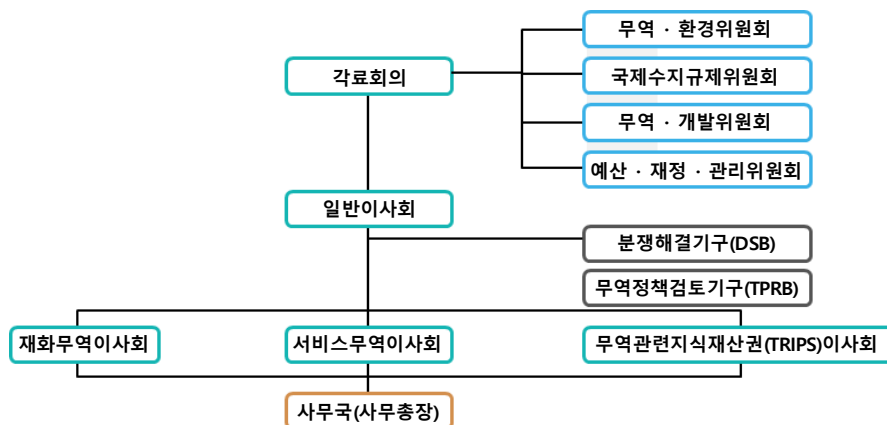
- ① 1970년대의 석유파동 이후 신보호무역주의 추세
- ② 농산물과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공산품 이외의 분야의 교역비중이 높아짐
- ③ 이런 분야를 포괄하는 국제무역규범이 없어 국제통상마찰이 빈번
 -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필요성 증가
 - 986년 9월 우루과이의 Punta del Este에서 각국의 통상장관들이 모여 각료회의를 갖고 다자간 협상의 개시를 선언하였음 ➔ 우루과이 라운드(UR)
- ④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심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제를 채택
 - 예) 선진국: 서비스, 지식재산권 분야를 협상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 개도국: 섬유쿼터제도, 회색지대조치 등의 폐지 주장
 - 가트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분쟁해결절차 등을 모두 협상의제에 포함시킴
 - ➔ 전체 협상의 타결가능성을 높이고자 일괄타결방식 채택

■ UR 협정의 주요 내용

- ① 공산품관세 인하
- ② 농산물시장의 개방
- ③ 서비스시장의 개방

- ④ 덤핑판정기준의 구체화
- ⑤ 보조금과 상계관세의 기준 강화
- ⑥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규정 명료화와 회색지대조치 철폐
- ⑦ 섬유류 수출입규제의 완화
- ⑧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
- ⑨ 분쟁해결의 일원화 등
-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 세계무역기구
 - UR 협정으로 1995년 1월 1일부터 출범하여 UR 협정에 제정된 모든 국제무역규범을 관장하는 강력한 다자간 무역기구
 - ☞ 2013년 말 현재 159개국이 가입

■ WTO의 조직



- UR 협정 이후의 뉴 라운드 : 도하개발어젠다
 - UR 협정은 세계경제의 활성화와 무역질서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
 - 뉴 라운드
 - UR 협정에서 최장 10년으로 규정된 경과기간 이후에도 각 분야의 개방을 더욱 진전시키고 WTO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1년 11월에 카타르의 도하에서 뉴 라운드가 출범
 - ☞ 이 뉴 라운드를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라 함
 - ☞ 농업 · 비농산물 · 서비스분야의 추가개방과 무역규범 · 환경 · 지식재산권 · 개도국우대조치 · 경제정책 등의 의제들을 다룸
 - ➔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협상이 난항

5) 변화하는 세계경제환경과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 세계화 : 상품, 자본, 사람, 정보의 국제간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각국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짐
- 지역화 : 지역경제통합
 - 유럽
 - 유럽연합(1993) 결성

- 단일통화 유로(Euro) 사용(2008)
 - 미국, 캐나다, 멕시코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출범(1994)
 - 남미
 -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MERCOSUR) 결성(1995)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아시아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의 6개국, 아세안자유무역지역 출범(2003)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의 7개국, 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 체결(2004)
 - 아시아 · 태평양지역
 - 21개국,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결성
 -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지향
 - 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추진
- 지방화
- 나라별, 지방별로 경쟁력과 특성화 강조

국제수지와 환율 / 14주차 1차시

1. 국제수지와 국제수지표

1) 국제수지표란?

-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나라(거주자)와 다른 나라(비거주자)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작성한 통계표
- 국제수지
 - 국제수지표에 의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모든 거래에서 외화가 얼마나 남거나 모자랐는가를 나타내는 개념
- 일정 기간 동안에 : 유량 개념
 - 예) 대외채권 · 대외채무 → 저량 개념
 - 대외채권 : 한 시점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하여 가지는 확정 금융자산
 - 총외채(외채) : 한 시점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하여 가지는 확정 금융부채
 - 순대외채권 = 대외채권 - 외채
 - 순외채 = 외채 - 대외채권
- 한 나라 거주자와 다른 나라에 있는 비거주자
 - 경제주체들을 그들의 국적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구분
- 모든 경제적 거래
 - 재화, 서비스, 소득, 경상이전, 자본거래 등 문자 그대로 일체의 대외거래를 포괄

2) 국제수지의 종류

- 경상거래와 경상수지
 - 경상거래
 - 재화 및 서비스거래 · 소득거래 · 경상이전거래
 - 재화 및 서비스거래
 - 다른 나라에 재화와 서비스를 수출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수입하는 거래
 - ☞ 재화수지(상품수지) : 재화수출액과 재화수입액의 차이
 - ☞ 서비스수지 : 서비스 수출액(受入)과 서비스 수입액(支給)의 차이
 - 재화 및 서비스수지 = 재화수지 + 서비스수지
 - 소득거래
 - 다른 나라에서 일하고 번 임금과 투자해서 번 투자소득을 기록하는 거래
 - ☞ 소득수지 :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일하거나 투자해서 얻은 소득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거나 투자해서 얻은 소득의 차이

- 경상이전거래
 - 증여 · 구호 등과 같이 반대급부 없이 재화나 서비스가 나라 사이에 일방적으로 이동하는 거래 → 경상이전수지
 - ☞ 경상수지 = 재화 및 서비스수지 + 소득수지 + 경상이전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제수지는 이 경상수지를 말함
 - ☞ 경상수지 > 0 : 경상수지 흑자, 경상수지 < 0 : 경상수지 적자
- 자본거래와 자본수지
 - 자본거래
 - 나라 간의 금융거래
 - 거래하는 자본의 성격에 따라 투자거래와 기타자본거래로 구분
 - 투자거래 :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 → 투자수지
 - 직접투자
 - ☞ 이윤을 얻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생산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것
 - 증권투자(포트폴리오 투자, 간접투자)
 - ☞ 다른 나라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투자로서 배당이나 이자소득 등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외투자
 - 기타투자 :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 속하지 않는 모든 대외금융거래를 포괄하는 것
 - ☞ 대출 및 차입, 무역관련 신용, 현금 및 예금 등
 - 기타자본거래
 - 해외 이주비와 같은 자본이전과 특허권 · 상표권과 같은 기타자산의 대외거래를 기록
→ 기타자본수지
 - 자본수지 = 투자수지 + 기타자본수지
- 준비자산 증감
 - 각종 대외거래에 의해 일어난 중앙은행의 준비자산의 변동
 - 경상수지 + 자본수지 = 준비자산 증(+)/감(-)
→ 경상수지 + 자본수지 + 준비자산 증(-)/감(+) = 0
 - 위 식은 국제수지에서 이론적으로 항상 성립해야
 -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음
 - 국제수지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여러 통계자료의 원천이 다르기 때문
∴ 오차 및 누락이라는 조정항목을 둠
→ 경상수지 + (자본수지 + 준비자산 증(-)/감(+)) + 오차 및 누락 = 0
 - 자본수지와 준비자산 증감, 오차 및 누락의 합을 광의의 자본수지라 할 때
경상수지와 광의의 자본수지의 합은 0이라는 항등식이 성립
 - 경상수지 + 광의의 자본수지 = 0
☞ 단, 광의의 자본수지 = 자본수지 + 준비자산 증(-)/감(+) + 오차 및 누락

2. 환율의 결정과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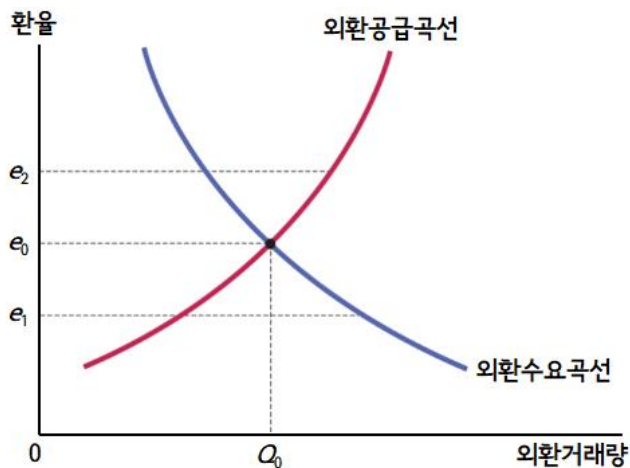
1) 환율과 외환시장

■ 환율

- 외화 1단위를 얻기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자국통화의 수량
- 우리나라 돈으로 표시한 다른 나라 돈의 가격

■ 환율의 결정

- 변동환율제도 하의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환율이 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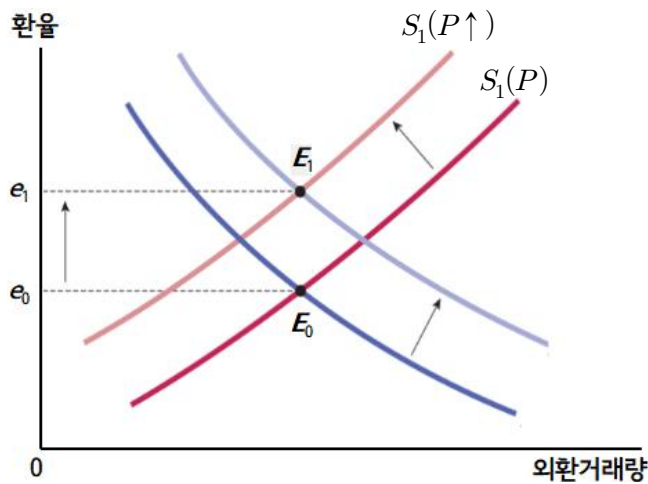


- ① 외환시장 : 서로 다른 돈들이 교환되는 시장
- ② 외환수요곡선 : 환율의 상승은 외환(외국돈)이 비싸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외환에 대한 수요량을 감소시킴
→ 환율을 세로축, 외환거래량을 가로축으로 하는 평면에서 우하향
- ③ 외환공급곡선 : 환율이 상승하면 해외 시장에서 싸진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여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외환의 공급량이 증가, 우상향
- ④ 균형환율 : e_0
균형외환거래량 : Q_0
- ⑤ 자본자유화로 자본거래도 독자적 ·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균형환율 수준에서 경상수지 + 국제수지표 상의 자본수지 = 0이 됨

2) 환율의 변동

- 우리나라 물가가 오르거나
- 해외물가가 내리거나
- 우리나라 경기가 호황이거나
- 해외의 경기가 불황이거나
-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하락하거나
- 긴축재정정책을 쓰거나
- 확대통화정책을 쓰거나

- 환율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할 경우 환율이 상승함
- 우리나라 물가가 오를 경우



- ① 수출품가격이 비싸짐 → 수출감소 → 외환공급량 감소 → 이는 어떤 환율수준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외환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 ② 수입품가격이 싸짐 → 수입증가 → 외환수요량 증가 → 외환수요곡선 오른쪽 이동
- ③ 외환수요곡선이 $D_0 \rightarrow D_1$, 외환공급곡선이 $S_0 \rightarrow S_1$ 으로 이동하면
균형환율은 $e_0 \rightarrow e_1$ 으로 상승함

■ 해외물가가 내릴 경우

- 해외물가 하락 → 우리 수출품이 해외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비싸짐, 수입품이 국내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싸짐 →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한 것과 같은 효과 → 외환수요량 증가, 외환공급량 감소 → 환율 상승
- 구매력평가설 : 국내인플레이션이 해외인플레이션보다 높으면 그 인플레이션율의 차이만큼 환율이 상승한다는 가설

-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 PPP)

PPP : 국내가격(P) = 해외가격(P_f)×환율(e) $P = P_f \times e$ 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여 정리하면

$$\frac{\Delta e}{e} = \frac{\Delta P}{P} = \frac{\Delta P_f}{P_f} \text{가 성립함}$$

"환율상승률은 국내물가상승률과 해외물가상승률의 차이와 같다."

- 실질환율 : 명목환율(e)에 해외물가지수(P_f)와 국내물가지수(P)의 비율을 곱한 것,

$$\text{실질환율} = e \times \frac{P_f}{P}$$

- 구매력평가가 성립한다면 실질환율은 1
 -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구매력평가는 잘 성립하지 않음
 - 구매력평가설은 장기에 꽤 잘 성립

- 국내경기가 호황이거나 해외경기가 불황일 때
 - 우리나라 경기가 호황 → 총소득이 높아짐 → 소비수요와 투자수요 증가 → 수입증가 → 외환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환율상승
 - 해외경기 불황 → 외국총소득 감소 →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감소 → 외환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 환율상승
- 국내이자율이 하락할 때
 - 이자율하락 → 소비수요 · 투자수요 증가 → 상품수입 증가 → 외환수요곡선 오른쪽으로 이동 → 환율상승
 - 이자율하락 → 국내의 낮은 금리 때문에 외국자본이 유출 → 자본수지악화 → 외환공급이 감소하여 외환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 환율상승
 - 세계이자율이 상승하면 국내이자율이 하락한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 외국으로 자본이 유출되고 이에 따라 외환공급이 감소 → 환율상승
- 긴축재정정책과 확대통화정책
 - 긴축재정정책 → 이자율하락 → 환율상승
 - 확대통화정책 → 이자율하락 → 환율상승
 - 긴축재정정책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총소득이 감소하여 환율을 하락시키는 효과도 있으나 단기에는 이자율 하락에 따른 환율상승효과가 더 큼
- 예상 :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할 경우
 - 수출은 가급적 늦추고 수입은 앞당기려는 현상이 일어남 → 외환공급이 감소하고 외환수요 증가 → 환율이 실제로 상승함

국제통화제도와 개방경제 / 14주차 2차시

1. 국제통화제도의 변천과 환율제도

1) 국제통화제도의 변천과 환율제도

■ 환율제도의 유형

- 자유변동환율제도(변동환율제도)
- 관리변동환율제도
- 고정환율제도

■ 국제통화제도

-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채택하는 국제결제수단과 환율에 관한 제도
- 변천 : 금본위제도(1870~1914) → 브레턴우즈 체제(1944~1971) → 킹스턴 체제(1976~)

■ 금본위제도와 고정환율제도

- 금본위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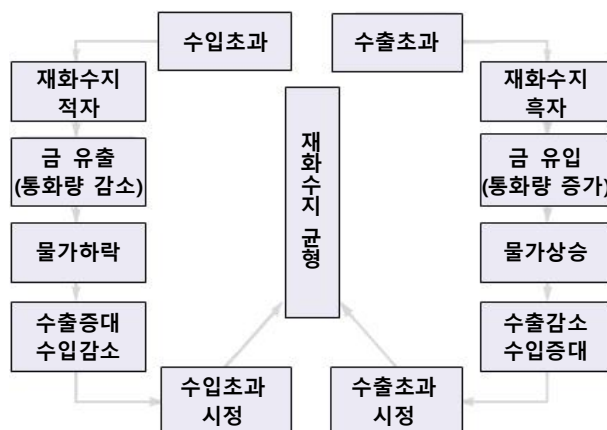
- 금의 일정량을 화폐단위로 정하는 제도
- 각국간 환율이 금을 통하여 고정

예) 1913년 미국의 1달러(\$)는 0.053온스의 금으로,

영국의 1파운드(£)는 0.257온스의 금으로 정해져 있었음

→ 따라서 금을 통하여 1파운드 = 4.85달러로 환율이 고정

- 통화량이 금 보유량과 연결되어 있고 금의 수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짐
- 고전학파에 의하면 금본위제도 하에서는 변동환율제도와 같이 국제수지의 조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짐
 - 전제 :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해 국내물가가 자유롭게 오르내림
- 금본위제도 하의 국제수지 자동 조절



- 경기침체와 무역수지 적자가 있을 때 국제수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물가가 하락해야 함

- ☞ 그러나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임금이 높아져 고용이 감소하고 경기침체 심화
- ☞ 이 대내불균형을 고치기 위한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실시
 - ➔ 금본위제도가 붕괴하고 브레턴우즈 체제 등장

■ 브레턴우즈 체제

- 미국의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도
- 미 달러화는 금과 일정한 교환비율(금 1온스당 35달러)을 유지하면서 이비율로 금과 자유롭게 교환 가능
- 다른 나라들의 통화는 기축통화인 미 달러화와 일정한 교환비율을 유지하여미 달러화를 매개로 하여 각국 통화 간의 환율이 일정하게 유지
- 고정환율제이지만 조정 가능한 환율제로 보완한 것
 - 국제적 협조가 필요
 - ☞ 국제통화기금
 - ☞ 세계은행의 외화자금 공여
 - 미국이 1971년에 국제수지 적자로 금태환을 정지함으로써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 킹스턴체제

- 각국이 스스로 환율제도를 선택하도록 하고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인정
- 관리변동환율제도
 - 환율을 외환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규제하는 금의 공정가격제가 폐지되고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사라졌지만 이에 대신할 만한 국제통화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 과도기적 체제임
- 현재 각국은 다양한 환율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예) 미국, 일본, 유로지역 : 자유변동환율제도
 - 중국, 말레이시아 : 미 달러화에 환율을 고정시킴
 - 태국 : 통화바스켓제도
 -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 관리변동환율제도

■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 1960년대와 1970년대 : 고정환율제도
- 1980년 2월 : 복수통화바스켓제도(관리변동환율제도의 일종)
 - 우리나라와 무역거래비중이 큰 주요 교역국 통화의 대외가치를 가중평균한 값에 원화의 대외가치를 고정시키는 제도
- 1990년 3월 : 시장평균환율제도 실시
 - 복수통화바스켓제도의 자의적인 조정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한 것
 - 외국환은행들끼리 외환을 거래할 때 적용한 환율을 거래량에 따라 가중평균한 환율
 - 자유로운 변동환율제도에 근접하게 됨
- 1997년 12월 :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

2. 개방경제에서의 가격변수들의 수렴

1) 가격변수들의 수렴 경향

■ 요소가격균등화

- 국제간 요소이동이 자유로울 때 요소의 국내외가격이 같아지는 경향 자본의 완전이동
- 국가간 자금거래에 규제가 전혀 없고 국내 자금거래에 비해 추가적인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것

■ 자본의 완전이동 하에서 이자율평가(interest rate parity)가 성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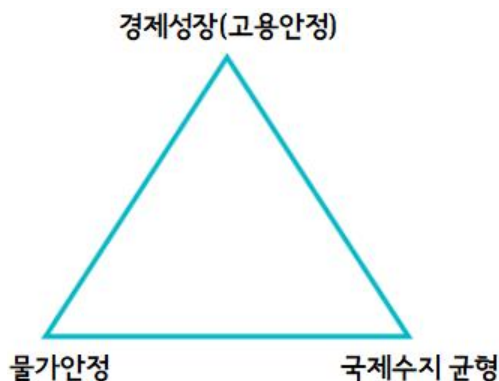
■ 이자율평가 : 국내이자율 = 해외이자율 + 환율의 기대상승률

- 환율이 앞으로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안정적이라고 예상되면 국내금리 와해외금리가 같아짐
- 위 식의 왼쪽 항
 - 우리나라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의 수익률
- 오른쪽 항
 -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할 때에 얻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수익률
 - ➔ 합리적인 투자자들이 금리차익을 얻고자 하는 차익거래는 양자를 같게 함

2)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의 상충

■ 불안정한 삼각형

- 경제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움
 - 대내균형
 - ☞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이룰 때
 - 대외균형
 - ☞ 국제수지균형
 - 대내균형과 대외균형 간에 상충관계가 존재
- 예)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균형의 상충관계 : 정부가 특정 농산물이나 기초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하면 해당 품목을 외국으로부터 긴급수입
 - ➔ 물가안정 그러나 수입이 증가하여 경상수지 악화



- 단기에 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면 각 목표를 어느 정도의 차선의 수준에서 조화시키는 지혜가 필요

- 자연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 낮은 한 자리 수의 인플레이션,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를 지향하는 것이 슬기로운 정책목표

3. 개방경제에서의 저축과 투자, 경제정책의 효과

1) 개방경제 하의 저축과 투자

■ 사회 전체적으로 총저축은 총투자와 같음

① 국내총생산

$$= \text{민간소비지출}(C) + \text{정부소비지출}(G) + \text{국내총투자}(I_g) + \text{재화와 서비스의 순수출}(X - Z)$$

② 총소비 + 총저축 = 국민총처분가능소득

$$= \text{국민총소득} + \text{국외순수취경상이전}$$

$$= \text{국내총생산} + \text{국외순수취요소소득} + \text{국외순수취경상이전}$$

- ①의 결과를 ②에 대입하면

$$\text{총소비} + \text{총저축}$$

$$= C + G + I_g + (X - Z) + \text{국외순수취요소소득} + \text{국외순수취경상이전}$$

- 총소비 = 민간소비지출(C) + 정부소비지출(G) 이므로

$$\text{③ 총저축} = \text{국내총투자} + (\text{재화와 서비스의 순수출} + \text{국외순수취요소소득} + \text{국외순수취경상이전}) = \text{국내총투자} + \text{경상수지}$$

- 총저축 = 총투자의 관점에서 경상수지는 국외투자라 볼 수 있음

■ 투자조달항등식

- 총저축(국민저축)은 저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계저축, 기업저축, 정부저축으로 나눔

- 국내총투자 = 총저축 + 경상수지적자

$$= \text{가계저축} + \text{기업저축} + \text{재정수지흑자} + \text{경상수지적자}$$

→ 위 식을 통해 국내총투자의 조달재원이 민간(가계 + 기업)저축, 정부저축(재정수지흑자), 해외저축(경상수지적자)임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낮은 수준의 민간저축과 재정수지 적자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의 국내총투자가 가능했던 것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통한 것이었음

■ 저축사용항등식 : 투자조달항등식과 표리관계의 식

- 민간저축 = 가계저축 + 기업저축

$$= \text{국내총투자} + \text{재정수지적자} + \text{경상수지흑자}$$

- 민간저축이 국내총투자재원, 재정수지적자보전, 경상수지흑자 시현의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됨

- 쌍둥이 적자 :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수지적자가 함께 일어나는 것

- 저축사용항등식을 통해 볼 때

$$(\text{민간저축} - \text{국내총투자}) + \text{경상수지적자} = \text{재정수지적자}$$

민간저축과 국내총투자의 차액이 별로 변하지 않으면 경상수지 적자가 재정수지 적자와 함께 일어나는 쌍둥이 적자가 발생

예) 1980년대와 2000년대의 미국

2) 개방경제 하에 경제정책의 효과

- 폐쇄경제와 같이 개방경제에서도 경제정책의 효과를 총수요 · 총공급곡선을 이용하여 분석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폐쇄경제에서와 같으나 총생산과 총소득이 증가할 때 순수출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개방경제에서는 총수요곡선의 오른쪽 이동폭이 작아짐

■ 정책의 효과 (개방경제, 변동환율제도 하)

- ① 확대재정정책 : 총생산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상승 → 금리차익을 노리는 자본이 해외로부터 유입 → 외환공급 증가
 - 환율 하락, 자본수지 증가(=경상수지 감소)
 - 긴축재정정책의 효과는 위의 결과와 정반대임
- ② 확대통화정책 : 총생산 증가, 이자율 하락 → 자본이 해외로 유출
 - 외환수요증가 → 환율 상승 → 순수출의 변동방향은 확실치 않으나 자본수지 감소(=경상수지 증가)
 -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는 나라가 아닌 한 경상수지의 증가가 감소보다 바람직
 - 대내외 균형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나음
- ③ 환율정책
 -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만성적인 경상수지적자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 인위적인 환율인상을 실시 → 순수출증가, 총수요곡선 오른쪽 이동 → 총생산증가, 물가상승 → 순수출과 경상수지 개선 (총생산의 증가에 따른 순수출의 감소가 환율상승에 의한 순수출 증가보다 작다고 가정함) → 변동환율제도 하에서도 환율의 지나친 급변동을 막기 위한 환율안정조작 필요
 - 일반적으로 환율의 결정을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불안심리나 외생적인 충격 때문에 환율이 지나치게 급등락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안정조작(smoothing operation)을 하는 것이 바람직
 - 이는 어떤 목표환율을 정하고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환율조작과는 다른 개념임